

HR

라디오서울 · 한국TV매거진

Apr 9, 2024 VOL.17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신문
-서울경제 뉴스와이드

radioseoul1650.com 라디오서울
-미국, 로컬 뉴스

전미주에서 보는 H매거진
-네이션와이드 미주한국일보 뉴스

서울경제 시사, 경제칼럼
-인간의 빈틈을 메워주는 AI

*송봉후앵커 스토리뉴스
-라디오서울 레전드앵커의 뉴스쇼츠

*서울경제 골프페이지
-타이거우즈 전처 엘린과 대면

*H음악다방- 오늘 저녁 이 노래
- ONLY YESTERDAY

*H독자코너- 이 사진 한 장
- 아가야 빛나거라

이웃케어클리닉 건강칼럼
-예방접종으로 자녀 건강 지키기

이서희 시사살롱
-이재명의 썰썰 발언은?

성소영 임상심리학박사 강철멘탈클래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나음한의원 생로병사칼럼
-장 건강과 잘 싸는 인생

표지모델 : VMS 앤디박대표

황인용 심장 / 혈관 내과
Inyong Hwang, M.D. FACC, RPVI, ABVM



www.HeartDoctorLA.com
www.황인용따뜻한심장내과.com
3130 West Olympic Blvd,
Suite #250, LA, CA. 90006

(213) 528-1111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무료 상담



Ye Ja Kim (김예자) Lic #: 0F07964
Lee JiHoon (이지훈) Lic #: 4276029
714.773.2939 714.872.9377

562.640.0643

성민산삼한방병원
www.sansamsale.com



809 S. Hobart Blvd. L.A., CA 90005
한의학박사 서영수 (진료시간 월-토 09:30am-06:30pm)

(213) 385-3304 (산삼공사)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 (213) 725-2857
부에나 파크 (714) 455-3739

USC Norris Comprehensive Cancer Center
Rock Medicine of USC

BEST HOSPITALS
USNews
2023-2024

중국 정통 한의학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합니다.

나음한의원
6281 BEACH BLVD #117
BUENA PARK, CA 90621
(657) 325-4000

은퇴, 상속, 절세,
401K 플러버, 생명보험 학자금,
재정에 대한 모든 문의와 플랜은
626-827-9599

문선영의 머니토크
라디오서울 문선영의 머니토크
미국최초/미국최고, 미국유일의 재정방송
라디오문선영의 머니토크(라디오서울 AM
토요일 오후 4시/ 일요일 오후 4시)



대한민국수도 서울, 미주한인대표라디오 라디오서울



조선갈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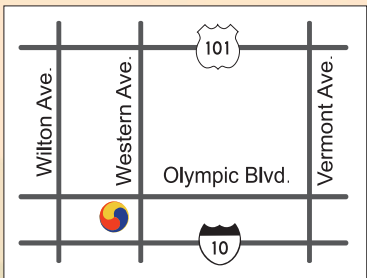
또아리 냉면

OPEN HOUR
매주 화요일 쉽니다

월·수·일 오전 11시 - 오후 9시 30분까지
목·금·토 오전 11시 - 오후 10시까지

TO GO & Delivery 서비스 해드립니다
딜리버리 Charge 가 있으며 거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런치 메뉴
갈비 닭불고기 연어구이 우거지탕 비빔밥 김치찌개 육개장 떡국
불고기 돼지불고기 갈비탕 따로국밥 된장찌개 알찌개 만두국 떡만두국
- 디너 메뉴
조선갈비(프라임) 칠리안 갈비찜 생선전 조선전골
조선갈비(초이스) 시배스 갈치조림 잡채 해물전골
갈비 주물럭 연어구이 은대구조림 두부전 곱창전골
소불고기 조기구이 새우전 물만두 은대구매운탕
닭, 돼지불고기 이면수 해물파전 홍어회무침 우럭매운탕



직원 모집

1) 캐시어 2) 주방 쿡 하실 분
3) 웨이트리스 4) 매니저
* 유경험자 환영 *
(323) 734-3807

조선갈비
Chosun Galbee Restaurant
3330 W. Olympic Bl., L.A., CA 90019

323·734·3330
323·737·3332
www.chosungalbee.com

불타는 트롯맨

TOP7 미국투어 콘서트



5월 18일, 토요일 · 7PM

불타는 트롯맨

TOP7 미국투어 콘서트

PECHANGA SUMMIT 라이브 공연

자세한 정보는 전화 문의 888.810.8871 또는 웹사이트 pechanga.com

방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77.711.2WIN • PECHANGA.COM

남가주 와인 컨트리 테메쿨라 벨리에 있으며,
I-15 출구에 인접해 교통이 편리합니다.
45000 Pechanga Parkway, Temecula, CA 92592

본사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1세 이상만 도박이 가능합니다.
도박 문제 상담 전화 1.800.GAMBLER.



라디오서울 생방송과 지난 방송 다시 듣기, 그리고 매거진에 게재된 뉴스 등 다양한 정보와 읽을 거리, 들을 거리가 있는 radioseoul1650.com 을 컴퓨터, 핸드폰으로 방문하세요.

근무시간 이후에 오는 상사 전화 안받아도 돼?



하는 주정부가 된다.

고용주는 직원들과 근무시간에 대한 정의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규정을 어기고 근무시간 이후에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연락을 하는 고용주들에게 직원들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규정을 위반한 고용주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법안이 상정된 배경은 팬데믹때문에 재택 근무가 늘어나는데 따른 것이다.

재택근무나 하이브리드 근무가 늘어나면서 직장과의 경계선이 무너져, 상사로부터 근무 시간외에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받는 일들이 늘어나면서,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하나는 스마트폰 때문에 일터와 개인 생활의 경계선이 무너진 것도 이번 법안 상정의 배경이다.

직장을 벗어나도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이메일을 체크할 수 있고 또 상당부분 업무 처리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장에서 근무 시간외에 연락을 받고, 일처리까지 하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을 선보인 헤이니 의원은 퇴근후 직장인들이 방해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기업의 권익을 옹호하는 단체들로부터 많은 반발을 사고 있다. 기업측에서는 이 법안으로 인해 여러가지 골치아픈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 지지자들은 이미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호주, 아르헨티나 등 13개국에서 유사한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근무 시간 이후에 상사로부터 오는 전화나 이메일, 텍스트를 거부할 권리를 근로자들에게 보장하는 법안이 가주 의회에 상정돼 주목된다.

직원들이 근무시간외에 상사로부터 걸려오는 업무상의 전화나, 이메일, 텍스트를 받지 않도록, 근무후 직장과의 단절할 수 있는 권리를 직원들에게 제공하자는 법안 AB 2751를 가주

의회에 상정했다.

샌프란시스코 출신 맷 헤이니 가주 하원의원이 상정한 '라이트 투 디스커벳' 법안은 가주의 직장인들의 근무시간외에 개인 시간이 침해받는 것을 막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주는 전국에서 최초로 근로자들에게 근무시간외에 직장과의 연락을 단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엘에이에서 3천만 달러 현금 강탈



지난 부활절 일요일에 샌퍼난도 지역 현금 보관소에서 3천만 달러가 강탈당해 연방 수사국과 엘에이 피디가 수사에 착수했다

강도 사건은 실마 지역 락스포드 스트리트와 샌퍼난도 로드 사이에 위치한 가다월드 시설에서 일어났다

강도범들이 보관소에 침입해 거액의 현금을 강탈해갔음에도 알람이 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들은 월요일 현금 보관소 볼트를 열기 전

까지는 현금이 강탈당한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다 월드 측은 강도피해를 입은 가다월드 보관소는 매우 안전하고, 경보 시스템이 철저히 되어있기 때문에, 강도범들이 어떻게 시스템을 뚫고 거액의 돈을 훔쳐갈 수 있었는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LAPD는 이번 강도사건이 LA 역 사상 가장 큰 규모의 강도 피해액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패스트푸드 업계 최저 시급 인상후 줄줄이 메뉴가격 인상



4월 1일부터 가주의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점 종업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패스트푸드 체인들이 줄줄이 음식가격을 올리거나 직원감원, 혹은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부담을 상쇄하고 나섰다.

가주의 대형 패스트푸드 업계 종업원들의 최저 시급이 16 달러에서 20 달러로 인상되면서, 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크게 불고 있다.

대부분은 메뉴 가격으로 대처하고 나섰다.

인건비 부담외에도 식자재와 매장 렌트비까지 인상되다보니 매장운영에 더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늘어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로 한 것이다.

맥도날드, 스타벅스의 경우 인상된 최저시급으로 인해 매장에서 판매하는 메뉴의 가격대를 인상하기로 했다.

일부에서는 직원 감원으로 맞고 있다.

피자헛의 경우 이미 지난 2월부터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최저시급 인상을 대비해서 이미 남가주에 위치한 일부 매장 직원들의 감원을 진행한 바 있다.

피자헛은 딜리버리 운전자들을 해고하고 써드 파티 운전자에 배달을 맡기는 추세다.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나선 업체들도 있다.

업무 자동화를 서둘러 직원 감축을 하려는 업체들도 있다.

김해원 변호사는 과거 패스트푸드 체인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최저시급 인상이 현실화되면 다른 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패스트푸드점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었지만 현재 그런 우려는 사라진 상태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한데 안정적인 직장이 적은 사람들이 적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X세대 은퇴준비 대책없네

은퇴연령 시니어층이 노후 자금 부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노동국에 따르면 앞으로 10년동안 전국에서 75세 이상 고령 근로자수가 지금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0년후에 은퇴 연령에 접어들기 시작할 X세대가 은퇴 위기를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시니어층은 노후에 소셜 시큐리티와 펜션 제도, 401K 등에 의존하고 있는데 세가지의 재정적인 요건이 상당히 악화됐다는 게 문제다.

1980년대 중반에만 해도 민간 부문 근로자의 약 절반이 연금 제도에 가입을 했지만, 2022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민간 부문 근로자의 15%만 연금제도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이나 401K가 마련되지 않아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전적으로 노후를 의지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시니어층의 4분의 1이 노후

소득에서 소셜 시큐리티가 차지하는 부분이 90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연령층이 의존하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2035년이 되면 고갈이 되기 때문에, X세대가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기 시작할 무렵에는 수령액이 75퍼센트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소셜 시큐리티 기금 고갈 문제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었지만, 민주당이 소셜 시큐리티 개혁을 둘러싸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밀레니얼과 젠 Z 등 젊은층도 자신들이 은퇴연령에 다다를 무렵에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 때문에 재정여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노후 사회 보장제도에 대해 보다 조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쓰레기 집 당장 청소



한인타운 서쪽 페어팩스 디스트릭트의 한 가정집 마당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이웃들이 시정부에 조치를 촉구하면서, 지난 3일 시정부 관계자들이 출동해 대청소를 벌였다.

집마당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이웃들로부터 일명 “쓰레기 집”으로 불리우는 가정집은 6백 블락 마르텔 애브뉴에 위치해있는데 이 주택의 앞마당과 뒷마당에는 온통 쓰레기와 다른 일회용품으로 채워진 수백개의 비닐봉지로 덮혀 이웃들이 골머리를 앓아왔다.

3일 캐런 배스 엘에이 시장도 현장에 직접 나와, 현장을 감독했는데, 배스 시장은 이 정도의 쓰레기 더미를 방치하는 것은 비극이며, 공중 비상 사태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웃들은 “쓰레기 집”이 앞마당에 산더미처럼 쓰레기를 쌓아두면서, 쓰레기 썩는 냄새와

함께 쥐와 벌레들이 꼬인다며 주민들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시정부에 조치를 촉구한바 있다.

한 이웃은 집주인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마당에 쌓아놓고 방치한 것이 도와달라는 외침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페어팩스 지역을 관할하는 케이트 아로슬라브스키 시의원은 최근 수일새 쓰레기 집 문제를 인지하고 기록을 살핀 결과 지난해말에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 주민들의 컴플레인이 제기된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에도 집 마당에 쓰레기가 쌓여 시정부 위생국 직원들이 출동해 쓰레기를 치운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집주인의 문제는 10년전부터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4월부터 공과금 175달러 절감



캘리포니아 주의 공공요금제인 캡 앤 트레이드 프로그램 덕분에 거주민들은 4월부터부터 공과금 부담이 줄게됐다

기후 크레딧으로 거주민들은 이달부터 평균적으로 개스와 전기 요금에서 평균 146달러의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 요금 리베이트는 최소 32달러에서 최대 175달러로, 천연 가스 요금의 경우 리베이트는 최소 58달러에서 최대 86달러로 예상된다.

공과금에 자동으로 크레딧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기후 크레딧으로 PG앤 E, 서던캘리포니아 에디슨, 샌디에고 가스 앤 일렉트릭, 서던캘리포니아 가스 회사, 베어 밸리, 리버티, 사우스웨스트사 고객들에게 공과금 혜택을 주게 된다.

가주민들은 오는 10월에 전기와 가스 요금에서 2차로 “기후 크레딧”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거주내 가정에서는 이미 2014년부터 제공된 혜택에, 4월과 오는 10월에 이뤄지는 기후 자동 공제혜택까지 합쳐서 평균 971달러의 크레딧을 받게 되며, 주 전역에서 총 140억 달러 이상의 크레딧을 받는 셈이다.

나른한 오후3시, 탱자의 건강차차차프로 진행 열정폭발 중인 라디오서울 한미옥 방송인

AM 1650 라디오서울 방송이 봄이 무르익는 시기 4월을 맞아 방송 개편을 했다. 하루의 중심 시간인 오후 3시, 새 아침을 출발해서 마무리 되어 가는 저녁으로 가는 준비 시간 격인 시간. 나른한 그 시간에 에너지 넘치는 열정 방송인 '탱자의 건강차차차' 진행을 맡은 탱자(?) 한미옥씨를 H특특이 만났다.



■ 나는 누구?

나팔수, 댄서, 믹서, 꿀벌땀벌

■ 하는 일?

라디오 서울 탱자의 차차차 방송과 10회째 미주 국악경연대회와 Korean Festival 어흥축제를 주최하는 미주예술원 다루 국제협력 이사, 댄스 전도사.

■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버님 그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어머님 명언, 없어 못먹쥬!
가훈, 근면하게 예의바르게 화목하게
모토, Amor Fati -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Carpe Diem, It's now or never

Memento Mori, 어느밤 폭풍우에 휘말려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바위섬과 흰 파도라네
말씀, Faith Makes Things Possible

■ 요즘 재미를 느끼는 일은?

작년 8월 방송시작하고 6주된 야옹이 점돌이를 입양했다. 애기우는 재미에 폭 빠져 산다. 점돌이를 향한 마음에 시도 하나 지어볼까?
참 이상하다 그치?
널 안으면 왜 짜리리 목덜미에선 장미꽃 향이?
그래 맞아 내가 미친거여 난 MCN, MCN 미친거지 내가 미친 탱자 MCN, MCN 가즈아~~~!!!
그리고 차차차를 통해 알게되는 한분 한분 소중한 경험들이 재미있습니다.

■ 가장 즐겨 찾는 식당 이름과 메뉴는?

뉴욕 (18년)살 때는 단골식당 몇 개 있었지만 여기 LA(14년째)에서는 워짜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어요.

왜그럴까? 왜그럴까? 그건 아마... 내가... 바보인가봐!

집밥을 좋아하고 그때 그때 재탄생하는 요리를 즐기는거 같다. 워낙 잘 먹지만 왜 난 내가만든게 제일 맛있지? 참 이상하다. 자 백인가봐.

아직은 상싱하게 착한 야채를 접할수 있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 감사해 다양한 제철 야채들을 요리조리 지지고 볶고 무쳐먹는 걸 좋아한다.

계란 두부 좋아하고 내가 담은 김치가 제일 맛있는 마술같은 자백으로 넘치는 식욕의 고삐를 놓치않으려 하지만... 최고의 밥상은 역시 배고플 때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밥상으로 아워오!

■ 제일 좋아하는 음악?

2년전 개에 물려 개고생했을때 고통을 잊게 해준 곡, 비발디의 사계

■ 힘들 때 이겨내는 방법

뭐 방법이 따로 있겠나마는 그냥 잘 버티다 보면 어느덧 잘 이겨냈다고 토닥토닥 쓰담쓰담. 가수 Kylie Minogue가 부른 심장뛰



는 소리 Padam Padam!!! 두근두근 뛰면 된다.

■ 앞으로 계획?

선셋의 마지막 불꽃처럼 황홀하게 잠수하는 타이타닉의 비상을 꿈꾸는 아이처럼 작은 새 피난처 되어주고 싶은 아직은 탱탱한 탱자의 차차차. 여보게 우리 춤추고 노래하

자 바람잡고 판가는 나팔수 댄서. 여기저기 폴폴 날라다니는 꿀벌 그대의 땀벌이고 싶다. 스피노자님형님처럼 사과나무를 심으며 차차차!!!

방송인 한미옥
mhancali@gmail.com



세계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에게 2차 소견을 들어보세요

한국어 상담을 통해 치료법에 대한 확신을 드립니다.

암을 치료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암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자랑하는 USC 노리스 종합 암센터-
다년간 수많은 한인 환자분들께 최첨단 치료법을 제공해 왔습니다.

자신의 암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한
최선의 치료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에게 2차 소견을 들어 보세요.

환자의 특정 암 유형에 맞는 치료 계획을 수립하여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함께하면 한계는 없습니다.



미국내 15대 암 프로그램

한국어로 상담해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LA 한인타운 (213) 344-0264

부에나 파크 (714) 410-0747

KeckMedicine.org/KT



USC Norris
Comprehensive
Cancer Center
Keck Medicine of **USC**

용자 나라

2자가 좋아졌습니다!
(이자)

2 13) 388-5600

US MORTGAGE WORLD INC

Email: ak4989@gmail.com

3700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NMLS#1662096

"한인 브로커 골프 티타임 싹쓸이" 고발 일파만파

댓글 5 2024-03-18 (월) 노세희기자 한국일보 사회면 기사



일부 한인 브로커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LA시 직영 골프장 티타임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17일 LA타임스는 '브로커들이 LA시 골프 코스의 소중한 티타임을 사들인다' 골퍼들은 절망하고 분노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인 브로커들의 티타임 독점사례와 일반 골퍼들의 분노감을 상세히 보도했다.

이 신문은 LA 출신 티칭 프로이자 20만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데이브 핑크(35)가 카카오톡을 이용해 예약 수수료로 최대 40달러를 청구하는 티타임 암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티를 풀어달라(FreetheTee)' 캠페인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핑크는 LA타임스에 "주말에 골프를 치러 가고 싶지만 가장 빠른 티타임이 오후 4시30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이제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신문은 브로커들 중 일부가 LA의 모든 계층을 수용하도록 고안된 코스에서 주로 같은 한인에게 티타임을 판매하는 행위는 인종 및 계급 정치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골퍼들은 이 문제가 그리피스파크와 랜초팍, 한센팍 등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1인당 35달러라는 편의성과 경제성을 제공하는 LA시영 골프장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 시영 골프장의 티타임은 9일 전 오전 6시에 오픈된다. 하지만 매일 아침 그리피스파크 웨스트사이드 등 주요 코스에 대한 예약은 온라인 예약 플랫폼인 골프나우에서 몇 초만에 사라진다. (중략)

브로커인 테드 김씨는 LA타임스와의 짧은 인터뷰에서 "최대 5개의 기기를 사용하며 티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불특정 '친구'에게 의존하지만 예약을 위해 (인터넷 상에서 자동화된 작업을 실행하는) '봇(bot)'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달에 2,000달러 가량의 수익을 올린다는 김씨는 "한인 시니어들이 골프를 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돕고 있는 것 뿐"이라며 "내 도움이 없으면 그들은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중년 남성"을 위한 티타임도 예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각 골퍼들의 이름으로 티타임을 예약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브로커가 티타임을 확보하고 판매하는 방법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많은 골퍼들은 브로커들이 시니어들이 갖고 있는 혜택, 즉 10일 사전 예약 창구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LA시는 10일 사전 예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왓슨 대변인은 "LA시 직원이 티타임 중개에 관여하지 않는다"면서도 "부패 혐의는 모두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핑크는 그의 팔로워들에게 18일 열리는 LA시 골프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것을 촉구하고 상황을 뒤흔들겠다고 약속했다.

User_001 2024-03-18
골프 티타임 장사해서 엘에이에서 지금 관광회사 하는 데도 있지요. 거기는 그래도 좀 reasonable 했었지요. 한썸당 아마도 10불에서 15불 받았었나? 아 한국일보 중앙일보 신문에 티타임 가능한 시간 기사로도 나왔었지요.근데 이 기사에 나오는 인간들은 아주 사람 잡네 잡어..얼마를 받아 ㅈ 먹는 건가? 아주 싸그리 잡아서 죽치사라.미국에서 이런 알팍한 장사는 못하게 해야. 일반인이 정당하게 티타임 잡게 해 달라구.

User_002 2024-03-18
Txx Kxx 이사람이 쥔 유명하죠. 30,40불 웃돈 받고 파는 바퀴 같은 X. 노인네들 소통이 안돼서 도와주었다는 변명이나 하는 중자들...

User_003 2024-03-19
열심히 일해서 돈 벌려 하지 않고 저렇게 잔머리 굴려서 쉽게 돈 벌려하는 작자들이 제일 나쁘다. 조사해서 3년 징역형을 매겨야 한다.

미주 최고의 인터넷 뉴스사이트 korea times.com에 게재된 뉴스 중에 댓글로 본 관심도 높은 뉴스를 선정하여 기사 원문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하고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댓글을 소개하는 지면입니다. 전체 기사를 읽고 싶으시면 korea times.com에서 제목을 검색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인타운 노래방 업주들 공갈 협박 일삼은 한인 유죄평결

댓글 4 2024-03-27 (수) koreatimes.com 메인 기사 라디오 서울 이은 기자



한인타운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공갈 협박을 통해 현금을 갈취하고 폭행과 차량절도 범행까지 저지른 한인 남성이 26일 십여건의 중범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수년에 걸쳐 조대건씨는 한인타운에 위치한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업소를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업주들에게 매달 수백달러에서 천달러 정도의 돈을 요구했고 여성도우미들의 출퇴근 라이드를 제공하는 운전사들에게도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씨는 노래방 업주나 여성도우미들의 운전사들로 하여금 현금 혹은 송금 서비스 앱 벤모를 이용해 돈을 상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조대건씨에게 돈 상납을 거부한 노래방 도우미 운전사는 조대건과 일당들에게 야구 방망이로 폭행을 당했으며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자신의 차량까지 아들에게 빼앗겼습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팔골절 등 심한 부상을 입은 후 노래방 업소를 문닫고 가주를 떠났습니다.

이밖에도 2022년에는 노래방 도우미를 태우고 다니는 운전사를 상대로 폭행을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도우미 한명에게도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조씨는 자신에게 상납금을 내지 않는 남성에게 협박을 가해 천 달러를 갈취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펜더믹이 터진 후에는 송금 서비스 앱 벤모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했습니다.

검찰은 용의자가 한인타운내 이민자 커뮤니티를 상대로 이같은 비열한 범죄행각을 수년동안 저질러오면서 이민자 커뮤니티를 멍들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6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공갈협박 죄목에 대해서는 최대 20년의 실형, 카재킹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 25년의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User_001 2024-03-27
노래방이나 룬싸롱 술집이 건전한 비즈니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먹고 살려고 자식들 키우려고 사업이랍시고 하는 걸 텐데..그 와중에 또 그걸 뺏겨 먹고 그것도 모자라 폭행까지 하고 사는 인간이 있다는게 믿어지지 않는다. 여기 미국에 와서 말이다. 어라이 개만도 못한 인간 같으니..

User_002 2024-03-27
야나 참 미국 와서 살다 살다 별 꼴을 다 보네요. 하튼 나쁜 건 한국에서 배워서 이곳 미국에서 까지 같은 한국 사람끼리 등골 빼먹고 사는군요.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추방 시켜서 한국 가서 진짜 쓴맛을 보게 해줘야 하는 건데... 씹쓸하구만요.

User_003 2024-03-28
현직 시의원과 전직 시의원 웨순과 한인 화장 꺼버기 안과 견찰 등등 다 엮여 있는데.. 무슨 엉뚱한... 이 사람이 잡혀간다면 엘에이, 시의원 전치다. 잡혀 가야 한다.

User_004 2024-03-29
도우미 장사도 불법 아닌가??

1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올해 0.6명대 합계출산율 불보듯



2월 2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산후조리원 산생아실에서 한 간호사가 산생아를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1월 태어난 아기 수가 2만 1000명대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웃도는 인구 '데드크로스'는 51개월 연속 이어졌다. 올해 첫 달부터 출생아 수 감소세가 두드러져 연간 합계출산율이 0.6명대에 그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가시화하고 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1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788명(7.7%) 감소한 2만 1442명으로 집계됐다. 1월을 기준으로 보면 통계 작성(1981년) 이후 43년 만에 역대 최저치다. 월간 출생아 수는 2022년 9월 0.1% 증가한 것을 빼면 2015년 12월부터 계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1월 출생아 수의 추락이 올해 합계출산율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일반적으로 1월은 출생아가 가장 많은 달이기 때문

이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자녀가 또래보다 발육이 덜한 것을 원하지 않아 부모들이 1월에 출산 계획을 잡는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더구나 2009년 '빠른 년생'의 조기 입학이 폐지되면서 연초에 출생이 물리는 경향은 더 뚜렷해졌다. 실제 지난해에도 1~3월을 뺀 모든 달에서 월간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밑돌았다. 1월 출생아 수를 연간 인구 추이를 가늠할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는 배경이다.

올해 1월 출생아 수 감소 폭이 유독 가팔랐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1월 출생아 수 감소율은 2021년 6.6%에서 2022년 1%로 줄어든 뒤 2023년에 5.7%로 다시 확대됐다. 올해는 이보다 2%포인트 늘어난 7.7%를 나타냈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추세를 봤을 때 올 1월 출생아 수 감소 폭이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출생아 수가 이례적으로 급감하면서 인구 자연 감소(사망자 수에서 출생아 수를 뺀 값)도 월간 기준 최대치를 경신했다. 사망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0.5% 줄어든 3만 2490명이었지만 자연 감소 폭은 1만 1047명으로 집계돼 역대 1월 중 가장 많았다.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51개월 연속 자연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1월 인구동향이 반전을 가져오지 못하면서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계청은 앞서 지난해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명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합계출산율이 올해 0.6명대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며 "합계출산율 하락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혼인 건수는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혼인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 늘어난 2만 8천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기저 효과'가 나타난 결과라는 해석이다. 지난해 1월에는 설 연휴가 포함돼 혼인신고 일수가 이를 적었기 때문이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1967건(1%) 늘었는데 외국인과의 혼인이 증가한 영향 덕분이다. 내국인 간 혼인은 1000건 줄었지만 내·외국인 간 혼인은 전년보다 3000건 증가한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내·외국인 간 혼인의 증가가 전체 혼인 건수 증가를 견인했다"며 "지난해 하반기 월별 혼인 건수는 10월(1.0% 증가)을 빼면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세종=심우일 기자〉



"가장 실망스러운 걸작은 모나리자... 인파 때문에 제대로 감상 못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 작품 '모나리자'가 세계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걸작으로 꼽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온라인 쿠폰 사이트 쿠폰버즈는 세계 100대 예술작품과 각 작품을 소장한 박물관에 대한 1만 8176건의 리뷰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쿠폰버즈는 리뷰에 사용된 표현 중 '실망하다', '과대 평가와 같은 부정적 키워드와 '과소평가, 놓칠 수 없는' 등의 긍정적 키워드를 기준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방문객 리뷰에서 부정적 언급이 37.1%에 달해 가장 실망스러운 걸작으로 선정됐다. 100대 작품 전체 평균 부정적 언급 비율이 19.2%인 것과 비교하면 약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쿠폰버즈의 분석에 따르면 모나리자에 대한 리뷰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인파'와 '실망'이다.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 작품 앞에는 늘 관람객들이 밀집해 있고 작품과 통제선 사이의 간격 때문에 모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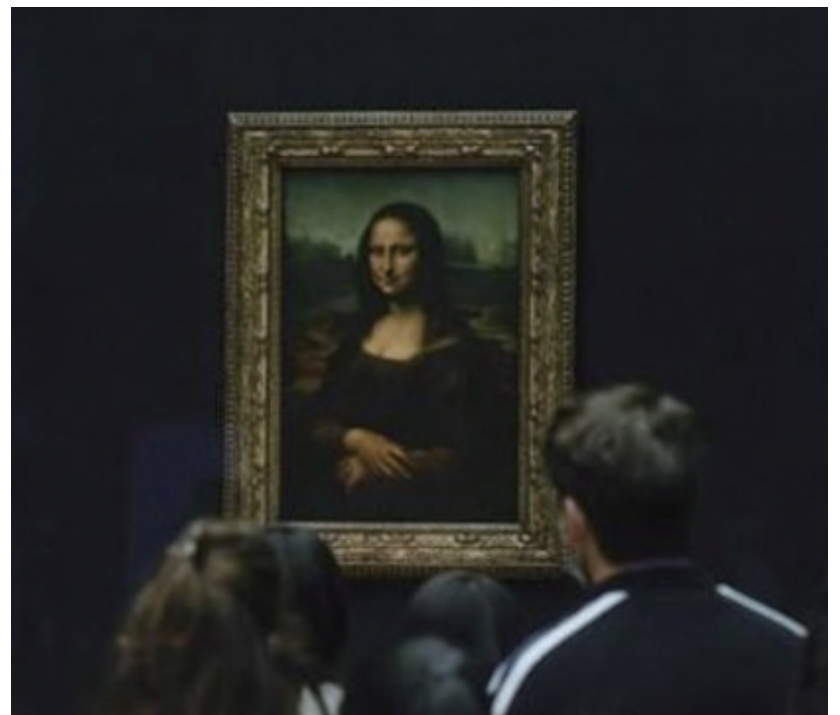
자를 제대로 감상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두 번째로 실망스러운 작품으로는 역시 루브르 박물관이 소장한 외젠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다. 리뷰의 34.5%가 부정적 평가로 나타났다. 이 작품도 감상하기에 너무 혼잡한 환경이 부정 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쿠폰버즈는 "부정 평가의 대부분은 작품 자체가 아니라 감상하는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위대한 예술 작품의 상당수는 무질서한 군중을 끌어들이면서 동시에 부정 평가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해설했다.

3위는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에 소장된 살바도르 달리의 '기억의 지속'이었다. 리뷰의 31.2%가 부정 평가였다. 작품을 볼 수 없어 실망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28달러(성인 기준 약 3만7000원)의 입장료를 내고 미술관에 들어갔으나 이 작품이 다른 미술관에 대여되는 바람에 관람객이 실망하는 경우가 있다고 쿠폰버즈는 설명했다.

〈박경훈 기자〉



S&P글로벌, 美 지역은행 5곳 전망 '부정적' 하향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신문 인터넷 사이트 sedaily.com 에 실린 핫한 기사 중 미주 한인들이 공감하며 읽을 뉴스를 H매거진에 게재합니다. 더 많은 기사는 경제전문지에서 종합 일간지로 독자들에게 호평 받는 서울경제 sedaily.com을 보십시오.



신용등급 전망이 강등된 미국 지역은행들의 공통점은 전체 대출에서 상업용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5~55%에 이른다는 것이다. S&P글로벌은 이번 조치에 대해 "상업용부동산 시장의 스트레스에 가장 많이 노출된 은행 5곳의 자산 품질과 성과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P글로벌은 "현재까지 이들 은행의 상업용부동산 대출에서 연체 등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 않은 점은 긍정적"이라며 "대부분의 대출을 취급할 당시 보수적으로 담보 가치를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달 뉴욕커뮤니티뱅크의 신용 위기가 터진 후 미국 지역은행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불안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상업용부동산 대출 부실로 큰 손실을 떠안은 뉴욕커뮤니티뱅크는 스티브 므누친 전 미국 재무장관을 비롯한 복수의 기관투자자로부터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유치하면서 급한 불을 꺾지만 부채 위기가 유사한 대출 구조를 가진 다른 지역은행들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S&P글로벌의 신용등급 강등이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시그니처은행 등의 연쇄 파산 사태 이후 1년 만에 이뤄졌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로이터는 "전문가들은 코로나 19 팬데믹 여파로 차입 비용이 높아지고 사무실 공실율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대출 기관이 손실을 떠안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미국 상업용부동산(CRE) 대출 부실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신용평가사 S&P글로벌이 미국 지역은행들의 신용등급을 또다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초 실리콘밸리은행 등의 '도미노 파산'으로 불거진 미국 지역은행 건전성 우려가 올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은 26일(현지 시간) S&P글로벌이 △퍼스트커먼웰스파이낸셜 △M&T은행 △시노버스파이낸셜 △트러스트마크 △밸리내셔널뱅크 등 미국 지역은행 5곳의 신용등급 전

망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S&P글로벌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미국 은행은 총 9곳으로 늘어났다. 이는 S&P글로벌의 평가 대상이 되는 전체 미국 은행의 18%에 이른다.

<정혜진 기자>

바다 빠진 구호품 건지려다 12명 익사... 굶주린 가자의 '비극'

반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아사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바다로 낙하하는 구호 물품을 받으려던 주민들이 익사하는 안타까운 사고마저 잇따르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팔레스타인 보건 당국은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 라히아 인근 해안에서 주민 12명이 바다 위에 떨어진 구호품을 받으려다 익사했다고 밝혔다.

로이터가 보도한 영상에는 바다로 떨어진 구호품을 건지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겼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바다에서 구호품을 건지려는 이들이 거센 파도 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이 공개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 과정에서 한 젊은 남성은 몸이 축 늘어진 채 해변으로 끌려 나왔고, 주변에 있던 이들이 흉부 압박을 시도했지만 결국 포

기하는 장면도 담겼다.

구호품을 받으려던 주민들이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달 초 가자지구 서부 알사티 난민캠프에 공중투하 구호품이 떨어지면서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낙하산이 오작동해 구호품이 로켓처럼 민가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이에 가자지구 당국은 서방국들에게 공중을 통한 구호품 투하를 중단해 달라고 호소하는 성명을 내고 "이 방식은 불쾌하고 잘못됐으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무용지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육로 수송로를 늘릴 것을 촉구하며 "인도적 구호품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닿을 수 있게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사망자가 발생한 구호품 투하는 어느 국가가 실시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문예빈 인턴 기자>



"30년만에 이런 물가는 처음" 가락시장 상인의 한탄



27일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내 과일 소매업체가 사과를 판매하고 있다. 김남명 기자

"대형마트 사과 값은 떨어졌지만 여기는 아닙니다. 정부에서 대형마트 위주로만 할인 혜택을 주니까요."

"30년을 과일 중도매상으로 일했는데 이런 물가는 처음입니다. 과일 소매점부터 장사가 잘 돼야 하는데 유통이 안되다 보니 (중도매 업체도) 꼭 막혔죠.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의미 아닐까요?"

27일 오전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내 과일시장은 한산한 모습이었다. 중도매 상인들이 분주하게 장사를 준비하는 것과 달리 손님 발길은 드물었다. 과일을 구입하려 온 일반 소비자들은 "비싸다"며 발길을 돌리거나 소량만

구입했고, 소매상들은 단돈 1000원이라도 더 싸게 구입하기 위해 흥정에 여념이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 거래량도 급감했다. 중도매 상인들은 "예전에는 100박스씩 팔리던 과일이 지금은 20~30박스밖에 안 나간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납품 단가 지원, 농수산물할인(농할) 등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데다 마트 자체 할인까지 더해져 과일 소매가격이 10% 가량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중도매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후지 사과 상품 10kg 상자 중도매 평균가는 9만 1860원으로

1년 전(4만 1730원)보다 약 120% 올랐고, 한 달 전(8만 9492원)보다도 3%가량 높아졌다.

같은 날, 신고 배 상품 15kg 상자 중도매 평균가는 11만 2400원으로 1년 전(4만 3300원)보다 약 160% 올랐다. 한 달 전(9만 728원)과 비교해도 24%가량 뛰며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사과와 배 재배면적 감소에 병해·병해충 피해가 겹치면서 생산량이 급감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탓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사과 저장량은 약 20만 3000톤으로 전년(29만

2000톤) 대비 31%가량 줄었다. 같은 기간 배 저장량 역시 지난 2022년 12만 8000톤에서 지난해 8만 8100톤으로 줄면서 약 31% 감소했다.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수요를 쫓아가지 못해 사과와 배 도매가격이 모두 높아진 셈이다.

중도매상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39년째 가락시장에서 과일을 판매 중이라는 정 모(70) 씨는 "조금 하자 있는 사과 특상품도 10kg 한 상자에 7만~8만원이 넘고, 배는 한 상자에 8만 5000원쯤 한다"면서 "롯데마트·하나로마트 같은 대형마트에나 정부가 혜택을 주고 있지, 우리한테는 아무런 지원도 없어 과일 값이 계속 비싸다"고 한탄했다.

30년 가량 과일 중도매상으로 일했다는 정 모(61) 씨는 "그동안 가격이 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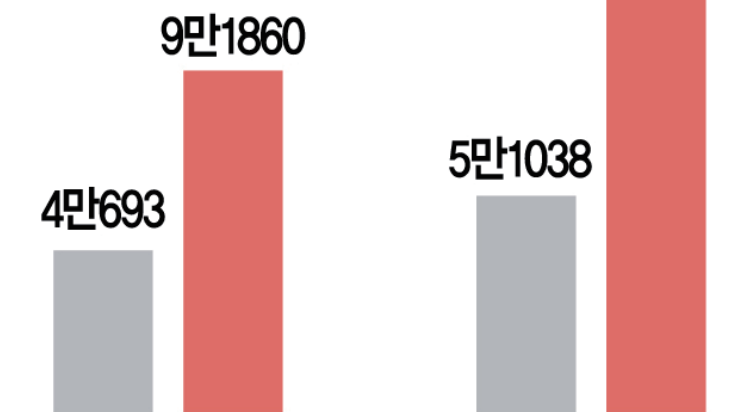
랐다 해도 잠깐 뛰었다가 내려갔는데, 지금은 과일량이 적어진다. 과일 가꾸는 인부들도 적어지고, 인건비도 뛰는 등 여러 문제가 동반되면서 물가가 안잡히고 있다"고 혀를 내둘렀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산지 물량 부족 이외에 사재기, 부정 유통 행위 등의 요소가 중도매인 가격을 끌어올린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수급 차원의 대책으로는 소매가격 인하와 대체 과일 수입 물량 증가, 가공용으로만 사용하던 못난이 과일 공급 등을 시행 중이며, 이외 대책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남명 기자〉

과일 중도매 평균 판매가격

(단위: 원) ■ 평년 ■ 2024년 3월 26일



사과(부사) 10kg 상품 배(신고) 15kg 상품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

자료: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

조국, 서울대 퇴직금 다 받는다... '파면→해임'으로 징계수위 낮아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정하고 이튿날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이를 통보했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중징계에 속하지만, 해임될 경우 퇴직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서울대는 지난해 6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이었던 조 대표의 파면을 의결했다.

조 대표는 자신의 딸 조민씨와 관련한 입시 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2년 유죄판결을 받았다.

〈남윤정 기자〉

사망자까지 나온 日 건강보조식품, 판매금지될듯



일본의 한 대형 제약 회사에서 만든 건강식품을 먹고 신장병이 발병한 사례가 속출한 가운데, 문제의 제품 3개가 판매 금지될 전망이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전날 제품을 만든 고바야시 제약 본사가 있는 오사카시에 문제의 식품

이 판매 금지를 정하는 '식품위생법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판매 금지 판단 권한은 지자체에 있지만, 오사카시가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한 후생노동성의 통지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넷케이의 설명이다. 해당 제품은 '홍국(붉은 누룩)을 원료로 쓴 '홍국 콜레스테롤 헬프'

등 3종이다. 문제가 확산하면서 정부도 이날 관계부처 연락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고바야시 제약의 건강보조식품 중 '홍국(붉은 누룩)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섭취한 106명이 신장 질환 등의 건강 피해를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후생노동성은 소비자청과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입원 외에도 두 명의 사망 사례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회사측이 마련한 상담 청구엔 3000건의 상의 문의가 빚발쳤다.

고바야시 제약은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건강식품이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고 이 성분을 사용한 자사 건강식품을 자진 회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출시 예정을 포함한 8개 상품의 기능성 표시 식품 신고를 철회했다.

홍국에는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어 이를 이용한 건강식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홍국균에는 곰팡이 독을 만드는 시트리닌이라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신장 질환을 일으킬 우려도 있다. 고바야시 제약은 성분 분석 결과 시트리닌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혀 이와는 다른 '의도하지 않은 성분'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재 고바야시 제약이 만든 홍국은 건강식품의 다른 음식·음료 회사에도 공급돼 사용되고 있다. 고바야시 제약이 만드는 홍국 원료의 사용 비율은 고바야시 제약과 타사가 각각 20%, 80%로 타사 비중이 훨씬 크다. 주류와 과자, 젓갈류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공급처 중에는 대만 기업도 포함돼 있다. 고바야시 제약은 홍국 거래처가 52개사라고 밝혔지만, 여러 도매상을 통해 또 다른 기업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실제 원료 사용 규모는 더 광범위한 것으로 보인다. NHK는 전했다.

고바야시 제약은 "공급처 기업에서도 제품의 회수가 이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문제의 홍국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즉시 사용을 중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처음 증상 호소 연락이 온 것이 올 1월 초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상황 파악 후 2개월이 지난 3월이 되어야야 같은 사실을 공표한 것을 두고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혜진 기자〉

검찰총장, 검수완박에... "범죄자 오고싶은 나라로 전락"



이원석 검찰총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개최된 3월 월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검찰청

이원석 검찰총장은 "우리나라가 범죄자가 오고 싶어하는 나라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2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 회의

에서 '테라·루나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최근 서울 남부지검 수사팀으로부터 몬테네그로와 천문학적 가상자산 범죄자의 국내 송환 사법공조에

관해 보고받고 철저한 수사 준비와 엄정한 처벌, 범죄수익 박탈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몬테네그로에서 수감됐던 권씨의 신병을 넘겨받기 위해 최근 한국, 미국 당국이 경합하는

가운데 권씨 측에서는 미국보다 형량이 가벼운 한국으로 송환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권씨의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 원인으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꼽았다.

그는 "모험적 사법 시스템 도입 후 2년이 지난 현재 수사기관의 역량을 쏟아부어도 범죄에 제때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우리 사법 시스템이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범죄자에게 유리하도록 잘못 설계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쉽게 고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고치면 된다는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그 누구도 국민의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았고 망가진 제도를 다시 복구하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 총장은 물가안정을 위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도 지시했다. 그는 "입찰 업체를 사전에 조정하여 제한하거나 공급가격과 가격인상을 담합하는 시장 불공정행위도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물가안정을 통해 민생에 도움이 되도록 불공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박호현 기자〉

옛날짜장의 구수한 맛~



‘복해루’



주문 즉시 춘장을 15분 이상 오래 기름에 볶아야
담백하고 짜지 않아서 조미료가 적게 가미되어,
옛날 맛이 그대로 전해지는 옛날 짜장 구수한 맛의 진수~



황제짬뽕
\$18.99



칸풍새우
\$19.95



양장피
\$29.95



팔보채
\$34.95



청파소고기
\$26.95



유산슬
\$34.95

45년 경력
중화요리 최강달인 KEN LIU

복해루LA

Tel. (323)730-1890
3636 W Olympic Bl.
(올림픽+4th Ave. 한미은행 건너편)



고평석 엑셈 대표

인간의 빈틈을 메워주는 AI

▶ 오픈AI 붐 공습에 작가·배우 반발 속 AI가 세트장 건설 착오 줄여주기도 전산 시스템 관리에도 AI 도움 필수 일자리 위협 아닌 약점 보완에 초점을

몇 년 전 '토이 스토리'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제작사 픽사스튜디오를 방문한 적이 있다. 본관 입구에 놓여 있는 아카데미 트로피들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본관의 구조였다. 애플에서 쫓겨난 후 픽사를 인수한 스티브 잡스는 건물 왼쪽에는 좌뇌에 해당하는 프로그래머, 오른쪽에는 우뇌에 해당하는 작가와 애니메이터 등이 근무하게 했다. 서로 업무 스타일이 다른 직군끼리 떨어뜨려 놓으면서도 식당과 화장실을 가운데 배치해 수시로 무조건 만나게 했다. 픽사스튜디오는 수학과 창의, 과학기술과 스토리가 공존하는 곳이었다. 실리콘밸리와 할리우드를 한꺼번에 본 느낌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실리콘밸리와 할리우드가 처음으로 크게 충돌했다. 오픈AI가 가져온 생성형 인공지능(AI) 돌풍 때문이다. AI가 바둑만 잘 두는 줄 알았는데 창작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작가나 배우들은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느꼈다. 먼저 미국작가조합이 들고일어났다. AI가 자신들이 피땀 흘려 써내려 간 글을 학습해 자신의 것인 양 글쓰기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할리우드 스튜디오는 대본 작성에

AI 사용을 제한하기로 작가조합과 합의했다. 그 다음으로 배우들이 들고일어났다. AI를 사용한 배우 연기 대체를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할리우드도 오픈AI의 챗GPT에 맞서 가장 먼저 들고일어난 셈이다.

할리우드 작가나 배우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AI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다 없앨까. 꼭 그렇게 보기만은 어렵다. 로알드 달의 소설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이전 이야기 격인 영화 '윙카'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작품이다. 스토리와 연기·음악도 탄탄하지만 특히 환상적인 세트장이 대단했다. 세트 디자인을 총괄한 네이선 크롤리는 유럽 여러 나라들을 돌아본 후 각국의 장점들을 혼합해 10m 높이의 세트장을 만들었다. 흥미로운 것은 세트장을 만들 때 스케치 후 AI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며 시행착오를 줄였다는 점이다. 인간의 빈틈을 AI가 메워주는

협업 관계가 가능함을 보여준 예다.

필자의 회사도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AI 소프트웨어를 공급한다. 대규모 정보기술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금융권과 공공기관은 365일 중단 없는 서비스가 최고의 목표다. 그런데 워낙 시스템이 방대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면 수많은 운영 인력들이 원인 탐지와 분석을 하느라 꽤 많은 시간을 쓴다. 정부와 공공기관·기업들이 전산 시스템 먹통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람의 힘만으로 문제 원인을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서비스 이용을 못 하는 사이 신뢰는 추락하니 AI 솔루션 도입을 통한 이상 예측이나 문제 원인 탐지·분석은 필수적이다. 이때 AI는 시스템 운영 인력을 대체하지 않는다. 그들이 힘겨워하는 부분을 도와준다.

이처럼 결국 AI도 인간과 함께 발전해나갈 수

밖에 없다. 처음부터 인간의 직업을 없애기 위해 만든 AI 제품은 상당한 저항에 부딪히겠지만 인간의 빈틈을 채워주는 AI는 크게 환영받을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대화형 인공지능 이름이 '코파일럿(Copilot·부기장)'인 것도 조종은 인간이 하고 AI는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나 우리가 직접 해야 할 일과 AI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AI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우리 일의 중심을 잡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된다. AI가 인간의 빈틈을 메워준다면 인간은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다. AI는 우리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파트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AI를 미워하지 않을 용기다.



외워두면 좋은 오늘의 영어 단어

attentiveness

[əténtivnis]

1.친절함 2.배려심 3.세심함 4.주의력

attentive (형) 1.주의 깊은 2.세심한 3.친절한

And to her, that spoke of a kind of **attentiveness** that she needed.

그리고 그녀에게 그런 종류의 진료는 그녀가 필요로 했던 **세심함**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내몸에 좋은 H 꿀팁

퀴노아

칼로리가 낮으면서 비타민, 단백질, 섬유소 등은 다른 곡물의 2배 이상으로 많은 퀴노아, 콜레스테롤을 낮춰 동맥경화 같은 만성 질환 발병을 낮춰 주고 체중감량에 도움이 된다.

남미에서 수천 년간 재배되고 있는 곡물로 페루어로 '곡물의 어머니'라는 뜻이다. 퀴노아의 단백질 함유량은 현미의 2배다. 식이섬유, 인, 마그네슘, 철분, 아연, 칼슘, 칼륨, 각종 비타민도 풍부하게 함유돼있다. 퀴노아는 탄수화물 함량이 적고 칼로리가 낮다.

원활한 혈액 순환과 노화방지에 도움을 주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능이 있다. 퀴노아는 혈압을 적절히 유지해주고 골다공증을 예방해주는 효능도 있다.

퀴노아는 쌀과 1대 1 비율 또는 2:1로 섞어 퀴노아밥을 해 먹는 방법이 제일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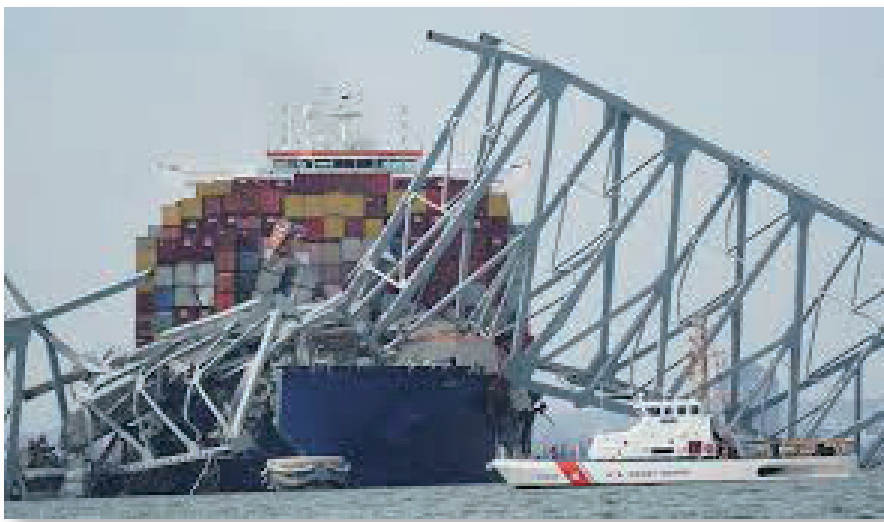
통레몬 그대로

상큼한 레몬과
짜릿한 탄산의 만남



찐레몬의 맛 - 순하리 레몬진

01 " 볼티모어 교량붕괴, 미국 자존심 붕괴 "



대형화물선 충돌로 볼티모어 항만 옆 교량 붕괴

(사진 - 무너진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릿지)

- 당시 화물선 선원 : 메이데이~메이데이!!! 배가 조종이 안된다
- 현대중공업 : 어? 저 배는 우리가 만든건데? 선박자체의 문제는 아니겠지.
- 사고후 정부발표 : 오염된 연료로인해 선박의 엔진 꺼지고 동력상실
- 미국인들 : 세계 최강 미국의 체면이 말아다니네.. 자존심이 무너졌다!

02 " 오타니 선수의 대형 벽화가 다운타운에 ... "



7억달러의 사나이 쇼헤이 오타니 선수의 벽화 완성

(사진 - LA다운타운 오타니 벽화)

- LA다저스 : 슈퍼스타 오타니의 벽화가 미야코호텔에 그려졌습니다
- 한인 1 : 재팬타운에 있는 미야코호텔? 어? 나도 가본적 있는데?
- 한인 2 : 그런데 이번 벽화는 단순한 벽화가 아니라며?
- LA다저스 : 네, 스마트폰 카메라로 벽화를 담으면 오타니의 투구 영상이 보입니다

03 " 조국은 유행어 제조기인가? "



조국 대표, 선거운동하며 연일 유행어 화제

(사진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조국 대표 유행어 1 : 고마 치아라 (그만해라)
- 조국 대표 유행어 2 : 윤대통령은 좌파,우파 때문아니고 대파때문에 망한다
- 조국 대표 유행어 3 : 부산에서 돌풍 일으켜 동남풍이 되어 올라가자!
- 정치관심없는 1 : 돌풍이될지 첫잔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궁금은 하네..

04 " 헐리웃 스타 탐 크루즈, 전직 러시아 모델에 청혼했다가 망신 "



탐 크루즈, 25세연하 재벌 모델여성에게 청혼했으나 거절당해

(사진 - 탐 크루즈와 엘시나 카이로바)

- 호기심 많은 시민 : 탐 크루즈는 61살인데 상대여성은 36살이네?
- 궁금증 많은 시민 : 러시아여성은 재벌급에 전직 모델. 탐 크루즈가 급했나? ㅎㅎ
- 말많은 시민 : 교제한지 3달만에 탐 크루즈가 청혼했는데 그 직후 여성이 결별통보했데 ㅎㅎ
- 뒷담화 전문인 : 싯불도 단김에 빠라. 라는 말은 이럴때 쓰는 말은 아닌듯..



송봉후 앵커
YouTube "송앵커의 스토리 뉴스"
라디오서울 AM1650 저녁 7시 "THE 늦은 뉴스" 방송
아침 6시 "스토리뉴스" 방송

교통사고 및 개인 상해

총 20억 달러 승소

개인상해 교통사고 전문 로펌 CZ Law.



교통사고

- 차, 트럭
- 버스 사고
- 오토바이 사고
- 자전거 사고
- 보행자 사고
- 횡단보도 사고
- Amazon, FedEx 와 Flex 운전자 사고
- Doordash & Grubhub 사고
- Uber, Lyft 사고



심각부상

- 뇌 손상
- 척추 부상
- 부당한 사망



낙상사고

-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
- 가게 사고
- 아파트 사고
- 보행길 사고
- 헬스장 사고
- 뒷마당 사고
- 익사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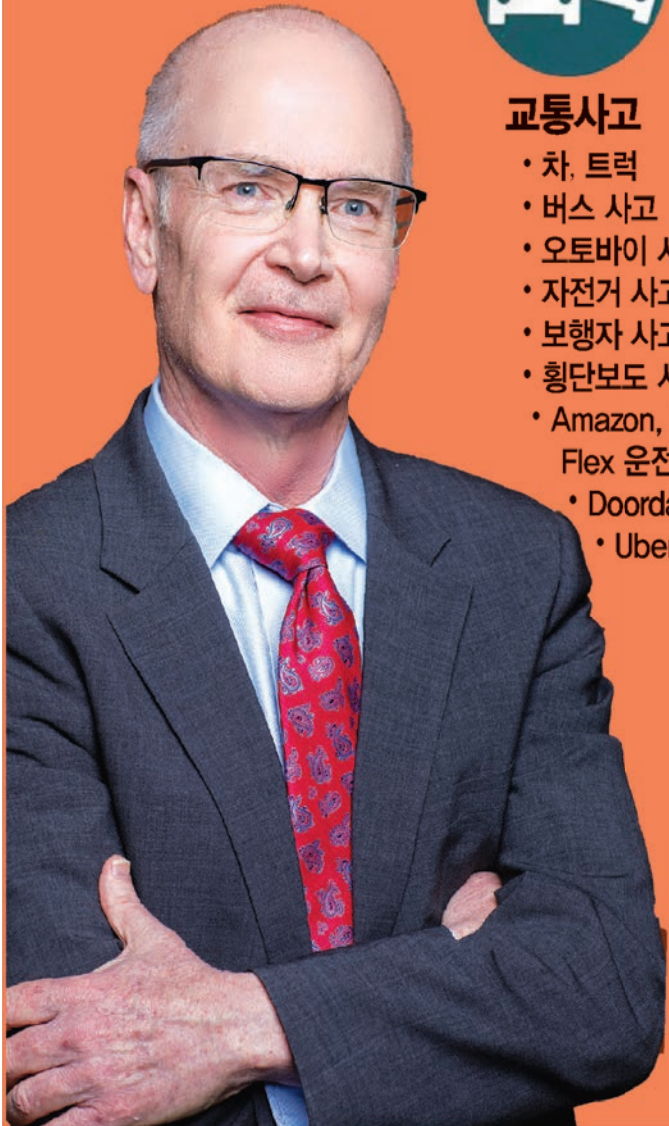
폭행

- 경찰에 의한 폭행
- 유명인물에 의한 폭행
- 경비에 의한 폭행
- 파티에서 일어난 폭행
- 개에 물린 사고



기타개인상해사건

- 소유부지법적책임
- 생산물 책임
- 의료사고
- 분만/출산 손상
- 뇌성마비
- 수술오류
- 투약과오



200여명의 직원과
한국인 부인, 한국인직원들이
작은사고부터 대형사고까지
친절히 상담해 드리며
현재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중인 케이스도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브라이언 타필라

상담 문의 213-468-1000

브라이언 타필라 & CZ Law 그룹

폴 주커맨



SCAN ME

www.cz.law 3600 Wilshire Blvd., Suite 1108, L.A., CA 90010



김준철

- 월간 문화예술전문지 『쿨투라』 미주지사장,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장 역임
- 『시대문학』 시부문 신인상, 『쿨투라』 미술평론 신인상 수상, 쿨투라 해외문화상 수상, 비영리문화예술재단 『나무달』 대표
- 시집 『꽃의 깃털은 눈이부시다』 『바람은 새의 기억을 읽는다』 『슬픔의 모서리는 뭉뚱하다』
- 전자시집 『달고 쓰고 맵고 짭』

‘알겠지만 나는 꿈이 아주 작아. 그래서 다 이루었지’

지난 3월 15일 공개된 '닭강정'에 나오는 대사 중 하나이다. 넷플릭스를 통해 10부작으로 공개된 '닭강정'은 영화 '극한직업'의 이병헌 감독이 연출했다.

어느 날 회사로 배송된 기계에 들어간 딸 민아가 닭강정으로 변하자 그녀를 구하기 위해 아빠 선만과 그녀를 짝사랑한 백중이 고군분투하는 코미디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류승룡, 안재홍, 김유정 등 연기력 만렙의 배우들이 만들어낸 작품으로 박지독 작가의 웹툰을 원작을 하고 있다.

말 그대로 병맛 좌충우돌 스릴러 SF 코미디물이었다. 시작부터 끝까지 도대체 이게 뭐야? 라는 의문을 가지고 보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끝까지 계속 이어서 보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웹툰 속, 말도 안 되는 설정을 고스란히 싱크로율 100%의 느낌으로 표현해내는 배우들의 집중력이 놀라울 뿐이었다. 아울러 지금 우리의 삶 역시 이와같이 혹은 이보다 더 말이 안 되기에 이러한 스토리의 웹툰과 또 드라마들이 큰 반감 없이 인기를 얻으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최근 만들어진 여러 영화나 드라마 중에 단연 최고의 병맛이 바로 '닭강정' 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전작 '마스크걸' 로 은퇴작 아니냐



는 말이 나올 정도였던 안재홍, '극한직업'과 '무빙'으로 이어지는 액션 코믹의 진한 연기를 구축하고 있는 류승룡, 닭강정으로 나오는 바람에 생각보다 분량이 적어 아쉬웠던 김유정 이외에도 정호연, 문상훈, 조현재, 고창석 등등 많은 이들의 연기력이 황당한 스토리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빠져들어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거기에 차마 웃기지 않은 많은 코믹 대사와 연기는 어쩐지 우리의 비정상적인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가끔씩 얼굴이 붉어지며 쓴웃음을 짓게도 했다.

그 대사 중 비교적 초반에 최선만(류승룡)이 고백중(안재홍)에게 하는 대사.

'알겠지만 난 꿈이 아주 작아. 그래서 다 이루었지'

이 대사는 어쩌면 그 작은 꿈조차 이루기 어려운 세상을, 혹은 그렇게 작은 꿈을 꾸어야 하는 세상을 풍자하는 것일지 모른다.

이 극은 최근 MZ들에게 유행한다는 '만약에 내가 갑자기 바퀴벌레가 된다면~' 이라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질문에서 착안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밑도 끝도 없는 질문에 바로 집중해서 답을 찾고 또 진심으로 답을 던지거나 때로는 '그게 뭐 소리야?!' 하고 이해를 못 하는 반응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 드라마를 보며 끈대로서 근래 젊은이들의 상상이나 생각

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그 방법을 알게 된 것 같다.

그것은 다름 아닌 조건 없는 받아들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즉각적 반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닭강정으로 변한 딸이라는 전제. 이걸 이해하려고 애쓰거나 거기에 의문을 만든다면 이 드라마는 세상 재미없는 그리고 이해 안 되는 작품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첫 시작인 닭강정이 된 딸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순간, 그 안에서 편하게 웃으며 즐기며 감동까지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한다.

treeandmoon2022@gmail.com

김준철의 한 문장의 생각 코너 소개

영화, 시, 소설, 드라마, 신문, 잡지 등등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문장들 속에서 한 문장을 꺼내서 조금 더 생각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서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MBTI 코너

mbti별 소비습관 ④

마이어스와브릭스가 개발한 성격유형검사로 혈액형 보다 훨씬 다양하고 자세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검사방법 - www.16personalities.com (한국어 선택, 12분 정도 소요)



카메라를 대보세요 ↑

- 1. ISFJ**
만물상인 택배차
- 2. ISFP**
마이웨이 확성기
- 3. ISTJ**
따끈한 메인보드
- 4. ISTP**
확고한 헤드셋

- | | |
|--------------|--------------|
| 외향형 E | 내향형 I |
| 감각형 S | 직관형 N |
| 사고형 T | 감정형 F |
| 판단형 J | 인식형 P |





켄PD
YouTube 채널
켄PD의 우연한 행복

애니깽 할머니의 자장가

필자가 휴대전화기 가게를 하던 20여 년 전 당시의 일화이다. 당시 휴대폰은 고가이기도 하고 계약도 필요해서 신용 조사는 물론이고 18세 이상만 계약이 가능하던 때였다.

하루는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멕시코 소녀가 가게에 와서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휴대폰을 구경하고 있었다. 무척이나 가지고 싶어 하던 눈빛이었는데 이것저것 가격을 물어보기 시작했다. 너무 어려 보였기에 나이를 물었고 아직 18세가 안 됐기 때문에 어른을 모시고 와야지 계약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해주었다. 설명을 들은 그 소녀는 할머니를 모시고 와도 되냐고 물었고 나는 할머니의 신용 점수만 좋다면 할머니 허락하에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다음날 그 멕시코 소녀는 할머니를 모시고 다시 가게로 방문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멕시코 소녀뒤에는 할머니가 따라 들어오고 계셨다. 그런데 할머니의 모습은 멕시코가 아니라 우리가 한국에서 흔히보던 주름이 가득한 꼬부랑 한국 할머니의 모습이였다.

너무나 이질적인 느낌에 소녀와 할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하지만 소녀는 이내 할머니와 스페인어로 이야기했고 할머니 역시 능숙한 스페인어로 대화를 했다. 소녀는 할머니를 모시고 왔으니까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했다.

이해가 힘든 상황이라 저분은 누구시냐고 물

었고 소녀는 본인의 친할머니라고 이야기했다. 누가 봐도 한국 할머니처럼 생겨서 의아해하고 있는 나에게 소녀는 할머니는 꼬레아노(한국인) 이라고 설명을 해줬다.

아, 그럼, 이 소녀가 한국인 핏줄이 있는 소녀인가? 할머니가 한국분이라고 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드리는데 한국어를 모르시는 눈치이다. 영어로 여쭙었지만, 영어도 못 하신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운 스페인어로 더듬 더듬 할머니께 여쭙았다.

"¿Eres coreano?(한국분이세요?)"

"Si(예 맞아요)"

"¿Puedes hablar coreano?(한국어 가능하세요?)"

"Un poco(조금이요)"

영어도 한국어도 거의 모르시는 이 한국 할머니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때 할머니가 더듬 더듬 알고 계신 몇 마디 한국어를 하신다.

"이쁘다...", "우리 아가..." 그러더니 자장가를 부르신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아, 이 할머니는 멕시코에서 태어나셨구나. 옆에서 손녀가 설명을 해준다. 할머니의 아با 엄마는 먼 옛날 멕시코 노동자로 와서 할머니는 멕시코에서 태어나고 멕시코 할아버지와 결혼하고 아با를 낳고 본인이 태어났다고. 하와이 이민이 있던 시절 또 한 무리는 옥토와 신천지를 찾아 멕시코 농장으로 속아서 이민 온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을 우리는 '애니깽' 이라 부른다.

애니깽은 용설란의 품종 중 하나인 헤네켄(Henequen)의 스페인어 발음인 '에네켄'을 한국인 노동자들이 '애니깽'으로 알아들은 데서

유래한 이름이다.

찢리면 살이 썩어 들어가는 가시가 돋친 척박한 에네켄 농장에 속아서 온 이들은 고향을 그리면서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고 할머니는 그러한 애니깽 정착민의 2세였던 것이었다. 어릴 때 들던 몇 마디의 한국어가

할머니의 어머니가 해주던 "이쁘다", "우리 아가" 같은 단어였고 자장가였다.

한국인도 거의 없던 불모지에서 태어나자마자 멕시코 사람들과는 다른 외모로 평생을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을까?

연민과 돌아가신 친할머니의 기억이 생각나 덤덤하게 자장가를 부르시던 애니깽 2세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 드렸다. 어릴 때 돌아가신 친할머니의 손처럼 주름이 가득한 앙상한 손이었다.

뭉클한 마음을 붙잡고 할머니께 한국말을 했다. "할머니 건강하시고 꼭 오래오래 사세요"

이해는 못 하셔도 내 눈빛을 보고 할머니도 짐작하는 눈치이다. Si, Si, Muchas Gracias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 할머니의 어울리지 않아 보일 듯한 스페인어 대답에 가슴이 울컥해졌다.

다음날 할머니의 아들과 며느리도 같이 방문했다. 아마도 할머니가 이곳 가게 주인이 한국인이라고 이야기한 듯하다. 아들의 눈빛은 한국인의 피가 보인다.

100여 년 전 미국도 아닌 낯선 멕시코에서 정착한 한국인들이 있었고 우리들도 모르는 그들의 후손은 또이렇게 미국에 자리 잡고 일가를 이루고 살고 있었다. 애니깽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민야사(移民野史)의 자장가였다.



musicplaza.com

나는 임영웅! 너는 BTS!
자녀와 함께 즐기는
뮤직플라자

아이돌 응원봉, 굿즈
포스터, 사진집 등
인기 K-POP 상품

뮤직플라자 (213)385-4725 코리아타운 플라자 1F #107, 3F #307
928 S Western Ave, Ste 107 & Ste 307 Los Angeles, CA 90006

특허 받은 암호화폐, 투자하세요. VMS USA 앤디 박 대표 고객 화폐 투자 전반 관리... 자체 VMS 코인개발·발행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VMS USA, Inc.' (대표 앤디 박)는 암호화폐 투자 기업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투자 고객이 발굴한 암호 화폐를 거래소에 맡겨 그 수익을 지급하는 그야 말로 암호화폐 투자의 전반을 관리하는 기업이다.

2021년에 설립된 VMS USA는 신생 기업이지만 성장세만큼은 무서울 정도다. 2년 동안 미국 내 투자 회원은 500여명에 한국 투자 회원 수는 3,000여명에 이른다. VMS 유에스에이가 부상하게 된 배경에는 암호화폐 채굴에서 투자이익 지급 방식에 이르기까지 신뢰할 만한 투자 시스템이 자리잡고 있다.

앤디 박 대표는 "지난 해 9월 VMS 채굴 시스템

에 대해 한국 특허청으로부터 시스템 특허를 획득했다"며 "암호화폐 업계에서 채굴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받는 일은 흔치 않다"고 평가했다.

한국 특허를 받은 채굴 방식은 차량에 암호 화폐를 채굴할 수 있는 채굴(마이닝) 컴퓨터를 장착해 운전하면서 발생하는 전기를 이용해 채굴하는 방식이다. 박 대표는 "앞으로 차량뿐 아니라 선박, 비행기 등 엔진이 달린 모든 운송 수단을 이용하면서 채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전기차 시장이 본격화됨에 따라 VMS 채굴 시스템 사용자는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앤디 박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의 면면을 보면 핵심 기술인 비트코인 채굴을 이용해 VMS와 비

트보끼, 솔라마이닝 시스템(SMS), 그랜드엔터테인먼트 빅토리아 증권 거래소 등 개별 사업만 5개이다.

그중에서 지난 1월 LA 웨스턴과 3가에 오픈한 비트보끼는 비트코인과 북이를 합성한 말로 라면을 끓여 먹으며 매장내 채굴기를 가동해서 채굴된 비트코인의 일부를 손님에게 에어드랍(무상으로 코인을 배분 - Airdrop) 해주는 시스템이다.

또한, 박 대표는 미국과 한국, 국제기구에 특허 출원 중인 기술을 이용해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차량 채굴 시스템(Vehicle Mining System) VMS는 차량의 엔진을 이용해 코인을 채굴하는 아이디어로 화제를 모았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채굴 시스템을 음식사업에 적용한 것이 비트보끼 식

당이라 덧붙였다.

앤디 박 대표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며 오는 4월 13일 LA에 유서 깊은 극장인 WILTERN THEATER에서 허용별콘서트를 토요일 오후 6시에 개최한다면서 허각, 신용재, 임한별이 프로젝트 그룹으로 뭉친 이번 콘서트는 한국에 이미 전국투어를 통해 전 공연만석이라는 놀라운 기염을 토하며 남녀노소, 젊은 층이나 노년층이나 모두에게 사랑받는 주목받는 그룹이기에 멋진 공연이 될 것을 장담한다고 꼭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앤디 박
(425)535-0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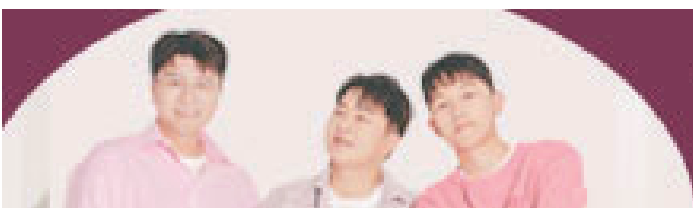
운전하시면 비트코인이 채굴됩니다!

마이닝카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VMS
VEHICLE MINING SYSTEM

www.vmscoin.com | www.victoriaex.com
3700 WILSHIRE BLVD, SUITE 1080, LOS ANGELES, CA 90010



HEOYONGBYUL

04/13 (토요일)
[THE WILTERN]



어거스틴김 CPA
- Real Estate Broker
- CMA, MLO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필자는 현재 세금 철을 맞아 바쁘게 보내고 있다. 문득 늦은 시간 집으로 운전할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든다.

세금이란 무엇인가?

벤자민 프랭클린이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2가지가 있다고 했다. 하나는 '죽음' 이고 또 하나는 '세금' 이라고 하였다. 즉 사람에게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세금도 피할 수 없다는 말이다.

갑자기 세금에 관한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구절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중에 나오는 구절이다.

가이사는 영어로 "Caesar" 로 되어 있는데, 그 Caesar를 가이사로 읽어서 가이사로 나와 있다. 영어로는 "시저" 로 읽는다. Caesar의 뜻은 로마 황제라는 타이틀이다. Caesar는 직책 혹은 타이틀이지 사람의 이름은 아니다. 따라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은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말이다.

이 구절이 나온 배경은 AD 30년 경 예루살렘 지역을 배경으로 한다. 그 당시 전 세계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다. 예루살렘 지역 또한 로마의 통치를 피할 수 없었다.

그 당시 종교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Jesus(예수)였다. 예수라는 말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으로,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메시아)로 알려지게 된다. 예수라는 사람이 오늘 말로 말하면 '핵인사' 로 떠오르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하자, 그 당시 종교 기득권 세력이었던 바리새파들은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고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 함정중의 하나로 그들은 예수에게 나아가 이런 질문을 한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 질문이 왜 예수에게 함정이 되냐면, "바치는 것이 옳다" 아니면 "바치는 옳은 옳지 않다" 둘중에 어느 답변을 하든지 간에 예수는 함정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면 예수는 로마의 앞잡이로 낙인 찍힐 것이고,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면 예수는 현행법을 무시한 죄인으로 로마의 권위에 저항하는 사람으로 기소가 되기 때문이다.

이때 예수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한다. 이 말에 바리새파 지도자들은 아무말 도 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된다.

필자는 이 구절에 딱 적용되는 세금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

그 세금은 판매세(Sales Tax)이다. 판매세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지불해야 하는 세금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 판매세는 물건을 산 사람, 즉 소비자가 내는 세금을 말한다. 가령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나면 9.5%를 세금으로 지불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세일즈 Tax이다.

소비자가 세금을 지불한다. 그럼 그 세금이 어떻게 정부한테 전달이 되는가? 바로 그 식당



주인이 Sales Tax라는 명목으로 정부에게 납부하게 된다. 즉 식당 주인은 그 세일즈 택스를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세일즈 택스는 바로 손님이 낸 세금인 것이다.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말이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세금을 낸 사람은 소비자이고 그 소비자가 정부에게 낸 세금이다. 이 세금에 대해서 판매자는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것이 판매세 (Sales Tax)의 본질이다.

하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이 명확한 본질에 '가이사의 것도 나에게' 라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다. 왜냐하면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다 내것'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지 못하는 사람들 스스로 가이사가 되었다. 본인이 로마 황제가 되어 국민들의 세금을 받고 있는 형국이 된 것이다.

그럴 때 '진짜 가이사' 는 '가짜 가이사' 를 엄히 벌할 수 있다.

(562)832-3479
usalacpa@outlook.com

한국TVH 매거진
편하게 보세요!

koreatimes.com

언제 어디서나
웹/모바일로
즐기세요!

어거스틴 김 CPA

NMLS #1662096

세금, 용자, 부동산 전문가 어거스틴 CPA에게 맡기십시오

회계/세금 Augustine Kim, CPA (Owner)	각종 세금 보고	시니어 우대
	IRS/FTB/CDTFA 세무감사 대행	첫 손님 \$50도 가능
	회계 세무 절세 계획	용자 하시면 세금 보고서Fee 무료
용자 US Mortgage World (Founder/ CEO)	" 집 구매 계획은 세금신고서 부터 시작하세요" 렌더에서 항상 요구하는 서류 중 하나가 Tax Return 입니다. 세금과 용자, 각각 따로 고민하지 마시고 한 곳에서 해결하세요.	

Augustine Kim Augustine Kim, CEO@usmortgage.inc (562)832-3479
CPA / CMA / Real Estate Broker / MLO

공인 회계사 : CP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부동산 부로커 : Real Estate Broker
관리 회계사 : CMA (Certified Management Accountant) 물게지 용자 전문가 : MLO (Mortgage Loan Originator)

usalacpa@outlook.com | 3700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FALCON

홈쇼핑월드 LA점
확장이전기념 **세일가**
\$4,490



오직, 홈쇼핑월드에서만!
아주 획기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 로봇의 더욱 다이내믹한 마사지감
두 다리의 자유로 경험하는 코어근육 스트레칭
장요근 이완, 사이클 운동, 전신 스트레칭, 하체 스트레칭 등
새로운 형태의 마사지 패턴인 로보워킹 테크놀로지기술 탑재

팔콘 마사지 체험은 엘에이/부에나파크 점으로 오세요!

여자가 화장을 하는 이유

한국은 유교 사상을 전통적으로 이어온 문화 덕에 남자들이 '갑'의 위치에서 아주 편하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평등 운동'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결국엔 남존여비 사상을 깨고 자하는 여성들의 '남녀평등' 운동 또한 거세지기 시작했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을 철석같이 믿고 살아오던 끈대 아재들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었고, 유식한 척, 잘난 척 하는 드센 여자들이 세상물정 모르고 나대다 결국엔 포기하겠지 하는 자만감으로 코웃음을 쳤다.

그러나 급변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한국 아재들의 무력과 고성으로 막을 수 없었다.

사실, 생각해보면 한국 여성들이 오랜 세월, 갖은 구박을 참고 견뎌온 것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그 흔적은 여기저기 남아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에서는 'Lady First'라는 문화가 있고, 그래서 연설을 할 때 청중들을 향해 "Ladies and Gentlemen"이라고 여성들을 먼저 칭한다.

미국이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5가지 (어린이, 장애인, 노인, 여성, 동물)중에도 여성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신사 숙녀 여러분' '남녀 공용' 등 거의 모든 단어에 남성이 먼저 자리한다. 심지어 여성들이 평등을 외치면서도 '여남 평등'이 아니라 '남녀평등'이라 한다. 단, 여성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딱 하나 있다. "이런 년놈들!!!" 욕할 때만 여성이 먼저 나온다.

기세등등해진 여성들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 신화마저 건들기 시작했다. '신이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신화 속 내용은 남성 우월주의가 만들어낸 허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조물주가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든 것이 맞다.

어떻게 된 일일까?

애초에 신은 여자를 먼저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여자의 갈비뼈로 남자를 만들 계획이었다. 그런데, 거의 완성 단계에 다다랐을 때, 그렇게 정성을 다해 만든 여자라는 인간이 눈에 쌍꺼풀을 만들어 달라, 코는 더 오뎅하게 해 달라, 입술은 더 도톰하게, 가슴은 더 크게, 허리는 찝룩하게, 다리는 길게...

말이 너무 많은 것이다. 자존심이 상한 신도 인내가 한계를 넘어 결국 완성 직전에 "아 짜증 나!!!" 하고는 집어 던져버리고, 계획을 수정하여 남자를 먼저 만들게 된 것이다.

남자는 신의 작품에 대해 아무런 불평이 없었다. 신은 이를 기특하게 여겨 더욱 더 정성을 다해 우월한 인간을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미 여자에게 빈정대 상한 상태에서 남자의 갈비뼈를 하나 꺼내 후다닥 대충 만들어버린 게 여자다.

그래서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여자들은 외출을 할 때는 본능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화장을 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성형까지 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남자들은 여자들의 화장, 패션, 성형에 대한 집착에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

이그그... 그러게 먼저 만들어 줄 때 잠자코 있을 것이지... 쫓쫓.

〈레이스(Lace)가 아름다운 이유〉

호주(Australia)는 사계절 내내 온화한 기온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 계절 기후가 반대이다. 그래서 호주는 12월~2월이 여름인데 이때는 기온이 무덥지는 않을 정도의 따뜻한 편이고, 겨울인 6월~8월의 경우는 한국의 가을 날

씨 정도에 불과하여 사철내내 꽃이 핀다.

그래서 호주 땅을 처음 밟은 유럽인들은 호주는 양봉으로 성공할 수 있는 최적의 땅이라고 믿고 유럽에서 호주로 벌통을 옮겨날랐다. 첫 해는 대박이었다. 유럽에서 한 해동안 거둘 수 있는 양의 몇 배나 되는 벌꿀을 생산해 냈다. 그러나 그 이듬해부터는 벌들이 꿀을 따러 나가지 않고 벌통속에서 놀기만 할 뿐이었다.

양봉업자들은 전문가에게 이 상황을 보고했고 곧 원인을 알게 되었다. 유럽에서의 벌들은 꽃이 피지 않는 겨울을 대비하여 미리 충분한 식량비축을 해두기 위해 꿀을 따다 벌통속에 모아두었지만 1년 내내 날도 따뜻하고 꽃도 많은 호주에서 굳이 월동준비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다.

너무나도 완벽한 상황이 오히려 실패를 불러온 것이다.

지난 여름, 전세계를 강타한 신발이 있다. 바로 어글리 슈즈(Ugly Shoes)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필라(FILA)는 어글리 러닝슈즈 (Fila Tracer)를 출시했다. 편안하고 가벼운 착용감으로 걸을 때 느껴지는 생동감을 극대화한 제품이다. 그러나 모양이 투박하고, 디자인이 조잡한 못생긴 신발이었다.

그동안의 기능성 신발들도 기능에 초점을 두느라 날렵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뺏아내지 못하여 큰 히트를 치지는 못했는데, 편리하고 편안한 기능만을 강조하며 아예 아주 못생긴 신발을 만들어 냈더니 오히려 대박을 친 것이다.

이탈리아 컨템포러리 브랜드 마르니도 최고의 소재에 어울리지 않는 과장된 디자인과 촌스러운 색으로 아주 못생긴 '빅 풋 스니커즈'를 선보였고, 발렌시아가는 '트리플S'를, 루이비

통은 '아치라이트', 구찌는 '와이트', 샤넬은 '트레이너'라는 어글리 슈즈를 출시하여 대박이 났다. 기능에 디자인까지 완벽했다면 오히려 이런 결과를 창출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영화 <God Father>를 제작하여 세계적으로 히트를 시킨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다. "난 영화의 예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힘이 난다. 영화를 완성하고 나면 더 얻을 것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풍족한 예산과 스태프, 완벽한 시나리오와 화려한 출연진들로 만들어진 영화들이 실패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제품도 사람도 완벽하면 오히려 외면을 받는 경우가 있다.

레이스가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수도 없이 뚫려있는 구멍들 때문인 것이다

아름다운 삶을 위해... 조금은 모자란 듯, 부족한 듯 살아야 하지 않을까?



정재윤
방송인, Adsense 대표



볼 빨개지는 이야기

안 되는 남자

남자 나이 50을 넘어 가면서 부터 일반적으로 남성들에게 찾아오는 여러 증상 중에 발기부전 증세가 흔하게 겪게 되는 증세일 것이다 물론 요즘은 20대 30대 남자들도 스트레스,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활동 부족으로 젊은 나이부터 발기부전 증세를 겪는 이들도 많다고 한다. 발기부전 증세가 나타나는 많은 이유 중에 방광 바로 밑에 위치하는 전립선에 문제가 생겨서 발기부전 증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노화현상으로 전립선이 비대해지기 때문에 소변문제, 야뇨증 그리고, 우울증에 발기부전까지 겪게 되는데...평소에 건강식품 판매점이나 코스코에 가서 PROSTATE HEALTH COMPLEX 같은 영양제를 복용하거나 술,담배를 금하고 다양한 종류의 야채, 과일을 섭취하고 가능하다면 당분이 많은 제품은 멀리 하는 게 좋다.

아재아재 개그코너

- * 모자진열대 사이에 신발을 두면? 을 네 글자로?
- 캡사이신
- * 택시기사가 좋아하는 동물?
- 타 이거
- * 숫자 5가 가장 싫어 하는 집?
- 오 페라 하우스
- * 뽕을 가장 많이 당하는 숫자?
- 9만 15 (그만 씹어)
- * 음식 중에 가장 야한 음식?
- 버섯

- * 야구 방망이가 부러졌을 때 하는 외국어?
- 베틀 남어
- * 정말 가슴으로 불러야 하는 민요?
- 젓가락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심리 치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에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은 너무나 익숙한데, "사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자아애성 성격 장애를 혼동하고 계신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은 잘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며, 계속된 인간 관계의 문제점을 고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많은 오해를 사고 있는 '자존감'이라는 컨셉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실제로 인간의 행동에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운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벌써 2024년의 이사분기가 시작된 이 시간에, 이번해동안 우리들의 목표인 '강철 멘탈'을 갖기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려 합니다.

강인함이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인격의 내공이 강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속에서 쉽게 배우고 깨우침이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 타인에 대한 존중심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모략하고 상처를 주는 대신, 타인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격려하고 공감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무조건 해야 직성이 풀리는 쾌락주의자로 사는 것이 아닐까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에도 의미를 두기 때문에 책임감이 크고, 자신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에서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과도 관계를 잘 유지해 낼 수 있는 자연스런 강인함을 갖게 됩니다.

태도가 건설적입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실패를 맛보았을 때, 이를 성숙의 계기와 발전의 기회로 생각하며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항상 유지합니다. 자기비하로 인한 수치심과 절망감 같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며, 실패후에도 자신을 믿어주는 마음으로 항상 너그럽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인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전보다 훨씬 큰 성공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거부감을 느껴도 크게 상처를 받지 않고, 비판을 받고도 방어적이지 않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옥시토신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텍사스 대학교의 크리스틴 네프 교수는 연구 결과를 통해 자기 비판이 강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고 방식 때문에 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결국 스트레스 호르몬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옥시토신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신뢰감과 행복감 그리고 평안함을 느끼며 살



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괴로운 어떠한 스트레스가 와도 그것을 잘 해결하는 능력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는 반복적인 연습으로 성취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높은 자존감은 타고 태어난 성격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존감은 평소에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성취해 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존감을 올리는 훈련을 해 보고 싶은 분들께 몇 가지 스스로 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1.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본인에게 보내는 편지로 써 본다. 2. 자신의 강점과 장점을 써 본다. 3. 머리 속으로 항상 하고 있는 자신과의 대화가 부정적이라면 다시 그것을 긍정적인 말들로 바꾸어 계속 반복한다. 4.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말들로 된 구절을 만들어 두었다가 계속 되뇌인다. 5. 자신을 릴렉스 시키는 방법들을 배워 항상 사용한다. 6. 자신이 하고 싶

었던 취미나 공부들을 미루지 않고 시작한다.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했던 노력,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모습, 남을 이기기 위해 날이 선 신경, 남에게 자신의 단점을 보이지 않기 위해 가면을 쓰는 행동과 가치관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자신을 진실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도 진실로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ssung0191@yahoo.com



성소영
임상심리학박사

아세요 이말? 이렇게 깊은뜻이!

정신 못 차리고 흥청망청 거리냐

하여간 우리 남편은 흥청망청 써대는데 못 말린다니까...

흥청이 망청이 되었다는 뜻으로,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마구 낭비하고 마구 행동하면 망한다는 의미다.

조선 연산군 시대때 기녀들을 흥청이라 하였다.

연산군이 흥청을 끼고 노는 것을 한탄한 백성들은 '흥청망청(興淸亡淸)'

이라는 말을 유행시켰고, '흥청망청'은 지금까지도 주체를 못하고

막 행동한다는 뜻으로사용 되는 말이다..

알아두면 이득, 사자성어 한마디

견리사의 見利思義

見(볼 견) 利(이로울 리) 思(생각할 사) 義(옳을 의)

눈앞의 이익을 보면 의리를 먼저 생각함.

H매거진 3월 26일자 이 코너에 소개된 견리망의(눈 앞의 이익을 보고 의리를 저버림)와 반대되는 고사성어다. 논어(論語)의 '현문편(憲問篇)'에 나오는 말. 즉, 사사로운 이익이 보일 때 이익을 취하기 전에 그것이 의로운 일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여 의롭지 않으면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안중근 의사(義士)가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이라 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옳은지를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에 위기가 닥쳤을 때는 목숨을 바치라'는 의미.

“Southern California’s Most Dilicious Bargains”

“남가주에서 제일 맛있고 싼집”

LA타임즈도 극찬한 **해장촌**

한인의 입맛뿐 아니라 주류시장의 입맛을 사로잡은 자랑스런 해장촌돌구이!



나는 아직 가격, 맛, 서비스 그리고 분위기에서 비교할만한 음식점을 찾지 못했고 먹을 수 있는 메뉴도 다양하다.

아이린 S. LA 거주



해장촌은 한인타운에서 가장 독특한 BBQ집!! 돌판 위에서 구워지는 고기는 최고다!!

조 L., 아케디아 거주



지금까지의 최고의 한국 BBQ집! 해장촌은 일반 갈비집보다 뛰어나다.

Sung Y., West LA 거주



All-You-Can-Eat Korean BBQ at the hip Hae Jang Chon!

LA Times Sep.16, 2009

We only use **USDA Choice and Prime Meat**

USDA 프라임 차돌+USDA 초이스 양념갈비+USDA 초이스 생갈비+프라임 블랙 앵거스 소불고기+프라임 블랙 앵거스 매운 소불고기
프리미엄 블랙 앵거스 허밀+매운 돼지불고기+천겹살+캐나다산 생삼겹 (두껍게 또는 얇게)+닭불고기+매운 닭불고기+쭈꾸미+새우
오징어 불고기+막창구이+매운 소벌집양+핫도그 +계란찜+김치부침+흰밥 또는 볶음밥+된장찌개+떡보쌈+무쌈+버섯+양파+샐러드

- LUNCH : 11am~4:00pm on Weekdays, Except Holidays
- DINNER : 4:00pm to Closing Weekdays, All day on Weekends and Holidays.

무제한도 따져보고가자!

LUNCH **\$37⁹⁹** +TAX

DINNER **\$43⁹⁹** +TAX

33 가지 다양한 메뉴

마무리는
기가막힌
돌판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드립니다!

가격은 내리고, 양은 더 푸짐하게!
고추장양념쌈밥 삼겹살 or 오징어

+ 된장 찌개 **\$21⁹⁹** +TAX

해장촌 특선 런치 **\$17⁹⁹** +TAX

신내해장국/ 살코기 해장국
묵은지 김치찌개

입맛 없을땐, 이거 하나면 끝!
열무양푼비빔밥 +된장찌개

\$17⁹⁹ +TAX

해장촌돌구이
haejangchon.com



HaeJangChon Dolgool Restaurant

213.389.8777 3821 W 6th St, L.A., CA 90020 (6가와 세라노)
월-목 11am-12am 금-토 11am-2am *일요일은 쉽니다.



이재명의 "썬썬" 발언은?



이서희 라디오서울
캘리포니아
마케팅 디렉터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썬썬' (谢谢·감사합니다의 중국어), 대만에도 '썬썬' 이러면 되지",

"대만 해협이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와 무슨 상관있나"

지난 22일 충청남도 당진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정부의 대(對)중국 외교 기조를 비판하며 한 말이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며 "왜 쓸데없이 양안 문제에 끼어드는지 모르겠다" 라는 발언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중 관계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날은 4·10총선 후보자 등록 마지막날로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모두 총선 격전지인 충남을 찾은 날이다.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하는 중원 표심에 호소하기 위해 양당 대표가 같은 지역을 방문한 날이기도 하다.

대만과 중국의 외교적 문제에 윤석열 정부가 개입하는 바람에 중국인들이 한국을 싫어해 대중무역이 악화되었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썬썬' 발언은 이후 화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거듭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대중국 굴종 인식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그렇게 머리를 조아려 주면 국익이 높아지는 게 있나.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국과 대만 양쪽에서 비판을 받을 소지가 다분한 발언으로 주권국가 제1야당의 대표가 입에 올릴 수 있는 발언이 아니라는 반응도 나왔다.



비판은 쉽지만 근래의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글로벌 상황 속에서 대중 외교 정책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미동맹을 통한 군사안보 분야 협력을 다질 필요가 있는 반면 중국과의 외교에 강경한 대응으로 한중관계의 악화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가능한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쳐서는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 정부는 높은 대중 경제 의존도에 기인한

중국 눈치보기가 사실상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활동을 제한했다는 판단과 더 이상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미중 간 전략적 명확성에 기반한 대중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에도 참여한 것이다. 미국 주도의 반중 연대에 참여하는 한국의 외교 행보로 한중 관계의 악화 가능성과

한중 간 갈등의 소지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야권 일각에서 현 정부의 대중 정책이 강경일변도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가 방관과 회피만으로 일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한중관계의 인위적인 개선보다는 한중관계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중국의 전략적 가치를 산정해야 수정하고 한국 정부는 중국과 어떠한 경우에도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각 분야와 사안별로 중국이 협력의 대상인지, 경계의 대상인지를 구분해서 이에 기반한 대중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 보복'과 같은 압박 가능성을 고려하고 대응 수단을 준비해야 한다.

외교는 예술이다.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이만구 교동 짬뽕
전미주 지점 오픈 문의
Eddie Kang
(213) 434-3996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명품 야생산삼
공동구매 도매
마진없는 심마니 가격

1파운드 (약40~45뿌리) ~~\$3,500~~ → \$1,200

~~\$4,500~~ → \$1,400 | ~~\$5,500~~ → \$1,700

명약 산삼금옥단 50% 특별할인가
도인벽사단

한의학박사 서영수

Tel. (213) 385-3304 (산삼공사)

성민산삼한방병원

809 S. Hobart Blvd. L.A., CA 90005 (진료시간 월-토 09:30am-06:30pm) / www.sansamsale.com

장수와 삶의 퀄리티



김희자 Settia Heeja Kim
실버시티보험 메디케어
전문 에이전트

3대 거짓말중에 하나가 노인들이 얼른 죽어 야지라고 하지 않는가. 오래살고자 하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 옛날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꿈꾸고, 그 길을 찾고자 하였으나, 그의 부, 권력, 지위도 그것을 얻을 수는 없었다. 오히려 그는 좋다는 약을 다 먹다가 수은중독으로 죽은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런 장수의 욕망을 증명이라도 하듯, 한국TV 채널을 시청하다보면, 엄청난 양의 건강보조식품들의 광고를 보게된다. 저렇게 나 많은 회사, 상품들이 다 팔리나 싶을 정도로 많고, 가격도 비싼 품목도 많다. 시니어들을 겨냥한 건강식품은 정말 많아도 너무 많아 안타깝기만 하다. 그뿐아니라, 시니어집을 방문했을 때 마주하는 식탁위의 의사 처방약은, 약만 먹어도 배부르겠다는 생각이 들만큼 많다. 과연 그렇게 많은 약을 먹어야 할까? 약을 적게 먹고, 건강을 유지할수는 없는 것일까? 어쨌든 질병을 조절해야 하니, 의사는 처방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건강보조식품을 추가해서 더 먹는 것은 부작용은 없을지 염려가 되기도 한다. 과연 오래사는 것만이 인간의 소망이고 욕망일까? 어떻게 오래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인간답지 못한 모습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가?

날마다 쏟아지는 뉴스속에는 전쟁과 기근과 천재지변으로인한 고통의 소식을 접하게된



다. 전쟁과 폭탄이 쏟아지는 중에 다치고,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생명의 위협 가운데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어서 빨리 전쟁이 끝나 평화가 임하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을 것이다. 수많은 환자가 튜브로 음식을 공급하며, 호흡기를 끼고, 의식도없이 의사표현도 못하며 그저 연명만 하는 상태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래 살되, 퀄리티가 있는 삶을 살수 없다면, 오래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2020년 한국통계청의 정보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70년대 이후 계속 늘어 20년이 늘어서 83세가 되었지만, 그러나 건강수명은 73세로 거의 변화없이 제자리 걸음이라 한다. 의료보험이 잘되어있어 높은 건강검진과 의술로 83 세까지 살수있는 나이이면, 건강하게 사는 수명은 73 세로, 10년은 질병으로 고통 받거나, 병석에 누워있다가 돌아가신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마지막 10년은 퀄리티있는 삶은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도 오래살면서 겪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통증이고, 치매이다. 마약성 진통제를 먹으면서도 견디기 힘든 통증은, 참으로 본인도 지켜보는 가족에게도 견디기 힘든 시간이다. 모든 감각은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지만, 고통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증폭된다고 한다. 어두운곳에서 시간이 지나면 보이게 되고, 냄새도 시간이 지나면 적응되지 못 느끼게 된다. 그러나, 통증은 오히려 더 민감해 진다고한다. 과거의 경험으로 그 징후가 오면, 견디지 못하고 상상까지 동원해서 통증을 느낀다고 한다. 고문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계속되는 고문으로 지난 번에 겪은 고문의 고통을 기억하고 더 빨리 고통을 느낄수 밖에 없는 이유일 것이다. 또 치매는 어떤가? 평생 이성적으로 본인의 본성을 다스리고, 멋지고 훌륭한 모습이었던 어르신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인간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서로가 다 알수 없기에 사회는 질서를 유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만일 속마음까지 다 읽는다면, 세상에 평화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너

무도 솔직한 본능적 행동을 드러내 보이니, 사람들은 감당이 안되는 것이다. 치매를 막는 방법이 딱히 있는 것은 아닐것이다. 치매가 임보다도 더 무섭기에, 미리 미리 인지 능력도 체크하고, 뇌가 계속해서 활동할수있도록, 뇌도 쓰고 기억력도 연마해야 하는 것이다. 통증과 치매로 사는 삶도 퀄리티 있는 삶은 아닐것이다.

그저 오래산다는 목표가 아니라, 내 몸을 내가 원하는대로 움직이고, 올바른 정신을 유지하면서 내가 원하는 판단을 표현하며,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내 손 내발로 활동할 수있도록 근력을 단련해야 한다. 오늘도 내몸을 움직여 보자. 뇌도 사용해서 정신줄도 꼭 잡아보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건강나이는 내 책임일 지도 모른다. 현재 내건강의 책임은 지난 수십년을 쌓아온 내 삶의 결과인것을 생각하면, 나의 노력 없이는 의사도, 처방약도, 건강 보조 식품도 크게 도움이 안될것이다. 그러기 전에 건강할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벼운 산책을 나가 보자. 내 건강은 내가 지키자. 수면제를 먹기전에 약간의 산책이나 운동을해서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수는 있도록, 만성질환을 여러가지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식단조절과 운동을 병행하며, 수치를 낮추는 노력을 해보자. 그보다도 더 먼저, 질환이 생기기전에 건강할때 건강을 지키는 오늘의 건강한 생활습관이 나의 미래, 퀄리티있게 장수하는 삶의 기초가 될것이다. 100세시대에 모두의 꿈은 99 88 234 이다. 99세까지 팔팔88하게 살다가 2,3일 아프고, 죽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모두가 꿈꾸는 퀄리티있는 삶이 될것이다.

626-348-7944

www.midwilshirehealth.com

MW
중양양로병원
MID-WILSHIRE HEALTH CARE CENTER

20년 넘게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양 양로병원
한인 전문 물리, 작업, 언어치료사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상주, 한인 의사 대기!
정갈한 전통 한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단기 장기 요양 치료 환자 환영!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Admissions Coordinator Director of Social Services
E-mail: tinah@midwilshirehcc.com
Cell: (626)607-6478 Fax: (213) 483-3606
676 S. Bonnie Brea St. Los Angeles, CA 90057

www.dentwayinc.com

DENTWAY
www.dentway.kr

자동차 흠집제거

부분도장 Before After
dent 복원 Before After
범퍼복원 Before After

**최저(低) 가격+최고(高)품질
그것도 단 하루만에 끝내드립니다.**

각종 보험처리 환영

- 일반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
- 서비스 평생 보증
- 무료견적서비스
- 최상의 복원 품질보장
- 최고급 재료 사용
- 1 day 수리 완료

32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월 - 금: 8:00 AM - 6:00 PM 토: 8:00 AM - 12:00 AM
Tel. 213.383.7233
철 이 삼 삼 합니다.

www.centurydayandnightspa.com

미주유일 골프연습장, 수영장, 스파, 찜질방, 식당,
헬스클럽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추리 스파

스파, 찜질방,
식당,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올림픽과 크렌셔
323-954-1020

"미국의 자연은 웅장하고 아름답지만 무서운 대상"



리처드 김

- CSUF 사회학과 졸업
- 다음 행시문학, 미주 행시문학 카페지기
- 페이스북 <오늘의사색> 작가
- SAG AFTRA 배우 조합 회원

요즘은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 한인들은 어느정도 경제적 부를 쌓은 분들이 이민을 많이 오는데 그런 분들은 이민 초기에 미국 여행을 많이 다닌다. 어떤 분들은 미국에 이민을 오자마자 곧바로 생활 전선에 뛰어드느라 미국 여행을 하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어느정도 미국 생활에 적응이 되면 대부분 한인들은 여행을 시작한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여행을 하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미국 이민을 온지 40년이 넘었어도 엘에이 근교 애너하임시의 디즈니랜드도 못가 분들도 있고 그랜드 캐니언 브라이스 캐니언 자이언 캐니언 세쿼이아 국립공원도 못가 본 한인들도 있다.

미국 국민 중에 50개주를 다 밟아본 사람이 몇%나 될까?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1%도 되지 않을 것 같다. 그 1%도 자동차 여행이 아닌 비행기로 미국 땅을 밟은 사람들이 대부분 일 것이다.

이민자로서 이런 웅장한 미국을 아무리 여행을 많이 다녀도 제대로 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미국에 오래 살아도 자기가 살고있는 주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 것이다.

미국 자동차 여행을 하다보면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미국의 땅은 대부분 사람들이 살지 않는 드넓은 자연이 끝도없이 펼쳐지는데 그 지형마다 독특한 특색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경외감까지 든다.

미국 자연 여행을 하다보면 하루 종일 운전해도 그 흔한 맥도날드 햄버거 체인점도 없고 200마일 이상을 운전을 해도 주유소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미국 여행에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객기다. 자연을 우습게 보며 무모한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만큼 자연을 모르고 하는 행동이다.

히말라야 산맥에서 8,000미터가 넘는 고산을 등정할 때는 신의 영역으로 생명을 담보해야 한다. 그만큼 자연 앞에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인간이 어리석은 것은 자신이 목적인 자연을 정복하고나면 더 높은 단계로 도전을 하는데 생사의 갈림길에서 여러번 죽음의 고비를 넘긴 사람들은 자연 앞에서 겸손하다.

나는 장거리 자동차 여행 중에 GPS의 오작동으로 산속 길에서 고생을 했었는데 그런 자연이 무섭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여행 중에는

무모한 도전은 피한다.

사람이 어떤 것에 관심이 깊어지면 대부분 하드코어로 바뀐다. 또한 자연 여행도 관심이 깊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도전하지 않는 것에 새로운 도전 근성이 생긴다.

미국은 작은 또 다른 지구다. 전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은 크고 비옥한 나라다. 미국의 자연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들이 아직도 많은데 이런 여행지를 특별한 정보없이 혼자 여행을 한다는 것은 생명까지도 담

보를 해야 한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아무리 여행을 많이 한다고 해도 냄새 정도만 맡다가 끝나는 것이 미국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행도 중독이다. 미국의 자연은 즐기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좋다. 자연 여행에 중독이 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연은 인간이 자연을 너무 알아가는 것을 허락치 않는다. 자연도 적당히 알아야지 너무 깊게 알고 하면 위험하다. 여행 중에 자연이 주는 경도가 감지될 때는 무

조건 멈추어야 한다.

짧은 일생동안 이민자로서 얼마나 미국 여행을 할수 있을까? 그럼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아름답고 웅장한 미국의 자연 여행을 통해 미국을 알아가는 즐거움은 그 어떤 즐거움보다 크다.

바쁜 이민 생활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여행을 떠나 보자. 이 웅장한 미국의 자연을 가슴에 품어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시니어 생활 상식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CMS)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 정부와 협력해 주 정부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연방 정부 기관입니다.

공동 부담액 (Coinsurance)

본인이 본인의 플랜과 나눠서 지불하는 서비스 비용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면, 메디케어 파트 B에서 의료 서비스 비용의 80%를 지불하고 본인은 20%를 지불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 (213)387-6505, (714)690-1300

이제부터 온라인 뉴스는

radioseoul1650.com

한인사회 로컬뉴스, 미국뉴스 빠른 업데이트
한인사회 뉴스중심 라디오서울 뉴스본부에서

빠른 뉴스를 바로 올립니다

지금 방문해서 이메일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

라디오서울1650닷컴

하이트진로, LA 다저스와 13년째 이어가는 파트너십을 통해 '진로' 알린다



대한민국 대표 주류 브랜드 하이트진로가 LA다저스 스폰서십 계약을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전 세계 메이저리그 야구팬을 대상으로 '진로' 브랜드를 알릴 계획이다.

하이트진로는 아시아 주류업계 최초로 2012년 LA다저스와 스폰서십을 체결, 13년째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다저스 로고 사용, 구장 LED 광고

와 시음 행사를 통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친다. 이번 시즌부터는 경기장 내에서 상시 노출이 가능한 광고판을 관중석에 설치해 진로 브랜드를 노출한다. 한국 문화를 기리는 구장 대표 행사인 '코리아인 헤리티지 나잇(Korean Heritage Night)'을 포함한 다양한 후원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다저스 구장 내 단독 판매 부스인 '진로 소주바'에서는 진로의 과일소주 5종과 '진로 소주 쏘 블루(JIN-



< 하이트진로 바(HITEJINRO BAR) 이미지 >

RO Soju So Blue' 칵테일을 판매한다. 다저스 구장 내 과일소주 판매량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31% 성장률을 보였다. 올해는 복숭아 과일소주를 추가해 현지인 음용이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다.

LA다저스는 작년 MLB 내 구장 관객 동원 1위를 기록한 인기 구단으로 이번 오프시즌에 스포츠 역사를 새로 쓴 대형 선수 계약을 통해 전 세계

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하이트진로 해외사업본부 황정호 전무는 "전 세계 80여 개국에 소주를 수출하는 종합주류 회사로 '소주 세계화'에 앞장서며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증류주 '진로'를 앞세워 K-소주 열풍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미국 내 유통

체인 입점에 주력해 현지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작년까지 토탈 와인 앤 모어(Total Wine & More)의 미국 전체 매장 200여 곳과 앨버슨(Albertson's)의 약 200개 매장에 입점했다. 코스트코(Costco) 18개 매장과 타겟(Target) 100여 곳에도 입점했다. 하이트진로의 최근 3년간 미주 지역 소주 수출액은 연평균 성장률 24.1%를 기록했다.



<신규 설치한 광고판 이미지>



2024 JM Eagle LA 챔피언십 상금 375만 달러로 인상 메이저 투어, CME 그룹 투어를 제외한 LPGA 투어 최대 규모



(사진=Walter, Shirley and Hannah trophy)

2024년 3월 25일, 로스앤젤레스에서 2024 JM Eagle LA 챔피언십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다.

2023년에 개최되었던 첫 번째 정규 시즌 LPGA 투어에서 JM Eagle과 Plastpro 스폰서들은 여성 골프의 발전을 위해 상금을 15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두 배 인상하는 등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를 뒤따라 2023년 다른 LPGA 투어 이벤트들에서도 5개의 토너먼트

가 상금을 이와 같이 인상했었는데, 2024년에는 더욱 탄력을 받아 메이저 대회를 제외한 11개의 비전공자 토너먼트 대회들이 300만 달러 이상의 상금을 내걸기로 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올해도 여성 골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JM Eagle와 Plastpro의 CEO인 Walter와 Shirley Wang이 이번 Plastpro가 주최하는 2024 JM Eagle LA 챔피언십의 상금을 LPGA

투어 중 가장 큰 금액인 375만 달러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LPGA 투어 선수들은 이제 2024 시즌 동안 총상금 1억 2,000만 달러 이상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

이에 대해 Walter와 Shirley Wang은 "이 세계적인 선수들에게 꿈을 이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영광이며 이와 같은 행보는 미래의 선수들에게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앞으로 여성 스포츠가 더 많은 주목을 끌고, 여성 골퍼들에게 보다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년에 대회 상금이 인상되는 것 외에도, 다가오는 JM Eagle LA 챔피언십에 참가하는 전체 144명의 선수들에게는 할리우드의 고급 호텔 숙박 및 대회 기간 동안 월서 컨트리 클럽까지 무료 VIP 셔틀 서비스가 제공된다.

JM Eagle LA 챔피언십은 2024년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며, LPGA

투어가 월서 컨트리 클럽에서 경쟁하는 여섯 번째 해로, 초기 참가자들은 3월 18일 순위에 따라 롤렉스 여자 세계 골프 랭킹 상위인 라이리아부(1위), 넬리 코르다(2위), 셀린 부티에(3위) 그리고 루오닝 인(4위)으로 이뤄져 있다.

JM Eagle LA Championship Ticket

- 1. Daily Grounds 일일 티켓(\$25): 하루만 입장 가능
- 2. Weekly Ground 주간 티켓(\$45): 목

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든 대회 기간 입장 가능

3. Hollywood Club 18th Green Hospitality 할리우드 VIP 티켓(\$375 or \$1500): 일일티켓(\$375)과 주간티켓(\$1500) 두 가지 옵션이 있으며, 18홀을 볼 수 있는 오픈 에어/세미프라이빗 럭셔리 스위트 공간 제공됨.

모든 티켓은 www.JMEagleLA-Championship.com/tickets 에서 구입할 수 있다.



(사진=WilshireCC1)

예방접종으로 자녀 건강 지켜요



4월은 전미 소수계 건강의 달(National Minority Health Month)입니다. 이번주는 소수계 암 인식 주간(Minority Cancer Awareness Week)이고 다음주는 전미 영유아 예방접종 주간(National Infant Immunization Week), 4월 마지막 주는 세계 예방접종 주간(World Immunization Week)이자 아동건강 주간(Every Kid Healthy Week)입니다. 그런가하면 4월은 성병(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인식의 달(STI Awareness Month)입니다.

이렇게 무슨무슨 주간, 인식의 달을 주루룩 나열한 것은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 주간, 달은 언뜻 보면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영유아 때부터 지침, 권장에 따라 백신을 맞으면 아동기, 청소년기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이는 아동과 이민자를 포함한 소수계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보건당국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출생 직후부터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성병 인식의 달, 암 인식 주간에 맞춰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 그리고 자궁경부암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STI는 직역하자면 성매개 감염병입니다. 흔히 성병이라고 하죠. 일차적으로 사람 간 성적인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질환으로 30종류 이상의

성매개 감염병이 있으며 각각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하위유형 중 하나가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으로 HPV는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HPV 백신 접종입니다.

CDC와 예방접종실무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ACIP), 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AP) 등에 따르면 HPV 백신은 빠르면 9세부터 시작해 12세 사이에 맞으면 효과가 큼니다. 이는 HPV에 노출되기 전에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데 9~12세에는 HPV 감염증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9~12세 십대 초반 청소년에게 백신 접종을 하면 감염과 싸우는 항체를 많이 만들어내 면역 반응이 더 강해지고 이에 따라 2회만 접종해도 됩니다. 하지만 15세 이후에 접종을 시작하면 1회가 추가돼 3회 접종을 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HPV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 26세 이전에 맞을 것이 권장됩니다. 물론, 26세 이후라도, 또는 이미 성 경험이 있어도 HPV에 감염되

지 않았다면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 효과를 얻을 수는 있으나 27~45세 여성에게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접종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담당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미국암협회(American Cancer Society, ACS)는 26세 이후 여성의 HPV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임상에서 소아환자와 그 부모를 만나보면 다양한 생각의 가지고 있고 때문에 모든 환자에게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체로 예방접종 권장지침을 따르는 편이지만 학교에서 요구하는 백신 접종에만 동의하는 환자 부모도 있고 접종을 망설이는 부모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HPV 백신은 성관계, 성행위, 성병과 연관지는 낙인(스티그마)이 찍혀 아예 접종을 거부하거나 망설이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HPV 백신 접종이 십대의 성관계를 장려한다는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더 자라고 나서, 성인이 되고 나서, 접종하기를 희망하기도 하죠. 하지만 앞서 언급했



제니퍼 멘지바-로페즈
소아과 전문의

듯이 9~12세 사이에 접종하면 2회에 그치지만 십대 후반부터는 3회 접종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HPV 감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매년 미국인 1300만 명이 HPV에 감염되고 4만6000여 명이 HPV 관련 암을 진단받습니다. HPV 감염에 따른 질병은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암 뿐만 아니라 편도암, 혀암, 인후암 등 많습니다.

하지만 HPV 백신을 맞으면 해당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암의 90%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예방접종은 자녀의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하지 않았다면, 망설이고 있다면 지금 자녀에게 백신을 맞추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HPV에 감염되기 전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입니다.

▶문의: (213)235-1210



www.lakheir.org

메디칼 있어도 의사 찾기 힘들시죠? 보험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시나요?

이웃케어클리닉으로 오세요. 저희가 케어해드리겠습니다!

이웃케어클리닉은?

- 비영리 커뮤니티 클리닉
- 한인 의료진 및 한국어 통역서비스
- 메디칼(Medi-Cal) 환자 환영, 저소득층 프로그램 가입 지원
- 진료과목: 주치의 · 부인과 · 소아과 · 치과 · 검안과 · 정신건강 등
- 신속한 한인 전문의 리퍼, 각종 암 검사 제공
- 일반보험(PPO, HMO), 메디케어 등 모든 보험 환자 진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원스탑으로 만나세요
213.235.2800

(구) 건강정보센터
이웃케어클리닉
Kheir Community Clinic





미주 한국일보 10개의 기사를 통해 매일 게재되는 뉴스 중 어느 지역에 살든 공감할 수 있는 소식, 정보와 각 지역의 한인사회 뉴스를 뽑아서 4페이지에 걸쳐 게재합니다. 지역별, 기사별 더 상세한 뉴스와 정보는 korea times.com 을 보십시오.

In New York

‘디모스 연회장(플러싱 코리아빌리지 내)’ 그랜드 오픈 성황



퀸즈 플러싱 코리아빌리지에 위치한 디모스 연회장이 그랜드 오픈 행사를 열고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행사장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인사회 단체장 및 관계자 등 300명이 참석해 그랜드오픈을 가득 메운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행사에서는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과 김기철 전 뉴욕한인회장이 축사를 건네며 디모스 연회장의 공식 개장을 축하했으며, 김 의원이 디모스 연회장에 감사패를 전달하는 순서가 이어졌다.

로이안 디모스 연회장대표는 “뉴욕일원 최대의 한인타운인 플러싱에 위치한 최고급 연회장을 맡아 다시 오픈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 한인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소규모 파티에서 대규모 연회까지, 또 각종 회의와 강연, 공연은 물론 다양한 성격의 각종 모임까지 책임지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참석자들에게 뷔페 식사가 제공된 행사 2부에서는 배우 허준호와 개그맨 김재욱의 초청 공연이 선보였다.

허준호는 “팬데믹으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영업이 중

단됐던 코리아빌리지 연회장이 다시 문을 열게 된 자리에 초청돼 기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날 허준호는 자신이 출연했던 드라마 ‘걸어서 하늘까지’의 주제곡과 ‘여러분’ 등 한인들에게 친숙한 노래들을 부르며 호응을 이끌어냈으며, 관객석 구석구석을 돌며 관객들과 일일이 인사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 출연한 김재욱은 화려한 연변과 마술쇼로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박수 호응을 이끌어냈다. ‘김재롱’이라는 이름으로 트로트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그는 트로트 및 댄스곡을 부르며 행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행사 마지막 순서인 경품 추첨 순서에서는 55인치 스마트TV, 태블릿PC, 순금 1돈 등 푸짐한 상품들이 증정됐다.

한편, 지난 1월 약 4년 만에 재개장한 코리아빌리지 연회장은 디모스 연회장으로 새롭게 단장해 400석 규모의 그랜드오픈과 250석 규모의 프리미어홀 등을 갖추고 한인사회 각종 행사를 열고 있다.

△코리아빌리지 디모스 연회장 예약문의 212-871-6781
(이지훈 기자)

In Toronto

한국서 진료비 부담 줄이려면



해외동포에 대한 한국정부의 건강보험 가입요건 강화로 교민들의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가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다.

다음달부터 한국에 들어가는 재외국민이나 해외동포들은 입국한 뒤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체류기간 동안 진료를 받는 해외동포는 진료비와 약값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로 실손의료보험이 거론되고 있지만 보험사마다 신규가입자 또는 기존 고객에 대한 요건과 혜택 등이 달라 사전에 이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다만 보험사에 따르면, 해외로 이민한 동포라도 본국의 해당 보험 상품을 계속 유지했을 경우 한국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 상품 가입률이 높은 H보험사는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실비보험은 고객이 가입한 시점에 따라 보장이 다르지만 해외동포가 기존에 가입한 실비보험을 잘 유지하고 있다면 한국에서의 진료비와 조제비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어떤 치료를 받았느냐에 따라 보장률이 다르므로 병원을 방문하기 전 보험 고객센터에 보장 여부를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실손의료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통상 급여/비급여 의료비에서 20~30%를 제한 다음 나머지 소요경비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조옥 기자)

전철역서 또 ‘묻지마 밀치기’ 사망



뉴욕시 전철역에서 또 다시 묻지마 밀치기 사건이 발생해 50대 남성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뉴욕시경(NYPD)은 25일 오후 7시께 맨하탄 이스트 할렘 소재 렉싱턴 애비뉴 & 이스트 125번가역 승강장에서 칼튼 맥퍼슨(24)이 4번 전철이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제이슨 볼츠(54)씨를 선로 아래로 떠밀어 사망하게 했다.

현장에서 체포돼 구금된 맥퍼슨은 26일 2급 살인혐의로 기소됐다.

맥퍼슨이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범행 동기는 무엇인지 등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다.

NYPD는 “용의자는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며 “과거 8차례 체포된 기록과 함께 2016년에 폭행 혐의로 기소,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기록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맥퍼슨의 친형은 “뉴욕시가 정신질환이 있는 동생을 방치해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며 “우리 가족은 지난 6개월간 동생을 지키기 위해 자살 및 위기 핫라인(988)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했지만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주전 병원을 퇴원한 동생이 결국 정신이상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다.

최근 뉴욕시 전철에서는 살인과 총

격, 흉기 난동 등 강력 사건이 빈발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브루클린의 한 지하철역으로 진입하던 열차 내부에서 총격이 발생해 2명이 다쳤고, 올해 1월에는 다툼을 말리던 한 40대 남성이 과한의 총에 맞아 숨졌다.

지난달 13일에는 브롱스의 한 지하철역에서 청소년 무리 간 다툼 끝에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명 이상이 다쳤다. 지난달 말에는 지하철 기관사가 기관실 창문 밖으로 목을 내밀어 좌우를 살피다가 과한이 휘두른 흉기에 다친 사건도 있었다.

한편 캐시 호쿨 뉴욕 주지사는 이달 초 주 방위군 750명과 주 경찰 및 MTA 경찰 250명 등 1,000명 규모의 대규모 군인력을 파견, 전철역에서 승객 가방에 흉기가 있는지 수색하게 하는 등 조치했으나 주민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진수 기자)

 In Chicago

90세 유재씨 남극 마라톤 도전

시카고 출신 노익장 마라토너 유재준(영어명 Jack Yoo)씨가 남극 마라톤(Antarctica Marathon)에 참가 무사히 완주했다. 마라톤 일정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28일까지 13박14일에 걸친 남극 마라톤 패키지 스케줄이었다. 유씨는 시카고에서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거쳐 남극 현지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5년부터 시작한 이 남극 마라톤은 전 세계 6개 대륙에서 남극(Antarctica)이 마침내 7번째 대륙으로 인정받으면서, 유씨의 7개 대륙 마라톤 도전은 시작됐다. 유재준씨는 80세부터 시카고 마라톤 완주를 시작으로 10년에 걸쳐 이미 5개 대륙의 마라톤을 무사히 완주한 바 있다. 이번이 6번째 대륙 마라톤 도전이고 차후 남미 브라질에서 리오

마라톤을 마지막 7번째로 뒀다. 그러면 전 세계의 7개 대륙을 전부 돌며 풀 마라톤을 완주한 선수가 된다. 지난 21일 오전부터 남극 마라톤은 시작됐다. 풀 마라톤은 6시간 30분 안에 들어와야 하며 해프 마라톤은 4시간 30분 안에 들어와야 하는 시간 제한이 있다. 마라톤 경기는 당일 오전 7시와 오후 1시, 두 번에 걸쳐 진행됐으며 유재준씨도 제한 시간 내에 마라톤을 끝냈다. 경기를 마친 후 남극의 펭귄 등 야생동물들을 관찰하고 기후 변화를 경험하면서 거대한 빙하를 구경하는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칠레의 케이프혼에 도착, 남극 마라톤의 13박14일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전해왔다. 2주간의 남극 마라톤 일정을 마친 유재준씨가 건강한 모습으로 시카고에 돌아오길 기대한다.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거쳐서 시카고로 복귀한다. 한편 남극 마라톤 출발 전 어느 정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은 채 가족과의 식사 후 조용히 장도에 올랐던 유재준씨는 남극 마라톤 완주 후, 시카고 윈티비의 생방송에 출연해 많은 한인 동포들로부터 후원과 격려를 받은 덕분에 무사히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점봉 기자)

 In Seattle

워싱턴주 주민들 '팁'얼마나..24%만이 식사비의 20% 이상, 40%는 15~20% 사이

미국에서 팁(Tip)문화가 너무 지나친다는 원성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주 주민들의 팁 문화를 알아보는 설문조사가 실시됐다. 워싱턴주 주민들은 미국 전체적인 평균에 비해서는 팁이 관대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많이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있는 DHM 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워싱턴주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응답자의 24%만이 식사시 식사비의 20% 이상을 팁으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40%의 응답자는 식사비의 15%에서 20%를 팁으로 줬으며 13%는 10% 미만을 팁으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워싱턴주에서 식사비의 20%를 팁으로 주는 것이 관례는 아닌 셈이다. 성별로 보면 여성들이 남성보다 팁을 더 잘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81%는 식사시 항상 혹은 자주 팁을 준다고 답했지만 남성은 68%만이 항상 혹은 자주 팁을 준다고 답했다. 인종이나 정치적인 성향에 따른 팁 문화의 차이는 별로 없었으며 다만 45세 이상자들이 그 이하 젊은이들에 비해서도 팁에 더 관대했다. 특히 연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자나 그 이하의 소득자 사이에서도 팁 차이가 별로 없었다. 다만 워싱턴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상대적으로 잘 사는 킹 카운티 주민들이 다

른 카운티에 비해 팁을 더 잘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종류에 대한 팁문화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89%는 서버가 있는 레스토랑에서는 팁을 항상주거나 자주 준다고 답했다. 10%는 서버가 있는 레스토랑에서 가끔 팁을 준다고 답했으며 2%는 아예 안준다고 답했다.

이발소나 미용실의 경우 74% 항상이나 자주, 14% 가끔, 12% 안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버 이츠 등 음식배달서비스의 경우 54%는 항상/자주, 14%는 가끔, 33% 안줬다. 바텐더는 54%가 항상/자주, 17% 가끔, 30% 안줬으며 택시나 우버 등 차량공유시 50%는 팁을 항상주거나 자주 줬지만 15%는 가끔 주고 36% 아예 안주는 것

로 파악됐다. 커피 바리스타의 경우는 45%가 항상이나 자주 주고, 40%는 가끔, 15% 안준다고 답했다. 한편 워싱턴주 주민들의 80%는 업소들이 요금에 팁을 자동으로 합산한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In Washington D.C. VA 튜립축제 개막



드디어 봄이 왔고 비바람 속에서도 꽃은 피어난다. 워싱턴 DC에서 벚꽃 축제가 한창인 가운데 버지니아 녹스빌에서는 튜립축제가 열린다.

번사이드 농장(Burnside Farms)에서 지난 24일 시작된 봄 축제(Festival of Spring)는 내달 14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농장은 “아직 시즌 초반이라 25%만 개화했지만 다음 주 만

개하면 열흘간 지속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버지니아의 네덜란드’로 알려진 번사이드 농장에는 150종 이상의 튜립과 30종의 수선화가 심어져 있다. 티켓은 19~31달러, 문의 www.burnsidefarms.com

〈유제원 기자〉

애난데일서 경찰특공대와 대치극

최근 한인업소 밀집 지역인 애난데일에서 연쇄 성폭행 사건 등 강력 범죄가 벌어진 가운데 이번에는 한인상가(서울플라자) 바로 인근 아파트에서 긴급 출동한 경찰특공대와 바리케이트 대치극을 벌이던 13명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5일 저녁 8시30분경 앵글우드 플레이스(Englewood Pl.) 7300블락의 한 아파트에서 모임을 갖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고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누군가가 총을 꺼내 참가자들을 위협하면서 발생했다.

이처럼 험악한 분위기가 이어지자

아파트 주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중 한명이 총을 꺼내 주인을 쏘 죽이겠다고 위협했고 다른 손님들도 아파트를 떠나지 않겠다고 버티던 상태가 지속됐다.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특공대(SWAT)와 경찰 협상팀이 사건 현장 주변에 출동해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등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사건과 관련해 총기를 휘두른 19세 남성을 비롯해 13명을 체포했다.

사건 현장 주변의 식당에서 일하는 한 한인 여성은 “며칠 전에도 바로 인근에 경찰차와 소방차들이 대거 출

동해 뭔가 단속하는 일이 있었다”면서 “밤 10시경에 혼자 퇴근하는데 애난데일이 왜 이 지경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불안감을 내비쳤다.

사건 소식을 접한 또 다른 한 한인 남성은 “사건 당일인 월요일은 정기적으로 문을 닫는 날이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며 놀라는 기색을 보였다.

이 아파트에 산다는 한 주민은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밤새 한숨도 못 잤다”며 사건 당시를 떠올리며 불안해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박광덕 기자〉



In Atlanta

“입양은 최고의 사랑” - 프라미스686 후원모임 열려



가족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교회 성도 및 일반인들과 연결하는 사역을 전개하는 입양전문 사역기관 프라미스686(대표 앤디 쿡)이 3월28일 오후

10시, 입양 후원자 모임을 한인이 운영하는 예식장 패인-콜리에서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프라미스686의 사역의 후원자

들의 모임으로 150여명이 모여 예배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임을 주관한 앨라배마 버펄론 사역개발 디렉터는 “프라미스686은 시편 68:6

의 ‘외로운 자들을 가족과 함께 있게 하신다’는 성경의 말씀을 모토로 가족이 없는 어린이들에게 가족을 연결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미 전국적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약 194,000개의 기관들과 어린이 입양 사역과 관련 교육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프라미스686사역은 라틴계, 아시아인 커뮤니티의 교회들의 입양 사역 참여에도 문이 활짝 열려 있다며 어린이 입양 사역에 한국교회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프라미스686은 입양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입양 전 고려 사항, 입양 연결, 입양 수속, 입양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육, 입양 가족들간의 모임, 후원자 모집 등 입양과 관련된 복합적인 사역을 펼치고 있다.

프라미스686의 입양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홈페이지 (<https://promise686.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날 행사가 열린 패인-콜리(Payne-Corley)는 돌루스 중학교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작년 말 한국인이 인수해 결혼식과 각종 세미나, 돌잔치 등 가족 및 경제, 사회 관련 그룹 행사들이 열리는 곳이다. 패인-콜리 홈페이지: <https://www.paynecorleyhouse.com>.

〈김영철 기자〉

 In San Francisco

독자두고 이중국적자가 감당해야 할 몫

2011년 시행된 한국 국적회복 시행령에 따라 65세 은퇴 노인들이 줄지어 고국으로 돌아간다. 매년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실정이다.

한국에서 국적 회복하는 데 어떤 제한이나 규제도 없다. 한국 정부도 은퇴한 교포들의 국적회복을 환영한다. 이민 역사가 우리보다 긴 유럽 국가들은 일찍부터 시행해온 제도이다.

그렇다고 한국이 살기에 만만하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가난해서 SSI를 받는 노인은 미국에서 사는 게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 미국에서 사는 가난한 노인은 적어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혜택을 누린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기초연금으로는 기본 생활이 되지 않는다.

역이민자들은 한국에 살 집을 장만하고 나면 생활 유지비가 들어간다. 그중에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건강보험료는 재산에 근거하기 때문에 소유한 부동산에 따라서 책정되는 보험료가 만만치 않다. “병원비 무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병원에 갈 때마다 내는 비용도 쏠쏠하다. 기본 치료로 들어가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다. 한국은 물가가 비싸서 식료품 가격이며 외식비, 문화 생활비까지 적지 않은 돈이 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중이나 복수국적이 받는 불이익이다. 미국 교포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인이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서 '모국에 대한 충성심을 완전히 그리고 철저히 포기한다'라

고 선언해야 한다. 양국에서 요구하는 서약서나 선언서의 의미는 동일하다.

한국 국적을 회복할 계획이라면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미국에서 이중국적이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합법도 아니다. 미국 정부는 이중국적을 묵인 내지는 허용은 하되 인정은 하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

에서도 마찬가지다. (전유경저 '이민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2011년 북산책)

미국인들 대부분은 온전한 미국 시민권자다. 그러나 개중에는 불온전한 시민권자도 있다. 이중국적자가 불온전한 미국 시민권자에 속하지만, 그것도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다. 본인이 직접 모국 여권을 발급 받지 않는 한(미성년자) 자신은 온전한 미국 시민권자다. 그러나 본인이 이중국적의 상태를 이용해서 모국 여권을 발급 받는다면 불온전한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불온전한 미국 시민권자이다.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외국 여권을 발급 받아 주었을 때는 불온전한 미국 시민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8세가 되면 본인이 결정해야 한다. 온전한 시민과 불온전한 시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를 게 없다.

일 예로 한국계 미국 여기자 '유나 리', 재미 교포 '로버트 박', 케네스 배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되었을 때 미국 정부가 석방외교를 펼치거나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직접 평양에 가서 풀려나게 한 것은 그들이 온전한 미국 시민권자였기에 가능했다. 만일 그들이 이중국적자였다면 외교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재고했을 것이다. 또 다른 예로는 1997년 대한항공 801편이 괌에

서 추락사고가 났을 때, 대한항공에서 보상금으로 사망자 1인당 2억 5천만 원(20만 달러)씩 지급했다. 이중국적자일 경우 불온전한 미국 시민권자이며 동시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의 없이 받아드려야 한다. 그러나 온전한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미국 법정에서 해결할 수 있고, 미국법에 따라서 보상받았다.

괌 추락사고의 보상금이 한국 법정에서 한국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20만 달러인데, 미국 LA에서 유가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150만 달러였다. 단순히 미국 시민권자와 이중국적자의 차이로 배상금이 7배나 넘게 달리 지급되었다. 역이민을 염두에 둔 사람은 고민해 봐야 할 대목이다.

 In Florida

플로리다 자동차 보험료, 전국에서 가장 비싸

플로리다 주민들은 전국 평균보다 자동차 보험료를 12% 더 많이 지불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MarketWatch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플로리다 주민들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높은 자동차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켓워치의 애널리스트 데이비드 스트라우한(David Straughan)은 “가격은 거의 모든 곳에서 상승했지만 플로리다의 상승이 눈에 띄게 증가

했다”고 말했다. 플로리다의 종합 자동차 보험 평균 보험료는 2023년에 10.1% 증가했다.

플로리다는 현재 자동차 종합 보험료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싼 주(보통 연간 3,244달러)이며, 최소 보험의 경우 연간 약 1,345달러로 가장 비싼 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121% 높은 수치다. 플로리다의 웨스트 팜 비치의 경우, 평균 운전자가 월 244달러, 매년 보험비로 거의 3,000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플로리다는 2022년에는 전체 4위를 차지했으며, 자연재해가 많은 플로리다의 지역적 특성이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이밖에도 플로리다의 2019년 무보험 운전자의 수가 차량 등록수의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보험 차량이 증가하면서 차량 절도도 급증했다.

〈김영철 기자〉



 In Hawaii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탄신 149주년 기념식 개최



3월26일 이승만 초대 대통령 탄신 149주년을 맞아 하와이 동지회(회장 최성근)는 3월23일 오전 9시 한인기독교회 이승만 대통령 동상 앞에서 조출한 기념식을 갖고 초대 대통령 탄신을 축하하고 그의 업적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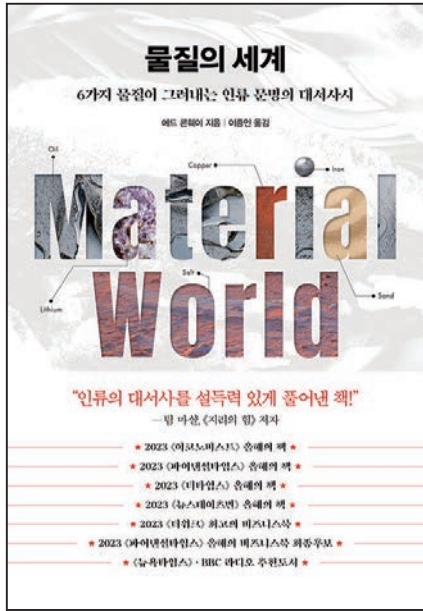
이날 기념식에는 동지회, 건국대통령 이승만기

념재단 김동균 이사장을 비롯한 회원들과 주호놀룰루 총영사관 이서영총영사와 하와이 한인회 서대영회장, 남영돈 이사장, 민주평통하와이협의회 박봉룡회장, 이덕희 하와이이민사연구소장 등 30여명 동포들이 참석했다.

〈김대중 기자〉

물질의 세계

- 6가지 물질이 그려내는 인류 문명의 대서사시



에드 콘웨이, 이종인(옮긴이)
인플루엔셜(주)

모래, 소금, 철, 구리, 석유, 리튬. 이 여섯 가지 물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물질로 암흑기에서 현대의 고도로 발달한 사회로 인간의 세계를 확장시켰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전력을 공급하고, 집과 빌딩을 지으며,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을 만들지만 우리 대부분은 이 물질이 무엇인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영국의 뉴스 채널 '스카이뉴스' 경제전문기자 에드 콘웨이는 취재를 위해 방문한 한 광산에서 자신의 결혼반지에 사용된 금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4톤, 많게는 20톤의 광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작은 물건을 만드는 데에도 이렇게 거대한 양의 자원과 물질이 사용된다면, 정말 중요한 물질은 얼

마나 많은 자원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물질의 세계》는 세상을 바꾸었고, 미래를 만들어 갈 대체 불가능한 6대 물질(모래, 소금, 철, 구리, 석유, 리튬)을 찾아 지구 곳곳의 현장으로 떠나는 취재기이자 인류의 문명과 역사를 찾아가는 탐험기이다. 칠레의 아타카마 소금사막에서 만들어진 리튬은 미국의 기가팩토리 네바다에서 2차전지가 되어 우리에게 닿는다. 영국 로컬린 광산의 모래는 실리콘이 되어 티끌 하나 없는 대만의 TSMC 반도체 공장에서 최첨단의 미래를 그려낸다.

우리는 지식과 정보 같이 보이지 않는 가치가 우선시되고, 석유나 철, 소금과 모래 등 물질적 가치를 찾는 것은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하는 비물질의 세계에 살고 있다.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지식 산업과 서비스 중심의 현대 사회와 인공지능과 로봇 등 첨단 기술이 지배할 미래 사회는 물질을 벗어난 탈물질의 세계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미디어와 인터넷은 에너지와 전력망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나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 이동 수단 역시 콘크리트와 시멘트, 화석연료와 배터리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비물질의 세계는 걸로 드러나지 않는 물질 세계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물질 세계를 이루는 자원은 세계 곳곳에 풍부한 매장량을 자랑한다. 소금과 구리, 리튬의 보고이자 신형 자원 강국 칠레, 칠레와 함께 남아메리카 리튬 삼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 풍부한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철광석의 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까지 오랜 시간 물질을 통해 문명과 역사를 만들어 온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물질이



드리우는 빛과 그림자를 만나게 된다.

우리 제조 기술을 받아들인 나라에서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이 이어지고, 2차 세계대전 역시 유리와 철의 영향을 받았다. 풍부한 광물은 영국을 산업혁명의 시발점으로 만들었다. 제약회사와 화학회사의 공장은 왜 소금 생산지에 위치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물질 세계를 이룬 인류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만날 수 있다.

〈1부 모래〉에서는 가장 오래된 것에서 탄생하는 최첨단의 기술을 담고 있다. 인간이 물질을 중심으로 형성해온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제품인 유리, 현재 가장 고도화된 기술의 집약체인 반도체, 도시의 마천루를 형성하는 콘크리트까지 모두 모래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2부 소금〉에서는 소금길을 따라 발전해온 역사와 문명, 전쟁을 다룬다. 소금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화약을 통해 생명을 앗아가는 데에도 사용된다. 소금이 없다면 식량의 대량생산이 불가능해져 전 세계는 기아에 허덕이고 있을 것이며, 코로나19 백신은 우리에게 접종될 수 없었을 것이다.

〈3부 철〉은 우리를 협력하는 도구적 인간으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철과 강철을 다룬다. 우리는 평생 15톤의 철을 소비하며 살아간다. 에펠탑과 도시의 마천루와 같이 대표적인 건축물부터 산업혁명의 시작이 왜 영국에서 일어났는지까지 암석에서 금속으로 우리 삶을 바꾼 철의 여정을 만난다. 〈4부 구리〉는 우리의 삶과 조금 동떨어져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구리가 만들어낸 전력망을 통해 밤에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고, 지구 곳곳이 연결된 사회를 살아갈 수 있다. 구리는 땅에서만 채굴되지 않는다. 심해 채굴 작업을 통해 새로운 국경이 정의되려 하는 생생한 현장을 만날 수 있다.

〈5부 석유〉는 화석연료의 아이러니를 다루고 있다. 증기기관에서 내연기관으로 효율성을 이

끈 석유는 지구온난화의 시대를 촉발했다.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석유와 가스는 전체 에너지의 5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류는 여전히 화석연료의 시대를 살아가는 중이다. 〈6부 리튬〉은 새로운 대체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2차전지의 핵심 물질인 리튬과 미래의 자원을 다룬다. 칠레 아타카마의 소금사막에서 만들어지는 리튬은 미국 네바다주의 테슬라 기가팩토리를 통해 2차전지로 만들어진다. 콩고에서 채굴되는 막대한 양의 코발트는 비극을 낳기도 한다. 자원을 수탈하고 노동력을 착취했던 기업이 현재 재생에너지기업으로 탈바꿈해 순환 경제를 이끄는 물질 세계의 아이러니를 다시 마주하기도 한다.

이러한 여섯 가지 물질의 존재 여부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물질들이 없었다면 인류는 문명을 이끌고 번영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르네상스와 산업혁명, 1, 2차 세계대전까지 인류사의 중요한 순간에는 물질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앞으로 펼쳐질 미래 역시 물질을 기반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213)385-2400



알라딘서점 LA점
송명국이사



김해원 변호사의 피와 살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치킨, 모찌넛, 빵, 도넛, 커피, 아이스크림, 요거트도 패스트푸드?

때문에 샌드위치나 햄버거의 일부로 빵을 파는 식당 이거나, 식힌 다음에 0.5 파운드 보다 가벼운 머핀, 크로상, 스콘, 롤빵 등을 파는 식당도 예외가 안 된다. 또한 밀가루 에서부터 밀가루 반죽 (dough)을 식당내서 만들어야 예외에 적용된다. 그러나 마켓같은 “그로서리 장소” (grocery establishment)내서 파는 식당은 예외다. 또한 다행히 지난 3월26일 주지사는 패스트푸드 식당의 정의를 수정한 법안 AB610에 서명을 해서 공항, 호텔, 이벤트센터, 테마공원, 박물관 안에 위치한 식당은 AB1228로부터 예외 혜택을 받게 됐다.

그런데 AB1228은 이미 2022년에 다른 이름으로 비슷한 법안 AB257에 캘리포니아주지사가 서명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통과된 법안이 아니다. 캘리포니아주정부는 지난 2022년 주정부가 임명한 위원회에 패스트푸드 업계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한 법안을 통과했었다. 이 법안은 위원회가 시간당 최저 임금을 22달러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했었다. 그리고 AB257은 전국에 100개 이상 체인점을 가진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 종업원들에게만 적용됐었다. 그러나 당시 패스트푸드 업계가 이 법안의 통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 업계는 법원에 시행 중지 가처분 (TRO) 명령을 신청해서 법안 시행에 제동이 걸렸었다. 그런데 당시 한인 요식업계나 프랜차이즈 업계의 목소리는 어디서도 들리지 않았다.

2022년 8월 당시 캘리포니아주 레스토랑협회 측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등의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것을 우려했는데 이미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업계의 TRO에 놀란 주정부는 주류 패스트푸드 업체와 노조 사이의 타협안을 지난해 도출해 내서 법안 AB 1228이 탄생한 것이다. 이 법안은 2024년 4월부터 최저임금을 22달러가 아니라 20달러로 정하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최저임금 연간 인상을 폭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새 법안이 적용되는 체인점 수가 미전국 100개가 아니라 60개로 줄이는 타협안이 지난해 통과되어도 한인 요식업계나 프랜차이즈 업계는 자신들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아무 관심을 안 가졌다.

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표한 ‘2023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외식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는 미국으로 기업 수는 총 41개였다. 매장수

만 최근 2년새 30%가 증가 해서 778개다. 이 가운데 치킨 매장이 440개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이어 제과점, 커피전문점 순이었다. 특히 파리 바게뜨와 뚜레쥬르는 미주지역에서 2030년까지 가맹점 1000호점 오픈을 목표로 매장 수 확장 대결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런 프랜차이즈들이 정작 자기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이 뒤늦게 점주들에게 사후약방문을 돌리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과연 각종 한인 경제단체들은 이런 법안들의 시행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다.

(213)387-1386

haewonkimlaw@gmail.com



Haewon Kim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노동법 포스터

온라인으로 받으세요





ENGLISH



SPANISH

■ 김해원 변호사 무료 배포 ■ 최신 임금·상해·병가 정보

-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은 2024년도 개정된 노동법을 반영한 신규 노동법 포스터를 직접 제작해 PDF파일 형식으로 온라인을 통해 배포합니다.
- 노동법 포스터의 온라인 배부는 이메일(haewonkimlaw@gmail.com)로만 가능합니다.

Tel. (213)387-1386 / Mobile (213)321-1609 / Fax (213)387-1836

e-mail haewonkimlaw@gmail.com / kimmlaw.blogspot.com
LA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문상열 전문기자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의 도박 혐의



'피트 로즈, 배리 본즈, 로저 클레멘스' 메이저리그를 대표한 최다 안타, 홈런, 다승 부문의 최고 기록을 남긴 레전드다. 하지만 이들은 은퇴 10년이 지났어도 야구 '명예의 전당(Hall of Fame)'에 입성하지 못했다. 홈런킹(762개) 본즈와 클레멘스(354승 184패)는 약물 중독 혐의로 미국야구기자단(BBWAA)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본즈는 MVP 7회, 클레멘스는 사이영상 7회를 수상했다. 최다이머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현역 시절 허슬플레이어로 미국인들을 사로잡았던 로즈(82)의 넉네임은 '찰리 허슬'이다. 이벤트 경기나 다름없는 1970년 올스타게임에서 홈에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으로 홈플레이트를 지킨 포수가 나뒀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포수 레이 포스는 로즈의 플레이로 어깨가 탈구와 골절상을 입었다. 포스는 2021년 74세로 사망했다.

로즈의 명예의 전당 미입성은 1989년 바트 지아마티 커미셔너의 야구계 영구 추방 때문이다. 지아마티 후임 버드 실릭, 현 롬 맨프레드 커미셔너는 로즈 본인의 여러 차례 요청과 몇몇 칼럼니스트들의 사면 지원 사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방 상태다.

로즈는 야구에 도박한 사실이 드러났

다. 전 예일대 총장 출신의 지아마티 커미셔너로부터 추방당했다. 공교롭게도 지아마티는 미국인들 마음속의 영웅 로즈를 추방한 뒤 8일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로즈는 커미셔너의 추방 결정이 났을 때도 야구 도박을 부인했다.

그러나 영구추방 후 2004년 자서전 '창살 없는 감옥(My Prison Without Bars)'을 출간하면서 도박 혐의를 인정했다. 책 홍보를 위해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앵커의 질문에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로즈는 선수와 감독으로서 최고의 인기를 자랑했다. 감히 커미셔너가 나를 건드릴 수 없다는 오만함이 묻어 있었다. 교체된 커미셔너들이 2000년대 MLB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한 약물 혐의자를 징계 주지 못했음에도 로즈만큼은 사면을 해주지 않았다. 반성과 참회가 없었고 거짓으로 일관돼 사면의 기회를 받지 못했다.

MLB는 2024시즌이 개막되기 전 LA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29)의 도박 혐의로 시끄럽다. 발단은 지난달 MLB 월드 투어 서울 시리즈 때 터졌다. 친구이자 통역 이페이 미즈하라가 구단으로부터 해고됐다. 도박 불법 자금이 오타니 계좌에서 이체된 게 확인됐다.

오타니는 MLB 현역 최고의 스타다. 이미 두 차례 아메리칸리그 MVP를 만장일치로 받았다. 두 차례 만장일치는 처음이다. 게다가 오프시즌 프리에이전트가 되면서 다저스는 10년 7억 달러

에 사인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연봉으로는 축구의 지구적 스타 리오넬 메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능가한다. 광고 수입을 포함하면 이들이 오타니를 앞선다.

오타니는 다저스타디움에서 "자신은 야구뿐 아니라 스포츠에 어떤 도박도 하지 않았다. 통역이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통역 이페이는 도박에 중독됐다고 선수단과 구단 관계자들에게 밝힌 뒤 곧바로 해고됐다. 사건이 터진 뒤 학력, 경력 등이 위조됐다는 보도가 후속타로 이어지면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페이는 오타니의 계약과 함께 10년을 보장받았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자를 수 없도록 오타니가 보호했다. 연봉도 30만~50만 달러 사이로 알려졌

다. 참고로 해외파 류현진, 김하성, 이정후의 통역 등은 75,000 달러 선이다.

오타니는 MLB와 연방 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열쇠는 이페이의 도박을 알고도 송금을 허락했으면 방조죄로 MLB로부터는 징계, 연방 기관으로는 기소를 당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오타니가 처벌될 확률은 매우 낮다. 오타니의 도박 혐의도 아직은 찾기 어렵다.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들의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만 쏟아지고 있다.

MLB의 징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1993년 마이클 조던이 시카고 볼스를 3차례 우승시키고 1차 은퇴할 무렵 도박 혐의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NBA는 어떤 조사도 하지 않았다. 많은 전문가들은 조던의 1차 은퇴는 도박 혐의

를 덮으려는 시도였다고 주장한다. 조던은 1995년 은퇴를 번복하고 복귀해 3차례 더 볼스를 우승시키고 '농구 황제'로 남았다.

메이저리그뿐 아니라 미국 스포츠는 도박에 매우 민감하다. 불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이유는 1919년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월드시리즈에서 약체인 신시내티 레즈에게 져주기 경기를 벌인 블랙삭스 스캔들의 원죄에서 비롯된다. 미 스포츠에 처음으로 커미셔너 제도를 도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연방판사 출신 케네스 마운틴 랜디스가 최초의 커미셔너로 블랙삭스 혐의자들을 영구 추방했다. 1920년의 일이다.

moonsytexas@hotmail.com

충북제천에서 온 동강청정 다슬기

자연산 다슬기 원액 100% 국내산 다슬기 72시간 추출

건강식품 — 장수만세 213.559.7800

파우치형(33ml)_1회분

자연산 다슬기 원액 100% 국내산 다슬기 72시간 추출

간 건강엔 동강청정 다슬기 기름

건강식품 — 장수만세 213.559.7800

자연산 다슬기 원액 100% 국내산 다슬기 72시간 추출

다슬기 효능

간기능 회복 위장, 빈혈 관절염

건강식품 — 장수만세 213.559.7800

송영 특크 설렁탕

- 표고 우거지 해장국 • 통큰 설렁탕 • 섞어 설렁탕 • 해장국
- 북어국 • 갈비탕 • 육계장 • 도가니탕 • 쇠고기 수육

송영 신메뉴

특 해장국
(양, 순대)

화요일
1+1 스페셜
TOGO ONLY

[갈비탕 or 도가니탕 주문시
해장국 FREE]

\$19³⁵
+ Tax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의 맛!

다슬기 된장 판매합니다.

설렁탕 한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특 해장국 (순대)



특 해장국 (양)



213.277.1339



딜리버리
합니다.

주 7일 오픈합니다
7:00AM ~ 10:00PM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 [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HEOYONGBYUL

LIVE IN LA



신용재

그룹 '포맨' 멤버

2008년 포맨 앨범 [FIRST KISS]
시크릿 가든 OST PART.3 - 이유
2016년 MBC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 출연

허각

슈퍼스타K2 우승자

2010년 MNET [슈퍼스타K 2]
2011년~ KBS2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2012년 MBC [아이리! 짧은 다리의 역습] 출연
2013년 TVN [히든싱어 2] 3990 임창정

임한별

전 '먼데이키즈' 멤버

2008년~2009년 에이스타일 멤버
2010년~2014년 먼데이키즈 멤버

4월 13일 토요일 DOOR OPEN 5PM
6PM

[THE WILTERN] 379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FLOOR 1-2	VIP TICKET	FLOOR 3-5	LOGE	MEZZANINE	MEZZANINE
	\$258	\$228	\$188	\$153.5	\$110
+ 가수들과 기념 촬영					

예매처를 통해 티켓을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비트보끼 30%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예매처

OFFICE **3700 WILSHIRE BLVD #1080, LA, CA, 90010**
BITBOKKI **301 S WESTERN AVE SUITE 102, LA, CA 90020**

티켓 문의

☎ **425-535-0135** ✉ **HQ@GRANDYENT.CO**



5세대 걸그룹 출격



그룹 아일릿(ILLIT)이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진행된 미니 1집 '슈퍼 리얼 미(SUPER REAL ME)' 발매 기념 및 데뷔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벚꽃이 찾아온 여의도



2024 여의도 봄꽃축제를 이틀 앞둔 27일 축제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윤중로에는 아직 벚꽃이 개화하지 않았으나, 인근 강변 산책로에 하얀 벚꽃이 피어나기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근혜 만난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서 박 전 대통령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불가'리사'



그룹 블랙핑크(BLACK PINK) 리사가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진행된 '불가리 스튜디오' 포토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융자전문

융자외길 33년, **브라이언** 주의
경험과 완벽한 일 처리, 꼼꼼한 마무리,
그리고 **헤일리 홍**에게 맡겨주세요

● 주택 2차 융자

- 현재 저렴한 융자 유지하며 집 가격의 75%까지 융자 가능
- 세금 보고 필요 없음 (직장인, 자영업)
- 이자 8% 후반 30년 고정

● EASY DOC

- 25-30 % DOWN 7.5%부터 시작
- 재직증명만으로 융자 가능
- 12Mons Bank Statements 만으로 융자 가능

● Merchant Credit Card Loan

- 크레딧 카드 매출이 매달 \$50,000 이상이면 가능
- Credit Score 580점 이상/
- 2-3일 만에 Funding 가능
- NO FEE

○ 30년 고정 6.25% 부터

- ✓ 최저이자 서비스
- ✓ 신속 친절 융자
- ✓ NO Cost 융자
- ✓ 개인별 맞춤 융자



브라이언 주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편에서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BrianJoo@aol.com

Brian Joo
NMLS #335934

213.219.9988

한국일보경제면 전문가칼럼게재중



헤일리 홍이 여러분의 꿈을 위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Hailey Hong
NMLS #2389535

714.253.2937

leewayfunding4@gmail.com

Leeway
FUNDING

3600 Wilshire Bl. Ste 410, LA, CA 90010

부모 형제도, 내 영혼도 팔아야 생존하는 투자의 섭리 <마진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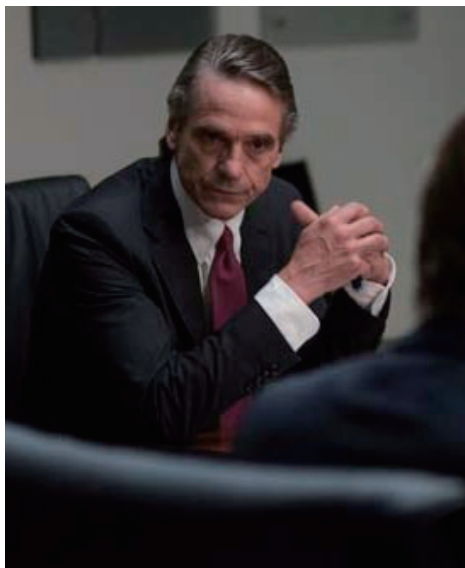


긴급 이사회가 소집됩니다. 자 이제 이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아니 이들은 어떻게 이 위기에서 빠져나오게 될까요. 이들의 살고자 하는 개인의 영리와 기업의 영리가 과연 어떤 사회적 파장을 가져오게 될까요.

영화 <마진콜>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금융파산을 다루고 있지만, 금융위기의 원인과 그 결과를 다루는 다큐멘타리가 아닙니다. 위기속에 처한 개인과 투자 기업, 월 스트리트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가 그들의 직업 윤리와 도덕성에 더욱 초점을 맞추지요. 내일이면 휴지조각이 될 증서를 오전 안에 모두 매각해야 한다, 소문이 나기 전에 무조건 팔아서 재빨리 현금화 시켜야 하는데, 모든 은행에, 모든 투자자들에게, 심지어 본인들의 엄마에게 전화해서 산다고 하면 모두 팔라고 까지 합니다.

줄줄이 연쇄 부도가 불보듯 뻔 한데, 우리만 일단 살아 남자는 이 논리의 회장 이 직원들에게 당당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당신이 희생하겠는가? 당장 당신에게 닥친 위험을 팔아치우는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으면 그 파산의 불덩이를 당신이 안을 것인가. 이런 위험과 동시에 주식을 팔아 치우는 목표량을 채우면 보너스까지 지급하겠다는 달콤 씁스름한 유혹에 월스트리트의 직원들의 손은 당연히 전화기로 향합니다. 불과 8시간 후면 휴지조각이 될 그 주식들을 팔아 처분하기 시작합니다.

영화 <마진콜>에서 과연 이 방법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인물은 많지 않습니다. 패닉상태에서 어떻게든 피해를 보지 않고 탈출하려고 하는 가운데, 케빈 스페이시가 연기한 샘



은 잠시 주저하며 사표를 내려고 걱정만 안물입니다. 마치 마지막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낀다는 듯한 샘에게 제레미 아이언스가 연기하는 회장은 월스트리트의 금융자본의 민낯을 대조적으로 극화해서 보여줍니다. 그가 아침 4시에 회사로 도착할 때 타고온 전용 헬기는 2008년 서프라이머 모기지 국회 청문회때 골드만 삭스나 리만 브라더스 회장들이 전용 헬기를 타고 멋지게 등장한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 휴지조각을 거짓으로 매수하는 전화를 돌리는 아수라장 속에서 VIP 라운지에서 스테이크를 혼자서 여유롭게 썰고 있는 제레미 아이언스가 나이프로 써는 그 스테이크 조각이 과연 비프일지 끔찍한 상상까지 하게 됩니다. <마진콜>은 리만 브라더스의 금융 위기 당시에 골드만 삭스와 함께 위기인 줄 알면서도 매각을 시켰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지만, 철저하게 탐욕의 인사이드, 즉 월스

트리트 내부의 이야기로 한정하고 있지, 그 당시 피해를 봤던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영화에서 전혀 비추고 있지 않음으로써 싸구려 동정이 아닌 자본주의의 잔인함을 온전히 조명하는데 극적인 효과를 거둡니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따위나 어중간한 피해자적 휴머니즘 따위는 잊어버리게 잔인한 투자를 잔인함으로 표현한 <마진콜>은 넷플릭스나 유튜브, 훌루 등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626)827-9599

symoonmoneytalk@gmail.com



문선영 재정 전문가

- <문선영의 머니토크> 유튜브
- 영화평론가A 출신의 11년 차 재정전문가.
- 넘버만이 아닌 인문학으로 풀어내는 돈의 세계라는 분야의 전문가.

재정상담 누구에게 맡기시나요?

실력/ 신뢰/ 경험을 바탕으로
만족도 1위 재정전문가 **문선영**이 있습니다.

생명보험/ 은퇴연금/ 리빙베네핏/401K 롤오버/ 학자금/ 절세플랜/상속



YouTube **문선영의 머니토크**

라디오서울 문선영의 머니토크
미국최초/미국최고, 미국유일의 재정방송
라디오문선영의 머니토크(라디오서울 AM1650)
토요일 오후 4시/ 일요일 오후 4시

Finance & Marketing **WISECALIFORNIA** 626-827-9599 3435 Wilshire Blvd., 14FL A04, Los Angeles, CA 90010
6 Centerpointe Dr., Suite 737, La Palma, CA 90623

다음 한의원의 생로병사 장의 건강과 잘 싸는 인생



고기연
원장

속편한 세상. 속시원한 라이프를 살자~
잘먹고, 잘자고, 잘싸는 삶이 건강한 삶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잘싸는 이야기를 같이 나눠봐요~
'잘싸다'의 정의부터 내려볼까요?! 하루에 한번씩
혹은 아주 규칙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해진 시
간에 배변을 꾸준히 하고 있고, 배변 후에 잔변감이
없이 상쾌하다면 '잘싸고' 있는 겁니다.
잘싸지 못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장 질환들은 무엇
이 있는지 찾아볼까요?!

첫 번째 질환은 변비입니다. 변비는 대장의 연동 운
동이 저하되어 원활한 배변 운동을 하지 못하는 질
환을 의미합니다. 배변이 일주일에 2회 미만이거나,
배변 시에 굳은 변이 나오거나 잔변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민성장증후군입니다. 과민성이라는
말 그대로 대장과 소장이에민해져서 생기는 거지요.
대변이 찰흙처럼 점성이 있고, 잔변감이 동반되면서
가스가 차고요. 소장에서 제대로 소화흡수가 되지
않은 음식물이 대장으로 들어와서 대장내세균과 상호
작용으로 좋지 않은 가스가 과다하게 만들어지
고, 대장내점액분비나 수분흡수에 문제가 생기면서
대변이 찰흙처럼 점성을 띄게 되고, 보고 나서도 시원
한 느낌이 없이 잔변감이 들게 됩니다.

대장내시경이나 CT촬영, 피검사 등에서 이상소견
이 보이지 않으면서 만성적인 기능장애가 있을 때 과
민성장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장누수증후군입니다. 장 내벽은 소화관
에서 혈류로 들어갈 수 있는 물질을 결정하고, 단단
한 접합부라고 불리는 장벽의 작은 틈은 물과 영양
분은 통과시키지만 유해 물질은 차단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식습관 등의 이유로 장벽의 단단한 접합부가
느슨해지면 장의 투과성이 높아져서 박테리아와 독
소가 장에서 혈류로 통과할 수 있게 되는데 이 현상
을 일반적으로 장누수증후군 (leaky gut syndrome)
이라고 합니다. 장이 새서 세균이나 세균의 부산물,
곰팡이, 소화가 안 된 음식물 등이 혈류로 유입되면
장관 내독소혈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
몸의 대식세포에서 인지하여 각종 염증반응 및 면역
반응을 초래하며 여러 염증성 질환을 일으키거나 기
존의 질환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장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패스트
푸드, 과도한 당분 섭취, 항생제 남용, 잦은 음주와 야

식, 수분 부족, 스트레스,
잦은 밀가루 음식(글루
텐) 섭취 등을 얘기합니
다. 대표적인 증상은 변
비 또는 설사, 복부 팽만
및 더부룩함 등이고, 장
누수증후군은 거기에
더해 만성피로, 두통, 섬유근육통, 관절염, 피부 건조
림과 알러지 (꽃물, 재채기) 등이 더 나타나게 됩니다.
장 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하려면 먼저 식생활을 개
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섬유질 섭취를 늘린다. 섬유소는 유익한 장내 미
생물군집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섬
유소는 통곡물, 야채, 과일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둘째, 설탕 섭취를 줄인다. 설탕이 많이 들어 있는 음식
은 장벽 상피 세포의 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
로 알려졌습니다.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식으로 과자,
커피믹스, 소다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셋째, 염증 유발 음식의 섭취를 줄인다. 염증과 장 질환
들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기
류, 유제품, 밀가루 음식, 튀김 음식, 가공식품 등과 같
은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넷째, 몸에 좋은 영양 보충제를 섭취하자. 비타민
B, C, D와 아연, 마그네슘,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영양제를 잘 섭취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영양
소가 부족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증상들만 없는데 그치지 않고 신
체의 열증과 한증, 기혈의 허와 실을 분별해서 증상
뿐만 아니라 원인을 치료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랜 역
사와 경험을 통하여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연
구 논문들이 밝혀낸 효능들을 근거로 한 한약과 침
술 등으로 치료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
께서 잘먹고, 잘자고, 잘싸는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다음 한의원은 우리 몸의 기초이고 근원이 되는 몸
의 중심 척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척추의 건강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노
력합니다.

▲ 657-325-4000
naumacupuncture@gmail.com

NHS 건강 정보 비만 척결! 인슐린 저항성 이해



스티브 조
NHS GOLD R&D Inc
대표 뉴트리셔니스트

보다 젊고 건강한 라이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염원
일 것이다. 본 칼럼은 뉴트리셔니스트 스티브 조의 올바른 건강 영양
정보를 통하여 새로운 건강 지표를 세우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지난호에서 비만과 염증에 대하여 소개하였는
데 이어서 비만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되는 호르
몬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를 대처하는 나만의 방
법을 정립한다.

인슐린은 현대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 이상
들어보는 우리 몸의 건강과 관련된 단어이다. 특
히 당뇨병을 걱정하거나 치료에 있는 사람은 당
연히 이 단어에 익숙하다. 또한 인슐린은 비만
으로 고민하는 사람 또는 체중 감량을 하고 있
는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는 단어이다. 아울러
인슐린 (Insulin) 을 이해하고 추가로 글루카곤
(Glucagon)과 염증 (Inflammation)을 이해한다
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음식
을 섭취하여 만들어진 포도당을 세포에 넣는 일
을 한다. 때문에 저장 호르몬이라고 불려지
기도 한다. 이렇게 세포에 실린 포도당이 에너지로
전환되어 소진되는데 세포가 내성이 생겨서 인
슐린의 작용을 떨어뜨리면 혈당의 수치는 올라
가고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비만과 당뇨
로 이어지게 된다.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 (Insulin
Resistance) 이라고 한다.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이 되고 축적된
지방 안에서 염증이 만들어지면서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과 면역력 저하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반면 글루카곤이란 호르몬은 인슐린과 같이 췌
장에서 분비된다. 이 호르몬은 인슐린이 분비가
안될 때 분비되는데 저장된 지방을 분해하여 에
너지로 사용되는 혈당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따
라서 글루카곤의 분비가 인슐린보다 더 분비가
되면 쌓인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살이 빠지게 된다.

글루카곤이 분비되는 원리는 간단하다. 인슐린
이 분비되지 않으면
글루카곤이 분비 된
다. 우리 몸은 체내의
혈당을 유지하여 적절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인슐린은 음식이 섭취되어 분
해되는 과정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음식을 섭취
하지 않는 상황에서 혈당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췌장은 글루카곤을 분비하여 쌓인 지방을 분해
하여 혈당으로 전화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체내에 쌓인 지방이 분해가 되면 지방 내
의 염증도 노출되어 면역세포에 의해 사멸하게
되고 혈관 및 대사가 원활해진다.

이 원리를 이해하여 생활에 대입하면, 무엇보다
최대한 인슐린 분비가 적게 되는 것이 비만을 벗
어나는 길임을 알 수 있다. 인슐린 분비를 알맞
게 분비하기 위해서는 첫째 음식을 섭취할 때는
포만감 있게 충분히 하고 그 횟수를 줄이는 것
이다. 먼저는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을까보다는
하루에 몇 끼를 섭취하는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군것질, 간식, 야식도 인슐린 분비가 일어
나서 섭취 횟수에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는 적절한 에너지 소비이다. 여기에는 운동
도 포함되는데 운동량은 과체중 비율과 비만 배
로 해야 한다. 즉, 비만 정도가 높을수록 운동량
은 적어야 한다. 에너지 소비가 과하게 되면 극도
의 식욕을 불러오게 되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
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로 살은 빠지게 되는데 적절한 시점에
고지방 저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구성하는 것
과 안전한 천연 다이어트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
은 좀더 빠른 목표 도달을 유도할 수 있다.

▲ 213-905-0439
iswjo@yahoo.com

LA 윌튼극장에서 허.용.별 콘서트를 4월13일(토) 오후6시에 개최

그랜드엔터테인먼트 (대표 앤디박)에서 주관, 주최하는 허용별콘서트가 LA 윌튼극장에서 오는 4월13일 토요일 오후6시에 개최한다.

허각, 신용재, 임한별이 프로젝트 그룹으로 뭉친 이번 콘서트는 한국에 이미 전국투어를 통해 전공 연 만석이라는 놀라운 기염을 토하며 남녀노소, 젊은층이나 노년층이나 모두에게 사랑받는 주목 받는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다.

허각의 "허", 신용재의 "용", 임한별의 "별" 을 따서 허용별이라고 지은 이름은 임한별의 주도하에 성사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룹의 제일 만형인 허각은 슈퍼스타K2의 우승자로서 알려져 있고, 신용재는 그룹 포맨의 멤버이며, 유민수와 불후의 명곡에 출연하여 인연이라는 듀엣곡으로 단기 최다조회수를 기록하며 더욱 알려졌고, 임한별은 먼데이키즈의 멤버로서 만능엔터테이너로 알려져 있다.

이번 윌튼극장에서 열리는 허용별 콘서트는 극적으로 계약이 성사되어 교민사회에 문화예술의 격을 한층 높이고자 그랜드에서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콘서트의 메인스폰

서인 비트보기는 VMS (Vehicle Mining System) 으로 알려진 앤디박대표가 오토로 있는 웨스트와 3가에 위치한 포차로서, 라면을 먹으며 비트코인을 준다는 타이틀로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비트보기는 내부에 전체출에서 즐길수 있는 가라오케 시설이 되어 있어서 이미 엔터테인먼트의 속성을 가미하여 LA에서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번 콘서트 티켓을 예매처로부터 예매하는 모든 분들께 30%의 전메뉴 비트보기 할인쿠폰을 선사하고 있다.

이번에 신생 엔터테인먼트로서 세번째 공연을 하게된 앤디박대표는 첫번째, 시애틀에서 열렸던 도끼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고, 두번째로는 이벨극장에서 열렸던 신춘맛이 포크송 콘서트를 만석에 가까운 기염을 토하며 성황리에 마쳤으며, 그 기세를 몰아 이번에 세번째 콘서트를 4월13일 토요일 윌튼극장에서 오후6시에 허용별 콘서트를 열게 되었다.

문의 (425-535-0135)





RADIOSEOUL
www.Radioseoul1650.com

2024 라디오 서울 주최 어버이날 효도큰잔치!

효도큰잔치

어버이날을 맞아 초대가수 **전영록**과 함께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젊음 오빠 전영록과 함께 공연도 즐기시고
푸짐한 선물도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플러튼 은혜한인교회에서 뵙겠습니다!

• **일시 : 2024년 5월 1일(수)**
오전 10:00

• **장소 : 은혜한인교회**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초대가수 : 전영록



주최



RADIOSEOUL
www.Radioseoul1650.com

협찬



KACCOC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OF ORANGE COUNTY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



홈쇼핑월드
HOME SHOPPING WORLD



Clever Care
HEALTH PLAN



Bank of Hope®

45년 경력 중화요리 최강달인 케니 류가 직접 관장하는 최고의 정통 중식당 복해루



진행자님: 정통 중국식 메뉴 장안의 화제... 타운내 새로운 맛집 부상 대표메뉴는 황제 짬뽕\$18.95, 간풍 새우 \$19.95, 황제 요리 '노란 부추 잡채' 단 \$25.95, 청파 소고기 \$26.95, 양장피 \$29.95, 팔보채\$34.95, 유산슬\$34.95 등 산해진미의 일품요리 즐비. '맛+가격 저렴+푸짐한 양'으로 차별화 '단골 중식당' 사랑 듬뿍.

매니저님: 짬뽕과 짜장면은 주문후에 즉석 요리로 유명한 복해루, 옛날 짜장은 15분이상 춘장을 오래 기름에 볶아 야구수하고 짜지 않고 조미료를 많이 가미안해도 되어 옛날 맛이 그대로 전해지며 재맛이 납니다.

진행자님: 깊은 짜장면 맛으로 타운 내 한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중식당 복해루 LA(대표 정영운)가 타운 내 맛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복해루는 짜장면, 짬뽕을 비롯해 정통 중국식 메뉴로 미식이 고수 한인들 사이에 알려진 유명 맛집입니다. 정통 중국식 메뉴 중 스페셜한 짬뽕으로 한인들의 입맛을 잡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특별한 짬뽕은 황제 짬뽕이다. 황제 짬뽕에는 바다의 보약이라는 해삼, 홍합, 키조개살, 백합조개, 황금 바지락조개, 오징어, 새우 등 7가지의 해산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삼은 체내 혈전을 제거하고 혈액의 응고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고, 연골에 영양을 공급하고 가해지는 물리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유액이 연골에 머물도록 돕습니다. 세포 조직을 재생하는 효능이 뛰어나다 보니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

해삼에 들어 있는 판토텐산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항알레르기, 항염 작용 등 해독 작용을 합니다.

백합조개는 타우린 아미노산을 많이 갖고 있어 간 기능 개선과 숙취 해소에 효능이 있습니다. 타우린과 함께 베타인도 함유하고 있어 알코올 성분 분해를 도와줍니다. 백합에 들어 있는 아미노산은 담즙산과 만나서 간 기능을 활성화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해 간 질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황금 바지락조개는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고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주는 해산물이다. 바지락에 있는 아연과 철분은 꾸준히 섭취하면 빈혈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진행자님: 그럼 가격이 7가지 해산물이 첨가는 황제 짬뽕은 18.95달러에 맛을 볼 수 있습니

다. 복해루LA는 중식당에 대한 기존 선입견을 깨고 차별화된 맛으로 승부하고 있다는 평을 받게 된 배경에는 복해루LA의 주방장인 45년 중화 요리 경력의 케니 류(Ken Liu) 셰프가 있습니다.

인위적인 향을 내기 위한 향신료 사용이 아닌 야채와 해물을 센 불에 볶아내어 전통 중식의 불맛을 그대로 살리고 있는 곳이다. 짬뽕 역시 불맛이 깊고 얼큰한 국물 맛과 식감 좋은 면으로 한번 먹어본 한인들은 다시 찾는 경우가 많다는 후문입니다.

정영운 대표는 "한인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맛집 중식당이 되도록 다양한 메뉴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복해루LA에서만 맛 볼 수 있는 스페셜 황제 짬뽕으로 환절기 한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겠다"고 자부합니다.

매니저님: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4th 애비뉴, 복해루 LA의 대표 메뉴는 노란 부추 잡채다. 28.59달러에 고소하고 감칠맛 나는 영양만점 부추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잡채로란 부추는 중국 황제에게 진상되었다는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신선한 해산물과 야채가 한데 어우러진 일품 요리인 팔보채는 34.95달러, 육류와 해산물을 골고루 넣어 국물과 녹말에 졸여낸 고급 중화 요리인 유산슬은 34.95달러에 판매합니다.

각종 채소와 해산물을 넣고 매콤한 겨자향으

로 입맛을 돋우는 양장피\$29.95도 빼놓을 수 없다. 한인들의 술안주에 빠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영양 만점 식사 대응으로 안심맞춤입니다. 복해루 LA의 양장피는 29.95달러이며 성인 2~3명이 함께 먹어도 충분한 양을 자랑합니다.

진행님: 얼큰하고 매콤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 불맛이 가미된 야채와 해산물을 듬뿍 넣은 짬뽕은 한번 먹으면 다른 식당에 갈 수 없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이밖에 복해루 LA에선 일반 중식당에서는 볼 수 없는 번데기탕, 조개탕, 뼈없는 닭발 등 특별한 요리들도 즐길 수 있습니다.

복해루 LA의 모든 요리는 야채와 해물을 센 불에 볶아내어 전통 중식의 불맛을 그대로 살리는데 주력한다. 복해루는 향신료를 쓰지 않고 차별화된 맛과 서비스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식사와 함께 맛은 물론이고 저렴한 가격과 푸짐한 양으로 차별화를 둔 복해루는 단연 한인들의 단골 중식당으로 한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복해루 LA는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4가 애비뉴 한미은행 건너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1시-저녁 9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323)730-1890

3636 W. Olympic Blvd., #B, LA.

8가와 세라노, 확장 이전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홈쇼핑 월드"

품질 좋은 한국산 제품을 사려는 소비자, 미국으로 시장을 확장시키려는 한국 업체, 그 중심에 '홈쇼핑 월드'가 있다.

고객 경험 중심 경영을 해온 홈쇼핑 월드 립 김 대표는 한인사회 소매업계 변화의 선두에 서있다. 홈쇼핑 플러스로 시작해 2013년부터 홈쇼핑월드로 운영하며 제품 선별, 마케팅, 고객 서비스 전체를 진두 지휘한다. 직접 한국 본사에서 제품을 수입, 미주 한인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중간 단계가 없다. 한국과 미주지역 가격 차이를 최소화했다. 가격 경쟁은 따라올 상대가 없다. 김대표는 "팬데믹을 지나며 홈쇼핑월드는 고객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말한다. 초기에는 한인 고객이 100%였지만 지금은 70%로 감소, 대신 아시아인 15%, 히스패닉 15%로 타인종 고객이 늘었다.

김 대표는 한인사회 쇼핑업체라는 틀을 넘어서는 단계에 있다. 향후 역으로 미국 제품을 한국시장에 판매할 계획이다. 또한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을 구축해 스스로 시장의 경계를 허물었다. 팬데믹 전 20%였던 온라인 판매는 지금 50%까지 치고 올라왔다. 3~4년 안에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김 대표는 "e커머스를 가속화하지

않으면 1~2년 후 성장이 멈출 수 있다"며 "올해까지 해마다 15%이상씩 성장했고 올해 매출목표는 2,000만달러다"고 밝혔다.

2007년 김 대표는 미국 현지 홈쇼핑 업체를 인수한 후 홈쇼핑 플러스로 바꾸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2011년부터는 홈쇼핑월드로 이름을 바꿨다. 홈쇼핑월드로서 판매하는 제품은 어림잡아 4,000개 이상. 이중 주력 상품은 400~500개. 회사 성장의 원동력은 베스트셀러 제품을 지속적으로 찾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김대표의 목표는 20~30대 소비자층을 흡수하는 것이다. 승무원 필수품으로 알려진 차홍고데기 같이 한국에서 인기 상승 중인 제품을 들여와 고품질 제품을 늘려가자 20~30대층 고객도 함께 늘었다. 2~3년 전 거의 없었던 젊은층 고객이 지금은 20~25%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경영 핵심은 직원과 광고다. 아버지 친구였던 광동제약 최수부 회장은 매해 직원 연봉을 인상하라고 말했다. 직원들에게 잘하면 매출은 올라간다는 것이다. 또한 광고 마케팅 중요성을 높이 평가한다. 모바일 시대 애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되면서 미전역에서 라디오 방송을 듣는 시대다. 김대표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광고 방송을



하면 뉴욕부터 알래스카, 하와이 등 미 전역에서 주문이 밀려들어온다.

이런 마케팅 전략과 더불어 전세계 마사지 체어 판매 1위 바디프랜드 미주 지사와 손을 잡고 신개념의 로봇 마사지 체어 '팰컨' (Falcon)의 캘리포니아, 네바다 독점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다. 김 대표는 바디프랜드 마사지 체어를 홈쇼핑월드 확장 이전 기념으로 4,490달러에 판매하며 남가주 마사지 체어 판매에 한 획을 그었다.

이제 홈쇼핑월드는 한 단계 더 도약한다. 더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제품을 쇼핑할 수 있도록 확장이전을 한다. 구 아씨마켓 자리(8가와 세라노)에 새로 들어선 로아아파트 1층으로 자리를 옮긴다. 기존의 홈쇼핑월드 자리보다 훨씬 넓은 장소(12,000 sf)에서 소비자를 맞이한다.

확장 이전한 홈쇼핑월드는 대한민국 8도 농수산물 특판점을 유치하고 인증 받은 한국 지자체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양질의 홈쇼핑월드 제품 뿐만 아니라 365일 한국 지자체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김 대표는 건강이 안정적인 비즈니스

운영의 기반이라고 말한다. 매일 10시간 일하면서 2시간은 한국 홈쇼핑업계를 분석한다. 이를 통한 창의적인 마케팅은 터프하다는 한인사회 소비자 마음을 움직였다.

주말에 매장 정문 앞에서 인사하고 물건 싣는 김 대표는 "고객 친절, 직원 복지 최선, 건실한 운영이 비즈니스 모토다"고 말했다.

LA 올림픽 (213)380-3330
OC 부에나파크 (714)522-2494/2496
www.hswus.com

동강청정 다슬기로 ‘간 건강’ 잡으세요!

▶ 100% 자연산 사용·간 기능 회복에 효능

한인들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것을 모토로 내세우고 있는 ‘건강식품 장수만세’ (대표 프레드 한)가 한국산 ‘다슬기 기름’을 출시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수만세 프레드 한 대표는 “깊은 산골, 물 맑은 곳에서 서식하는 다슬기는 간에 좋다는 것은 **동의보감에도 나와 민간요법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며 “서제천영농조합이 **100% 자연산 다슬기**를 위생적인 최신 설비를 활용해 추출한 다슬기 기름, 정확히 말하면 다슬기 엑기스 제품”이라고 말했다.

최신 설비라고는 하지만 제조 방법은 전통 다슬기 기름 제조 방식을 따라 **황토 용기에서 72시간 동안** 고열을 가해 만들어 낸다고 한 대표는 덧붙였다.

다슬기는 저지방, 고단백 식자재로 작지만 각종 필수 **아미노산과 칼슘, 철분**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 특히 다슬기는 **타우린 함량이 높아 간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민물의 웅담**’이라고 불릴 정도다. **타우린은 담즙 분비를 촉진해 간 기능을 원활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간에서 숙취 원인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빠르게 분해되도록 도와 숙취 해소에도 탁월하다. 해장국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은 것도 다슬기에 풍부한 타우린 덕분이다.

다슬기에는 **마그네슘과 미네랄이 풍부해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준다.** 클로로필 성분은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장 속의 유해 물질을 배출해줌으로써 **장 기능 개선에 효능이 있다.**

빈혈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이는 **다슬기의 철분** 때문이다. 철분은 혈액을 통한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어 **빈혈 개선에 도움**을 준다.

다슬기는 혈관 건강에도 효능이 있다. **엽록소 성분이 식물보다 10배나 더 많은 다슬기**는 혈관 내 노폐물의 배출을 도와 주고 **콜레스테롤을 분해, 제거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



아미노산과 칼슘이 풍부한 다슬기는 뼈 건강에도 좋다. 성장기 어린이들의 골격 형성을 돕고 골밀도를 높여 **골다공증에도 효과적**이다.

비타민A가 많은 다슬기는 눈이 충혈되거나 눈 통증을 다스려 시력을 보호하고 눈의 피로를 풀어주어 **눈 건강에도 효능이 있다.**

문의전화 : 213-559-7800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해 그리운 마음을 달래주는
밥 한 끼 먹으러 **웨스턴 도마 칼국수**로 간다



은대구 조림

양념장으로 감칠맛을 더해
다른 반찬이 필요없는 맛

닭볶음탕

매콤하고 칼칼한 양념 국물과
신선한 닭의 환상의 맛



해물파전

신선한 해물과 야채를
들쭉 넣어 풍부한 맛



아귀찜

부드러운 아귀와 콩나물,
미더덕의 환상의 만남



갈비구이

달콤한 간장 베이스 양념과
부드러운 갈비 살



비빔밥



삼계탕



열무국수



떡볶기 불고기



떡만두국

웨스턴 도마 칼국수 Tel. (323) 871.1955

Western Doma Noodles

TOGO 가능 합니다.

영업시간: 10 am ~ 10 pm
(7 Days Open)

429 N. Western Ave, #10
Los Angeles, CA 90004

Rosewood Ave



도마 칼국수
Beverly Blvd

Western Ave



김준철

- 월간 문화예술전문지 『쿨투라』 미주지사장
-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장 역임
- 『시대문학』 시부문 신인상
- 『쿨투라』 미술평론 신인상 수상
- 쿨투라 해외문화상 수상
- 비영리문화예술재단 『나무달』 대표
- 시집 『꽃의 깃털은 눈이부시다』
- 『바람은 새의 기억을 읽는다』
- 『슬픔의 모서리는 뭉뚱하다』
- 전자시집 『달고 쓰고 맵고 짭』



탈옥

김준철

그때
마을마다 작은 불빛들이
잠입해 오고 있었다

창문마다
꽃처럼 불빛이 피어날 무렵
그 향기에
사람들은 눈이 멀어
……길을 잃고
유독
내 창가의 어둠만이 짙어지고 있었다

자꾸만
자꾸만 불면의 밤, 어둠이
한 움큼씩 파여 나갔지만
어둠 속에 불빛이 보이고

불빛 속에 어둠은 보였지만
내 방 창가에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쫓겨온 어둠들이 다시 쌓이곤 했다

그리고
내 시선이 창가를 넘어섰을 때
시선은 길을 잃고,
날개를 잃고,
눈물을 잃고도 돌아오지 않았다

꽃처럼 불빛들이 시들어 갈 때까지
어둠기만 했다

약자지꼴 들썩이는 세상이다.
격렬하게 바둥거리며 위태롭게 떠 있는 세상 같다.
우린 수없이 많은 부질없는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잊고 잃고 지우고 버리며 또 꿈을 꾸다.
화려한 세상, 분주한 세상에서 동떨어진 섬 마냥 세상을 마주할 때,
곧 꺼질 불빛처럼 우리의 희망은 시들어가는 꽃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 깊은 어둠 속으로의 탈옥을 꿈꾼다.

"메디케어 가입 페널티 요주의"

"소셜연금, Extra Help,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상담 및 신청"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셜 연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 는 메디케어 택스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메디케어 택스크레딧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달 3개월 전후로 가입해야 한다.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년 10% 벌금

□파트 A 프리미엄과 페널티

메디케어 택스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택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 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 동안 월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크레딧점수	1 점 ~ 29 점	30 점 ~ 39 점
매월 프리미엄	\$ 505	\$ 278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파트 B 프리미엄과 페널티
파트 B 보험료는 2023년 현재 174.70 달러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달 3개월 전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65세 생일 달 3개월 전후로 가입해야

□파트 D 페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달 3개월 전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메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70세쯤 약이 필요해서 약보험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지연에 따른 60%의 페널티를 평생



Lic # CA 0F07964

메디케어 무료 상담 및 신청을 친절히 도와주는 캘리포니아 공인 김예자 에이전트. 6400643@gmail.com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페널티 면제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셜 연금이 주수입원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지연 신청에 따른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Extra Help 자격

Income & Resources	Single	Couple
Monthly Income	\$1,822	\$2,465
Asset Limit	\$16,600	\$33,240

김예자 에이전트(Kim Yeja, Lic # 0F07964)는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의 무료 상담 및 신청을 도와주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Ye ja Kim (김예자)

Lic # : 0F07964

562.640.0643

714.773.2939

Lee JiHoon (이지훈)

Lic # : 4276029

714.872.9377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3개의 파3 홀이 주는 교훈



하늘에서 내려다본 페블비치 7번 홀. Getty Images

골프는 기본적으로 인내의 게임이다. 샷 하나 잘했다고 좋은 스코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샷 하나 실수했다고 게임을 망치는 것도 아니다. 특히 초심자는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개월에 걸친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제대로 된 티샷을 날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파3 홀은 인내와는 거리가 좀 멀다. 즉흥적이다. 그곳에선 기쁨과 좌절이 곧바로 엇갈린다. 티샷 직후 환희의 찬가가 울려 퍼지는가 하면, 벙커나 물에 빠진 볼에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한다.

대부분의 파3 홀은 미학적으로 뛰어난 편에 속한다. 티잉 구역에서 홀 전체가 보이기 때문에 조경에 큰 신경을 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골프장의 아름다운 홀을 꼽을 때 파3 홀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사방이 물로 둘러싸인 아일랜드 그린, 절벽을 낀 아찔한 그린, 온통 벙커로 방어막을 두른 공포의 그린 등 특색 있는 파3 홀도 많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들도 많아 여러 매체에서 파3 홀만의 순위를 매기기도 한다. 거의 매주 TV로 시청하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대회 코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도전적인 3개의 파3 홀을 꼽는다면 어느 곳이 선정될까. 딱 정해진 답은 없지만 대체로 페블비치의 7번 홀과 소그래스 TPC의 17번 홀, 그리고 오거스타내셔널의 12번 홀이 여기에 속한다는 데에 많은 이들이 동의한다.

태평양에 접해있는 캘리포니아주의 페블비치에서는 매년 2월 AT&T 페블비치 프로암이 열린다. 길이 106야드에 불과한 7번 홀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짧으면서 가장 아름다운 파3 홀'로 불린다. 녹색의 그린과 삼킬 듯이 용솨음치는 태평양의 하얀 포말이 골퍼들의 오감을 자극한다. 하지만 강풍이 매섭게 몰아치면 클럽 선택에 애를 먹는다. 평온한 날에는 웨지로 공략하지만 바람이 성을 내면 아마추어 골퍼들은 드라이버까지 잡을 때도 있다.

3월 열리는 PGA 투어 '제5의 메이저'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의 무대는 플로리다주의 소그래스 TPC다. 이곳의 상징이 물로 둘러싸인 17번 홀이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잔잔한 호수와 그린, 그리고 또 다른 작은 섬에 있는 외로운 나무 한 그루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다. 전장은 137야드로 짧지만 바람의 방향과 세기가 수시로 변덕을 부린다. 여기에 그린에 딱딱해 볼의 낙하지점이 조금만 길면 굴러서 물에 빠지고 만다. 호수가 삼키는 볼은 연간 약 10만 개에 달한다. 프로 골퍼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3년 이후 지난해까지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기간 총 925개의 볼이 물속으로 사라졌다.

봄의 생기가 한껏 부푼 4월이 되면 전 세계 골퍼들의 시선은 '명인열전' 마스터스의 무대인 조지아주 오거스타내셔널로 향한다. 그곳의 12번 홀은 사진가들이 지키고 있는 주요 포토 존 중 하나다. 그린 앞으로는 실개천이 흐르고 홀 주변으로는 진달래와 철쭉 등이 흐드러지게 핀 평화로운 모습이다.

전장 155야드인 이 홀에서는 매년 '참사'가 벌어지곤 한다. 2019년 타이거 우즈가 기적 같은 우승을 할 때는 경쟁자였던 프란체스코 모리나리, 브록스 켈프 등이 약속이라도 한 듯 티샷을 물에 빠뜨리며 우즈의 우승을 도왔다. 그런데 한 해 뒤인 2020년에는 우즈가 희생자가 됐다. 볼을 물에 세 차례나 빠뜨리며 기준타수보다 7타를 더 치는 셉튜플 보기를 범한 것이다. 12번 홀이 어려운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린에 땅콩 모양으로 앞뒤가 좁은 데다 실개천 위로 부는 바람이 소용돌이를 치기 때문이다. 과거 이곳이 인디언 무덤이어서 심술을 부린다는 그럴 듯한 미신도 있다.

매혹적이면서도 치명적인 이 3개의 파3 홀에서는 환희와 희열, 절망과 분노 등이 시시각각 교차한다. 교훈도 준다. 파3 홀에서는 핀을 직접 노리지 말고 일단 티샷을 안전하게 그린에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홀인원은 '행운의 미스샷'이라고 했다.

〈서울경제 - 김세영 기자〉



오거스타내셔널 12번 홀. Getty Images

우즈, 아들 우승 기념식장서 전처 엘린과 대면



엘린 노르데그렌(왼쪽 첫 번째)이 아들 찰리와 사진을 찍는 모습을 타이거 우즈가 바라보고 있다. (사진=미국 골프위크 홈페이지)

타이거 우즈(미국)와 전처 엘린 노르데그렌이 14년 만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면했다. 28일(한국시간) 골프위크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우즈와 엘린은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가든스의 벤저민 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골프 대회 우승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둘의 아들 찰리가 벤저민 고교 골프팀의 일원으로 우승 반지를 받는 현장이었다.

찰리는 지난해 11월 열린 플로리다주 고교 스포츠 클래스 A 팀 선수권대회에 벤저민 고교 대표로 출전해 자신의 학교가 우승하는 데 힘을 보탤다. 우즈와 노르데그렌은 2004년 결혼해 딸 샘과 아들 찰리를 낳은 뒤 2010년 이혼했다. 이혼 후 둘은 찰리가 출전한 대회 현장을 함께 찾은 적이 있지만 서로 동선을 달리해 마주치는 장면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 찰리의 시상식 때는 노르데그렌이 찰리와 함께 사진을 찍을 때 우즈가 바로 옆

에 선 모습이 포착됐다. 노르데그렌은 재혼해서 낳은 아들을 안고 찰리와 기념사진을 찍었고, 우즈는 두 손을 모으고 옆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모습이였다. 노르데그렌은 2019년 미국프로풋볼 선수 출신 조던 캐머런과 결혼했다.

〈서울경제 - 김세영 기자〉



무엇이든
 함께 하면 **기쁨**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친구



UNI & good friend
 INSURANCE SERVICES



유니 굿프렌드 보험

HEAD OFFICE (LA)

3580 Wilshire Blvd., Suite 151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8-7979 Fax. 213-674-4383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07 Buena Park, CA 90621
 Tel. 714-276-1133

VIRGINIA OFFICE

9001 Braddock Rd. Suite 390 Springfield, VA 22151
 Tel. 703-256-0707

SAN DIEGO OFFICE

7655 Clairemont Mesa Blvd., Suite 308 San Diego, CA 92111
 Tel. 213-388-7979

함께 일하실 경험있는 보험에이전트를 찾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hr@ugfriend.com으로
 Resume 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BT, EBT CASH, OTC 카드 환영

연방 정부 허가 업체 **NHS 내추럴 헬스 시스템**
원조 천종산삼 도매회사

뉴욕주 정식 허가 업체-Permit No.: 463, 464

미 공인 뉴트리션-Certified No.: 6239

레몬 구연산 소나무 식이유황 천종 산삼

1캡슐 750mg 대용량 60 베지캡슐

메가 구연산 캡슐
Mega Citric Acid

- 100% 레몬 추출 구연산
- 송진에서 추출한 식이유황
- 노우스캐롤라이나산 야생 천종산삼

간기능 개선 / 피로 회복
각종 결석 예방 / 노화 개선
위 / 장 건강 / 혈관 청소

\$45.00
+Tax

메가구연산
3병

~~\$135~~
\$110



스티븐 조 공인 뉴트리션니스트
미 공인 뉴트리션-Certified No.: 6239

3341-A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엘에이 조선크비 건너편) 전화 주문 상담 환영 **213-277-8866** EBT, EBT CASH, OTC 카드 환영

산삼이 들어가 더 뛰어난 효능!!

흔히 만병통치약이라 불리는 산삼은 옛부터 동양의 여러 고전 의서에 그 효능과 다양한 질환 치료에 사용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생 천종산삼은 간기능을 단기간에 촉진하여 신진 대사를 높이는 탁월함으로 다양한 약재와 좋은 궁합으로 혼용되어 그 효능을 높이는 데 사용됩니다.

동의보감의 전통적인 의학 그대로

산삼경옥고
산삼, 지황, 복령, 당귀

600g **\$500**

동의보감 경옥고 전통방식 그대로 산삼, 지황, 복령, 당귀 그리고 토종꿀을 섞어 수십차례 증탕을 반복하여 진한 원액 그대로 담았습니다. 산삼경옥고는 황제가 일일보약으로 장복하여 잔병을 막고 기력을 유지하는데 쓰였고 신진대사 회복에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면역증진 혈노

신장 건강 항암 방광염 요실금 폐건강

NK 면역세포 최대 250%까지

산삼후코이단
450mg 120 캡슐

2개월분 **\$310**

간기능 향상
장건강 / 위기능 회복
심혈관 질환 치료/예방
암세포 제거
콜레스테롤 상승 억제
혈당 상승 억제
면역력 증진

상당히 어려운 작업의 손길이 기록된

7g 산삼공진단
사향 / 산삼 / 녹용 / 당귀 / 산수유 (供辰丹)

산삼공진단 효능
항산화 효과 미네랄 폴리페놀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진 수험생 스트레스 만성피로 중후군 원기부족, 기억력 향상 신경과민, 불면증, 우울증 허약하고 오장육부 기능저하 과음으로 지친 간기능 회복 감작성 기능저하, 감작성 항진증 허약체질 및 성장발육 부진 중풍 후유증, 혈액순환 장애, 고혈압

"7그램 산삼공진단 확실한 자이가 있습니다!"

10환 ~~\$1,000~~ **\$500**

7그램 산삼공진단

산삼 아나볼릭

12정 **\$85** 24정 **\$150**

남성 성기능 장애 발기부전 조루 / 전립선 개선

BUY GET 1 FREE

울트라 콜라겐
90 캡슐

콜라겐 (Fish Collagen, Bovine Collagen)
천종산삼 / 천연 식이유황
히알루론산 액기드

피부건강
손톱건강
모발건강
관절/뼈건강
장 건강
두뇌 건강
체중 조절

\$65

울트라 메가 프로폴리스 농축 캡슐
Ultra Mega Strength **PROPOLIS**
60 베지캡슐

바이러스성 감기 감염증상 완화 면역력증강 염증완화

1+1 **\$38** 하나 공짜

산삼 시시스
120 베지캡슐

뼈, 관절 건강
체질 개선
지방증가 억제
지방 분해

\$55

면역력 강화 특화 영양제

에키네시아/산삼
120 캡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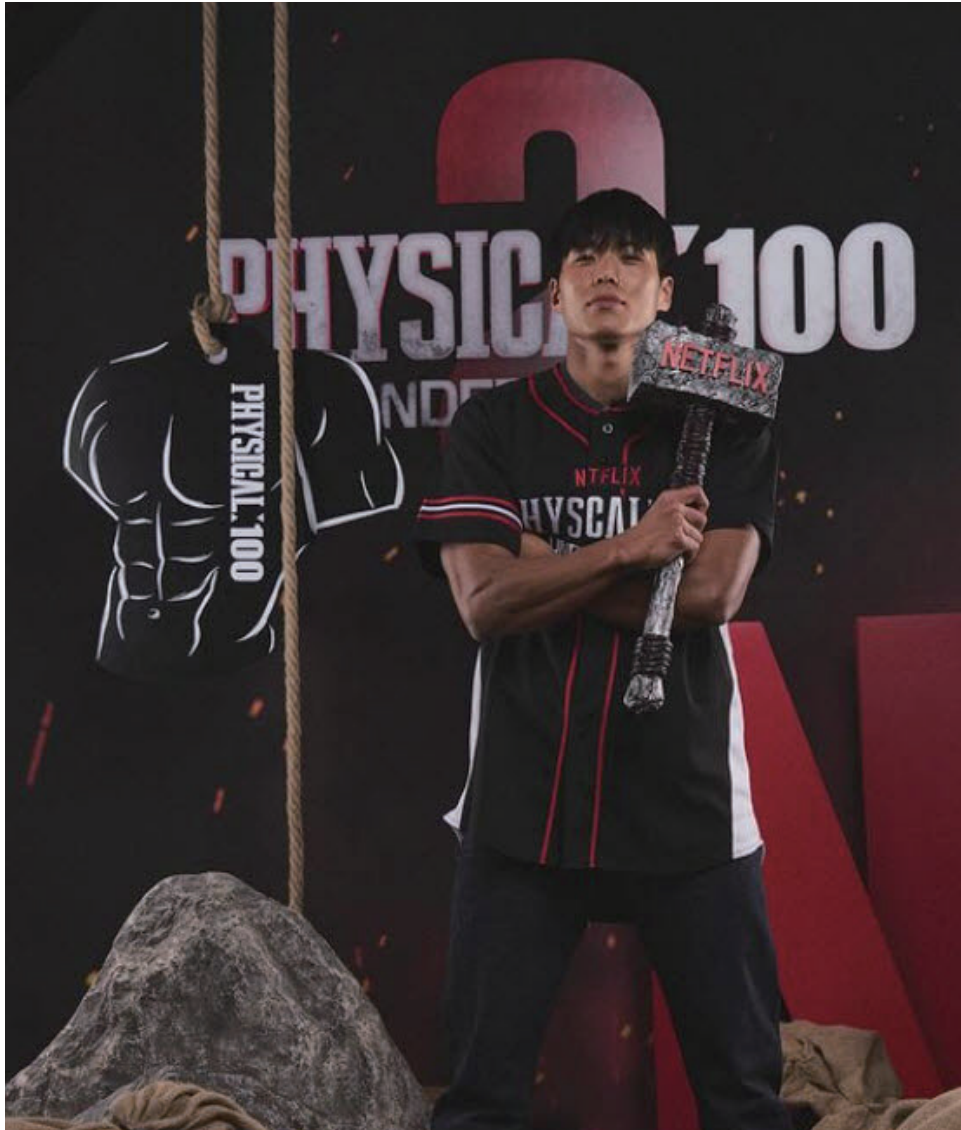
당뇨 / 항염증
항바이러스
항박테리아
면역강화
각종 알러지 예방/치료

1+1 **\$55** 하나 공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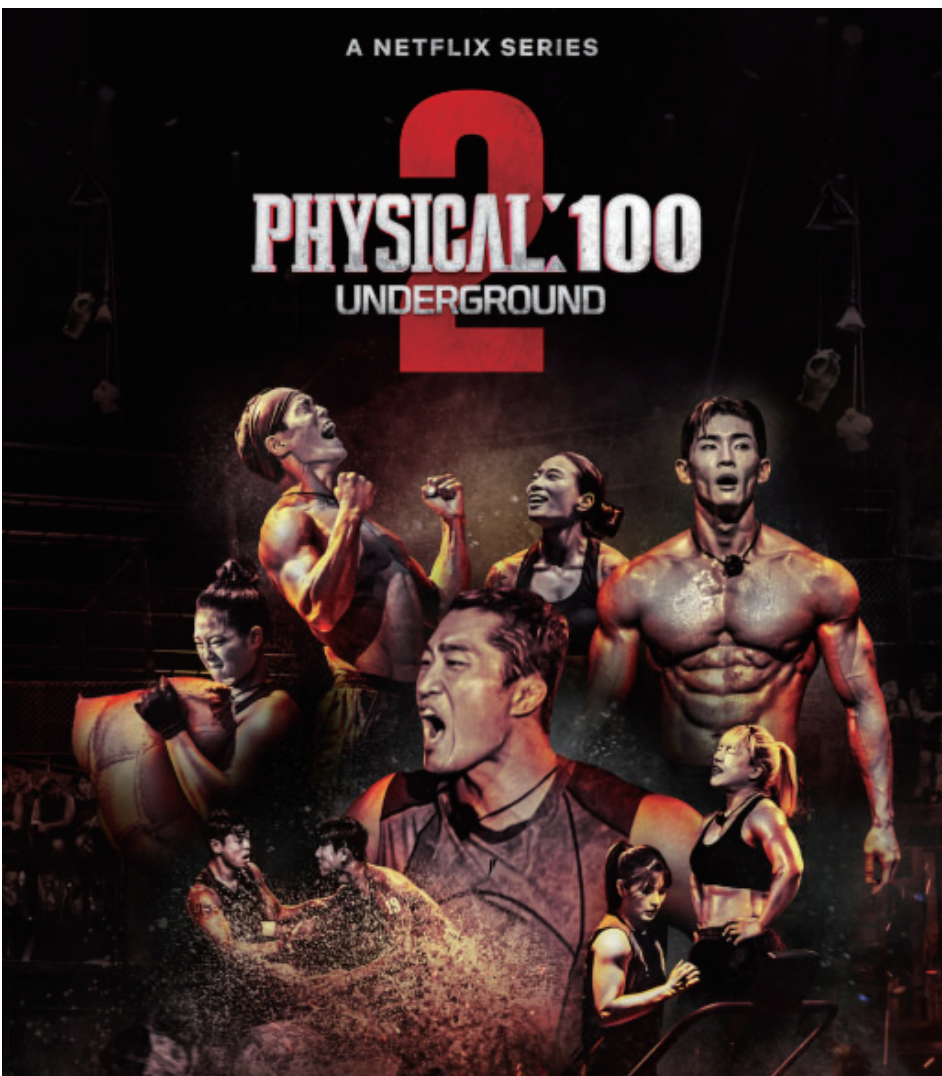
NHS 내추럴 헬스 시스템 제품 홍보 및 이벤트를 유명 미디어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육체적 힘·민첩성·지구력·의지의 힘 갖춘 '완벽한 몸'



가장 완벽한 피지컬을 가진 최고의 '몸'으로 등극한 크로스핏 선수이자 유튜버 아모띠.
(넷플릭스 제공)



최강 피지컬이라 자부하는 100인이 벌이는 극강의 컴피션 예능 '피지컬: 100 시즌2 언더그라운드'에서 눈길을 끈 종합격투기 선수 출신의 방승인 김동현(가운데)과 참가자들. (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예능 '피지컬100: 시즌2 - 언더그라운드' 아모띠, 인간 한계 도전한 불굴 의지·열정의 승리

아모띠가 최고의 '피지컬'이었다. 요즘 체 육관에서 무한반복으로 나온다는 리얼리티 쇼 '피지컬100: 시즌2'. 우승자 아모띠(본명 김 재홍)는 대구 출신으로 1992년생, 키 6피트 (183cm)의 보디빌더, 크로스핏 선수이자 인스 타그램@amottivation(Sweat On Seoul) 팔로 워 10만 명에 육박하고 구독자 15만 명의 유튜 버(youtube.com/@amottii)이다. 처음부터 강 력한 우승 후보로 주목을 받은 아모띠는 패자 부활전에서 괴력을 보여준 정지현(레슬링 국 가대표 금메달리스트)을 팀장으로 한 최강 어 벤져스팀원이다.

'피지컬: 100 시즌2'는 최강의 '이상적인 몸' (physical)이라 자부하는 100인이 최후의 1인 을 가려내기 위해 벌이는 서바이벌 게임 예능이 다. 지난해 첫 시즌의 성공으로 두번째 시즌이 지난 3월19일 넷플릭스에 돌아와 다시 한 번 한 계를 시험했다. 이번 시즌은 외교관, 경찰, 군인, 배우, 아이돌 가수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출연 자가 우승 상금 3억원을 두고 도전장을 던졌다.

시즌 1의 우승을 차지했던 크로스핏 선수이 자 스노보드 선수인 우진용은 어떤 훈련을 했 는지 묻자 "몸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최고의 컨 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느꼈다. 이 를 염두에 두고 크로스핏(CrossFit)의 오늘의 운동("Murph" WOD)를 따랐다. 20파운드 웨 이트 조끼를 입고 1마일을 달리고, 풀업 100회, 팔굽혀펴기 200회, 스쿼트 300회를 하고, 1마 일을 더 달렸다. 이 서킷을 따르는 것이 내가 도 전에 가장 잘 대비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 한다"고 답한 바 있다.

시즌 2에서 최고의 명승부를 연출한 팀장 6 인은 화려한 프로필만큼이나 활약상을 보였 다. 한국인 최초 UFC 진출자 김동현은 스텐건 의 화려한 귀환으로 레전드의 품격을 보여주 며 전율을 안겼다. UC버클리 출신의 한국 럭 시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안드레진은 남다른 승부욕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유도 국가 대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원희는 뛰어난 전 략으로 약체 편견을 깨부수고 포기하지 않는 인간 승리 정신을 보여주었다. 아시아 최초 세 계소방관경기대회 최강소방관 챔피언 출신의 흥범석은 포기하지 않는 도전의 아이콘으로 7회에서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 2위에 올랐다.

8-9회 파이널은 초미의 관심사인 세 번째 퀘 스트 광산 운송전 공중 짐나르기의 결말 공개였 다. 앞서 5-7회는 흥범석팀의 팀장 흥범석의 활 약으로 김동현팀, 이재윤팀, 흥범석팀 중 어떤 팀이 네 번째 퀘스트에 전원 진출할지 궁금증을 자아냈다. 예측불허 경주의 수가 펼쳐진 가운데 김동현팀의 고종훈과 이재윤팀의 조성빈이 연 달아 추락하면서 양팀의 희비가 엇갈리는 드라 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엔딩을 연출했다.

세 팀 중 최하위 한 팀이 전원 탈락하는 무 자비한 생존 경쟁에서 탤런트 이재윤은 글래 디에이터 그 자체의 아우라와 따뜻한 리더십 을 보여주었다. 팀장 이재윤은 "본편으로 보니 그때의 감정이 다시 떠오른다"라면서 "우리 팀 원들은 개인을 넘어 팀을 위해 노력했고, 서로 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각자 역할을 잘해 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모두에게 예 측 불가였던 그날, 여러분도 본편을 통해 함께 즐겨달라"고 전했다.

경쟁과 협동의 경계가 모호한 지하광산에 서 100인의 참가자들이 치열한 생존 게임을 벌 인 시즌 2는 위험이 훨씬 더 높았고 도전 과제 는 더 어려웠다. 거대한 광산인 경기장은 방대 한 스케일로 참가자들을 놀라게 했다. 국제 스포츠 경기를 보는 듯 도전자들의 투지가 다양 한 형태로 증명되는 '힘' 찾기였다. 2톤짜리 배 를 모래 구덩이 위로 끌고 갈 수 있어야 했다. 그러나 궁극의 몸을 결정하는 것은 순수한 육 체적 힘에 민첩성, 지구력, 가장 중요한 '의지의 힘'이 필요했다.

프로그램을 연출한 장호기 PD는 "시즌1은 고대 그리스 콘셉트로 설계했고 시즌2는 1950 년대와 1960년 현대에 주목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존 경쟁에 치열했고 부조리에 맞 서는 실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지하 광산이라고 생각해서 (공간을) 지 하 광산으로 설정했다"라며 "광산은 누군가의 희생과 목망, 협동, 경쟁이 모호하게 뒤섞인 공 간이다"라고 시즌2의 새로워진 시대적, 공간적 배경을 설명했다.

시즌1 결승전에서 두차례 경기가 중단돼 준 우승자가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장 PD는 "결과적으로 경기 리허설을 했어도 (결승전 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 (이슈 발생) 원인이 었기도 했다"라며 "이번 시즌에서는 각 퀘스트 별로 여러 상황에 대해 시뮬레이션 값을 토대 로 다양하게 대비를 했다. 완성도와 매끄러운 연출도 중요하지만 시청자들이 스포츠 중계나 리얼리티와 같은 투명함을 원했다는 것을 느 꼈다. 만약 돌발 상황이 발생하고 변수가 생기 면 시청자가 이해할 수 있게 투명하게 보여드 리자, 부족하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자라는 생 각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수많은 시뮬레이션 을 거쳤고 공정성 및 안정성을 대비하기 위해 심판 10여 분을 모셔서 퀘스트 별로 배치를 했 다.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거나 구두 협의로 결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해석을 바탕으 로 판정했다"라고 덧붙였다.

〈하은선 미주한국일보 편집위원· 골든글로브협회(GGA)원〉

영화 '땃글부대' 히어로 손석구 종횡무진 인터뷰

“나는 궁금증 많은 사람... 이것저것 다 겪어보려 한다”



전 그룹이 여론조작 팀을 운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뒤 그 실체를 고발하는 두 번째 기사를 쓰기 위해 취재에 나선다.

손석구는 “이야기는 역동적으로 흘러가지만 사실 기자가 하는 일이라는 게 액티브한 건 아니기 때문에 관객이 캐릭터를 느낄 수 있게 표현하는 게 쉽지 않았다” 고 말했다.

도, 감독도 이작품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개봉을 곧 앞둔 시점에서 인터뷰에 응한 그는 “긴장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시나리오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영화가 나왔다.”

최근 손석구는 1인 기획사 겸 콘텐츠 제작사를 차렸다. 연기만 하기에도 빠듯해 보이는데도

살인마에서 경찰, 경찰에서 군 장교, 군 장교에서 형사, 이번엔 기자 변신

“가령 <범죄도시2>의 강해상은 캐릭터를 확대할 수 있다. 직업도 없고, 호쾌한 액션을 위해서 태어난 캐릭터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자라고 한다면 좀 다르다. 일단 임상진이 기자라는 걸 보여줘야 하고, 그가 기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캐릭터가 드러나야 한다. 다시 말해 간단한 대사나 움직임으로 이 사람이 기자라는 것과는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는지 다 보여줘야 한다. 그러므로 아주 디테일한 연기를 해야 했다.”

특정 직업을 연기하는 배우들이 으레 그렇듯이 손석구 역시 실제 기사를 만났다. 기자가 나오는 다큐멘터리도 봤다. 그는 “요즘엔 워낙 여가지기 정보가 많으니까 그런 정보들을 하나씩 종합했다” 고 말했다.

장강명 작가와도 만났다고 했다. 그는 기자 출신 작가 손석구는 장 작가와 대화를 나누면서 기자에 관해 가지고 있던 인상, 시나리오에 표현된 임상진에 관한 내용이 리얼해지는 걸 느꼈다. 다만 그는 “그렇다고 연기가 쉬워진 건 아니었다” 며 “임상진은 실제 없는 존재를 마주하기 때문에 그 반응을 관객이 알아챌 수 있게 드러내는 게 만만찮은 작업이었다” 고 말했다.

“감독님 그리고 동료 배우들과 대화를 정말 많이 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건지 계속 찾아가려고 했다. 그렇게 토의를 거치다 보니까 하루에 한 신도 찍지 못하는 날도 있었다. 최대한 다양한 버전으로 연기했다.” 손석구는 자신

다른 도전에 나선 것이다. 그는 최근 수년간 설날 연휴를 빼면 쉬는 날이 없을 정도로 일했다고 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한 뒤 씻지도 못하고 자는 때도 많았다” 는 게 손석구 가말한 일상이다. <나의 해방일지> 이후 인기가 치솟았지만, 그런 변화에 관한 생각들을 정리할 새도 없이 달렸다고 한다. 그는 “이젠 좀 잠깐이라도 쉬어가며 일을 할 생각” 이라고 했다.

“요즘 젊은 배우들 보면 한 작품 끝나면 6개월 정도 쉬었다가 새 작품 들어가기도 하더라. 그런데 나는 성격상 그렇게 못 한다. 쉬어야 하는데... 앞으로 6개월 정도는 못 쉴 것 같고 그래도 내년부터는 작품 사이에 한두 달은 좀 쉬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성격을 “여기저기 휘둘리는 타입” 이라고 했다. 쫓대기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저기 관심이 많고 궁금한 게 많아서 이것저것 모두 경험해보려고 한다는 얘기였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아닌가. 여러 가지 경험해야 한다. 요즘엔 가능성도 많고 정보도 많은 것 같다. 내가 적극적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하지 않으면 편협해질 것 같다. 대쪽 같은 것도 멋있지만 나는 이렇게 가는 걸 선택했다.”

<뉴스스>

배우 손석구. 2022년 4월 '나의 해방일지'를 기점으로 살인마에서 경찰로, 경찰에서 군 장교로, 군 장교에서 다시 형사로, 그리고 이번엔 기자가 되어 관객을 만난다

최근 배우 손석구(41)의 행보는 딱 한 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 종횡무진. 재작년 4월 나온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를 기점으로 그는 살인마에서 경찰로, 경찰에서 군 장교로, 군 장교에서 다시 형사로, 그리고 이번엔 기자가 되어 관객을 다시 만난다.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그가 출연한 영화·드라마만 6편. 그렇다고 다작만 한 것은 아니다. 출연하는 작품마다 캐릭터 변화의 폭도 컸다. 그 진폭은 손석구가 연기한 인물들의 외형만 봐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다.

이런 지점에서 보면 3월 27일 공개된 영화 <땃

글부대>에서 손석구가 맡은 '기자 임상진'은 상대적으로 평범해 보인다. 특히 넷플릭스 시리즈 <살인자o난감>에서 연기한 캐릭터의 개성과 비교하면 특색이 없다고 해도 될 정도다. 그런데 영화 개봉을 앞두고 만난 손석구는 “오히려 난이도가 매우 높은 연기였다” 고 털어냈다.

장강명 작가가 2015년 내놓은 동명 소설이 원작인 <땃글부대>는 기자 임상진이 막강한 권력을 쥔 대기업 안전그룹 비리를 고발하는 기사 두 가지를 쓰는 과정을 그린다. 첫 번째 기사가 오보로 물리며 1년 넘게 정직당한 임상진은 만



“‘해방일지’ 이후 2년간 생각 정리할 틈 없이 달려... 이젠 쉬어가며 할 생각”

"90분 따귀 세레→강제전학" 송하윤, 연이은 학폭 의혹 재차 반박



배우 송하윤이 학창 시절 연이어서 제기된 학교 폭력(이하 학폭) 및 강제전학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송하윤의 학폭 및 집단폭행 의혹에 대해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 송하윤의 학폭 의혹을 처음 제보한 A씨는 "송하윤이 집단폭행으로 인한 강제전학을 갔다. 세 명에서 한 명을 때린 것"이라며 "집단 린치를 가한 거다. 가해자 누나들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모든 게 송하윤의 이간질"이라고 주장했다.

백성운 변호사는 "20년 전에 강제전학이라는 건 쉽지 않다. 학폭에 연루됐다는 걸 암시하는 내용"이라며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송하윤의 동급생이 송하윤을 포함한 여성 3명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다고 한다. 피해가 전치 4주에 이르렀는데, 이는 굉장히 중상이고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를 넘어서 합의가 안 되면 실형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다. 피해자가 폭행당한 이유는 송하윤의 이간질 때문이었다고 한다"며 "가해자 중 한 명의 소문을 피해자가 퍼트린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이에 화난 가해자가 송하윤과 함께 피해자를 불러 폭행에 이르게 됐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송하윤 씨를 포함한 가해자 3명이 모두 강제전학 조치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범죄심리수사 전문가 오윤성 교수는 "(송하윤 측은) 본인은 그 사건에서 폭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고 그 사실을 알려준 것이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라는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예계 활동 중이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서 소속사 측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자발적으로 전학을 갔다는 것이 지금까지 나온 소속사 측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사건반장'은 A씨와 집단폭행 피해자 B씨의 통화 내역을 공개했다. A씨는 B씨에게 "송하윤이 포함된 가해자들의 피해자가 누나가 맞나", "송하윤이 포함된 집단폭행 가담자 3명은 다 8호 처분, 강제전학 받았나", "졸업한 다음에 송하윤이 활동 중일 때 문제제기를 한 적도 없고 연락 온 적도 없나"라고 물

었다. B씨는 각각 "네", "맞다", "없다"라고 답했다.

송하윤이 연루된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 C씨의 이야기도 전했다. C씨는 "그 상황에서 있었던 사건은 명확히 일어난 것이 맞고 그 아이가 연루된 것은 확실하다. 그건 아니라고 부정할 순 없다는 이야기다. 그럼 찢값을 받아야 하는 게 맞다"며 "그 찢값이라고 하는 게 그냥 처음엔 1차적으로 사과가 맞는 거고 개가 그런 식으로 부정을 하면 우리가 잘못했던, 모두가 잘못했던 것까지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럼 안 되는 것이 아니냐"고 전했다.

전날 '사건반장'은 유명배우 S씨에게 고교 재학 시절 학폭을 당했다는 A씨의 주장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고등학교 3학년이던 S씨는 점심시간에 A씨를 불러 약 90분 동안 따귀를 때렸다. 해당 방송에서 S씨의 모습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자료 화면 등을 통해 S씨가 송하윤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송하윤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웍은 "당사는 본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초 제보를 받은 후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제보자와 통화를 했다. 이후 메시지를 통해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한 만남을 요청했으나 제보자 측에서 거부의사를 밝혔고, 이에 통화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제보자 측 주장에 관해 배우에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제보자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해당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부인했다.

또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사건반장'에서 송하윤에 대해 방송한 내용 및 이에 관한 후속 보도와 관련하여, 해당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며 "당사는 향후 본건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 및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 검토를 통해, 제보자 측에 대한 민형사상의 조치 및 JTBC '사건반장'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다시 한번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보도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고 재차 부인했다.

김수현과 '밀착샷' 올린 이유는... 김새론, 직접 해명한다

배우 김새론(24)이 동료배우 김수현(36)과의 열애설에 대해 직접 입을 열어 예정이다.

김새론은 지난 24일 오전 1시께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김수현과 함께 볼을 맞댄 채 밀착한 포즈로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약 3분 만에 삭제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은 일부 누리꾼에 의해 캡처된 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면서 두 사람의 열애설에 불을 댕겼다. 두 사람은 각각 2000년생, 1988년생으로 12살 차이이다.

김새론은 2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입장문을 정리 중이다"라며 "정리되는 대로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입장문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두 사람의 열애설이 불거진 후 김수현 소

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온라인상에 퍼져 있는 사진은 과거 같은 소속사였을 당시 촬영한 것으로 보이며 김새론씨의 이러한 행동의 의도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 소속사 측은 "해당 사진으로 인해 배우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역측 등이 난무하고 있는 상태"라며 "배우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고 악의적인 비방과 모욕적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수현은 현재 tN 인기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백현우 역할을 맡아 열연을 펼치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된 사진의 공개된 시점이 김수현이 드라마 속에서 상대역인 김지

원과의 진한 키스 장면이 방영된 이후로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은 김새론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갖가지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드라마 물입을 방해한다"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김새론은 2022년 5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그는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해 4월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김새론은 현재 어떤 작품 활동도 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연기 레슨 등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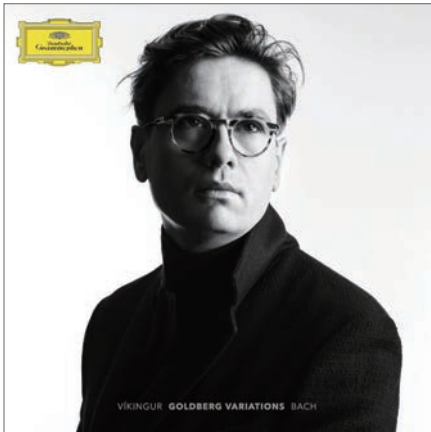
바흐 (J.S. Bach) 음악의 정점인 골드베르크 변주곡 (Goldberg Variations BWV 988)의 명연들을 비교 감상해 보자! (Part 2.)



박기한
음악칼럼니스트

지난글에 이어 얘기를 계속해 보기로 하자... 우선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각 소개 음반 앞에 붙인 번호는 순위가 아니라는 점이다. 순위를 정할 자격이 나에게 없으며 그저 좀 더 정리된 느낌을 갖기 위해 습관적(?)으로 붙인 번호 이기에 큰 의미가 없음을 밝혀둔다.

4. Vikingur Ólafsson (비킹구르 올라프손)의 2023년 10월에 발매된 최신 레코딩.



'아이슬랜드의 글렌 굴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새로운 바흐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이 피아니스트에게도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특별한 의미가 아닐 수 없을 듯 하다. 그의 2023/24 시즌 월드 연주 투어의 프로그램은 모두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한 곡이라니 말 다했지 않은가? 한국에도 이미 작년 12월 4차례의 공연을 이 프로그램으로 했다고 하고 이곳 L.A. 에도 오는 5월 1일 저녁 8시에 Walt Disney Concert Hall에서 공연을 한다니 많은 음악 애호가들이 티켓을 예매하여 직관을 하셨으면 좋겠다! 흔치 않은 기회이지 않은가!..!

그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의 전체적인 인상은 우선 마치 대리석과 같은 단단함일까...? 감정에 과몰입하지 않는 냉철함이 그 뼈대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었다. 비교적 빠른 템포의 연주는 그의 출신지인 아이슬랜드같은 북구의 차가운 아침 공기처럼 1~2분만 지나면 따뜻한 난롯가가 간절해 지겠지만 당장 처음에는 가슴 뻥 돌리게 시원해지는... 그런 종류의 상쾌함이 있다!

특히 다섯번째 변주곡 (6번 트랙)의 연주의 빠르기는 다른 연주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 그런 스피디한 연주중에도 강약과 리듬감, 뉘앙스가 모두 살아있는 마이크로 디테일한 표현력을 유지하는 놀라운 테크닉에 감탄이 나오게 한다.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는 연주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나지만 Vikingur Ólafsson (비킹구르 올라프손)의 이 연주는 예외였다.

앞서 언급한 북구의 그 차갑지만 상쾌한 아침공기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곡

이 다 빠르게만 밀어붙쳐져 있지는 않다. 30곡의 변주곡이 연주되는 동안 적절히 완급이 조절되어져 있다. 우리의 임윤찬과 러시아의 Daniil Trifonov (다닐 트리포노프)와 함께 가장 주목해야 할 피아니스트 중 한명이라고 생각한다!

5. Lang Lang이 2020년도에 발표했던 레코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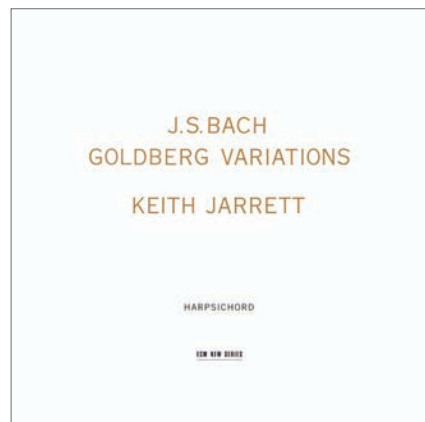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느릿느릿한 템포로 원곡의 시대 배경이 배어있는 바로크 스타일과는 다소 다른 감정을 듬뿍 실은 낭만주의적 해석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각종 세련된 테크닉과 가끔씩 원 악보에는 없는 장식음들을 살짝살짝 스쳐지나가듯이 자연스럽게 추가해 연주해 주고 있고, 받아들여지는 한도내에서는 약간의 변형도 서슴치 않는다. "클래식 음악 연주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은근한 '파격'이 있는 연주라고 할 수 있다!

처음 이 연주를 접했을 때 이런 방식의 연주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 신선한 충격을 받기도 했다. 그 와중에도 첫 곡 '아리아'의 세련된 아름다움은 단연 최고라고 할만하다!

팬데믹이 한참이던 2020년 여름에 발표되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음반이었다! 비록 앞서 언급한 개성들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지만 나에게 접하게 된 그 이후에는 언제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명연이었다!

6. 재즈 피아니스트 Keith Jarrett이 하프시코드로 연주한 1989년도 ECM 레이블 레코딩.



재즈피아니스트로 너무나 잘 알려진 Keith

Jarrett이 정통 클래식 음악 레퍼토리 레코딩도 꽤 자주 했다는 건 음악 좀 듣는다는 애호가들에게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재즈 아티스트로서 재즈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닌 실제 또 다른 자아를 지닌 듯 전혀 다른 클래식 건반 연주자로서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점이 늘 대단하다고 생각해 왔다.

게다가 곡에 따라 하프시코드와 피아노라는 터치감과 사용 테크닉이 전혀 다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두 악기를 번갈아 사용하니 경이롭기까지 하다! 그가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레코딩에 사용한 악기는 하프시코드였다. 바흐의 '음의 건축학(?)'을 표현하는데 약간 무표정하지만 너무나도 맑은 하프시코드의 톤이 더 잘 어울린다고 판단한 듯 하다.

글렌 굴드가 하프시코드로 이 곡을 연주했다면 이렇게 연주했겠다 싶게 글렌 굴드와 마찬가지로 '아리아'의 반복 부분을 과감히 삭제하고 전체적으로 느리게 한음 한음 스타카토 주법에 가깝게 매력적으로 연주해 준다!

7. 우리나라 연주자 정수경의 2019년도 실황 레코딩.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연주자인 정수경의 하프시코드 연주를 소개하겠다. 우리나라 연주자들의 재능이 이렇게 훌륭했었나...? 그리고 이런 아티스트들이 성장해 나올 수 있는 교육 시스템



과 인프라가 이렇게 잘 갖춰져 있었나...? 등등의 '국뽕(?)'이 차오르게 되는 레코딩이다. 우선 녹음이 매우 훌륭하고 테크닉적으로도 경지에 오른 세련됨이 전곡에 흐른다.

지금까지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의 명연들의 일부를 소개해 봤는데 그밖에도 미처 소개하지 못한 많은 명연들이 있으니 비교해가며 감상해 보고 각자의 취향대로 즐겨보시기를 바란다.

특히나 이곡이 이렇듯 연주하는 이에 따라 천차만별의 분위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바흐의 원곡은 기본적 도화지와 구도만 제공할 뿐 다양한 색깔과 기법을 사용한 실제 그림은 각 연주자의 몫이기 때문일 것이다!

frisell66@gmail.com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투자비자(E-2), 투자이민(EB-5) 전문

능력과 접근방법이 결과를 달리 합니다
이민법에 관한 모든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비자신청, 변경 및 연장

- 투자비자 (E-2)
- 취업비자 (H-1B)
- 학생비자 (F-1)
- 종교인비자 (R-1)
- 주재원비자 (L)
- 교환학생 및 비전문직종사자 (J-1)
- 특수기능인비자 (O-1)
- 예술계 종사자 (P-1)
- 재입국 허가서
- 그 외 모든 비자

영주권신청

- 투자이민
 - 이민국 지정 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투자
 - 사업운영을 통한 직접투자
-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 지사간부
- 석사학위자 및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전문직, 숙련직 및 비숙련직
- 종교이민

시민권신청

- 시민권신청 부적격성 판단



이경희 변호사 Kyung Hee Lee

서울대학교 졸업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법학박사)

Immigration Law Associates, PC

Legal Department of Centro Romero (Intern & Externship)

Asian Human Services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 (AILA) 회원

논문 : Human Rights Abuse in China

A Comparative Study of Human Right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South Korea and Taiwan

Diversity-based Affirmative Action under International Law 등

LA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os Angeles, CA 90010

(Equitable Building)

Tel: (213) 385-4646 (imin)

Fax: (213) 385-4040

Irvine Office

20 Corporate Park, Suite 330

Irvine, CA 92606

(Between Jamboree & Beckman)

Tel: (949) 551-4646 (imin)

Website: www.iminusa.net

Email: imin@iminusa.net



musicplaza.com

MUSIC PLAZA+

나는 **임영웅!** 너는 **BTS!**
자녀와 함께 즐기는
뮤직플라자

아이돌 응원봉, 굿즈
포스터, 사진집 등
인기 K-POP 상품



인기 한국스타 음반
TV 드라마, DVD
한국영화, 팝송
클래식 뉴에이지 등
각종 CD



뮤직플라자
(213) 385-4725

코리아타운 플라자 1F #107, 3F #307
928 S Western Ave, Ste 107 & Ste 307 Los Angeles, CA 90006

오늘 저녁 이 노래 한 곡

ONLY YESTERDAY

Bertie Higgins



I watch my life go turning in circles
'Round a face I once cupped in my hands. Whirling and twirling like a leaf on the wind. Sometimes it's more than I can hardly stand.

나는 내 인생이 순환하는 것을 지켜본다. 얼굴을 한 바퀴 돌면서 내 손에 쥐어진 적이 있어.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처럼 빙글빙글 돌고 돌아가곤은 내가 견디기 힘든 것보다 더 많아요.

And more and more with every day she's with me. Hiding deep down somewhere in my mind. Then at night, she tiptoes out to wake me. But she's gone before I can open my eyes.

그리고 그녀가 나와 함께 있는 날이 점점 더 많아진다. 내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 숨어서 그리고 밤이 되면 날 깨우기 위해 발끝으로 나가요. 하지만 그녀는 내가 눈을 뜨기도 전에 가버렸다.

How the years pass me by so swiftly, Since I felt her warmth where I lay. I keep thinking, Lord, I can hold her tomorrow. 'Cause it seems that I touched her only yesterday. Seems that I touched her only yesterday.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내가 누운 곳에서 그녀의 따뜻함을 느꼈기 때문에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주여, 제가 내일 그녀를 붙잡을 수 있어요. 내가 어제서야 만진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어제서야 만진 것 같아.

And her laughter was sweeter than golden honey. And the sparkling sound just won't let me go. Just to find that moment still shining. When I held her such a long time ago.

그리고 그녀의 웃음은 황금빛 꿀보다 달콤했다. 그리고 반짝이는 소리가 날 그냥 보내 주지 않을 거야. 그 순간이 아직도 빛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내가 오래 전에 그녀를 안아줬을 때.

How the years pass me by so swiftly, Since I felt her warmth where I lay. I keep thinking, Lord, I can hold her tomorrow. 'Cause it seems that I touched her only yesterday. Seems that I touched her only yesterday.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내가 누운 곳에서 그녀의 따뜻함을 느꼈기 때문에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 제가 내일 그녀를 붙잡을 수 있어요. 내가 그녀를 만질 수 있었던 것은 어제 었을뿐. 내가 그녀를 만질 수 있었던 것은 어제 었을뿐. 내가 그녀를 만질 수 있었던 것은 어제 었을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자기만의 기억과 스토리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
한 소절의 가사에 그녀와 나의 추억이 담기고, 한 음절의 멜로디에 그이와 나의 그림이 묻어져 버린 누구에게나 그럴 수 있는 그런 노래 한 곡 음악 한 곡을 이 지면에 담아본다.
H매거진이 추천 하는 이 노래 한 곡, 오늘 저녁 와인이나 차 한잔 하며 유튜브나 스트리밍 앱 더 나아가서 음반을 구입해 들어보며 기억과 함께 쉬는 시간을 권한다.

1944년에 미국 플로리다주 걸프(Gulf) 연안에 있는 작은 어촌 타폰 스프링스(Tarpon Springs)에서 태어난 독일계 미국인 버티 히긴스(Bertie Higgins)가 1983년에 발표한 해적과 시(Pirates and poets) 앨범에 수록된 명곡.
1948년, 험프리 보가트와 로렌 바콜이 주연했던 영화 『Key Largo』 영화에 빠진 후, 자신이 직접 『Through The Eye』라는 시나리오를 완성시키기도 했던 버티는, 싱글 <Key Largo>를 발표해, 1982년 경 전 세계에서 대 히트했다. just another day in paradise 앨범에 수록된 이 곡 보다 한국에서는 한국 가수 최현도 번안가요로 발표해서 인기를 얻었던 CASABLANCA 카사블랑카가 대대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 후 발표한 '해적과 시' 앨범에 수록된 숨은 명곡인 이 곡은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진 못했지만 80년대 음악다방, 카페 그리고 FM방송에서 자주 나오던 곡이다. 애인과 이별 후 혼자 된 사람의 아쉬움이 담긴 곡이다.

"California Dream for Some Part 7"

주정부의 20% 보조 프로그램의 진행 일정이 발표가 되어지고, 세부적인 사항들이 속속히 발표되어 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받은 지침 사항을 지면을 통해서 공유 하겠습니다. 지난 지면에서 주정부의 관계기관 신청 웹사이트가 4월3일 오전 8시에 오픈이 되어지고 마지막 신청 종류가 4월29일 오후 5시까지의 일정을 지면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모든 신청서류를 반드시 4월3일에 접수해야 하는지요?

서류신청 접수를 4월3일부터 시작합니다. 반드시 4월3일 신청하면 우선 선발과정에서 우선 순위가 부여 되지 않습니다. 선발과정은 무작위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2. 서류 신청을 4월29일까지 미루지 마세요.

신청하신 서류를 심사하고 서류의 유효성을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런 시간적인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류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서류 제출을 하여 주십시오.

3. 반드시 융자전문가를 통해서 사전 승인을 받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를 신청할 때 융자 전문가의 사전 서류 심사를 받고 사전 승인서를 첨부하여 주정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융자 전문가는 융자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서 제출하신 서류를 검토하고 사전 승인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서류 준비를 융자 전문가와 같이 준비하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주정부의 승인에 한치의 오류가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4. 주정부 보조 프로그램의 승인 Voucher는 이메일로 통고 됩니다.

주정부의 승인 Voucher는 신청하실 때 제출하신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승인 통보를 받으십니다. 자주 사용하시는 이메일 주소를 제출하셔서 20% 보조의 승인을 받았으면서도 연락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출하시는 이메일 주소는 반드시 자주 사용하시는 이메일 주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승인을 위한 주정부의 심사 기간이 있습니다.

제출하신 서류를 주정부가 검토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수주일 소요 될 수 있으므로 이메일을 통해서 추가 서류 요구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시로 이메일을 점검하며 진행을 도와 주시는 융자 전문가와 상의하여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세요.



앤드류 최
Mortgage Loan Originator

▲ (323)686-1004
andrewchoi.mlo@gmail.com

교통사고 났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 **문:** 사고가 났는데, “잘못했다”고 말해도 되나요?

▶ **답:** 많은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자칫 실수로 보상금을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1. “잘못했다”고 말하거나 그러한 뉘앙스를 비추지 마십시오! 많은 분이 이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분들이 의도치 않게 잘못을 인정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말로 직접 “나의 잘못(it was my fault)”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사과하거나 순수한 마음에 건넨 한마디가 잘못을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운전자나 보험 에이전트, 사고 목격자 심지어 제삼자와 얘기할 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케이스가 마무리될 때까지 소셜미디어(SNS)와는 거리를 두십시오! 케이스가 완전히 끝이 나기 전까지는 SNS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와 변호사는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당신의 SNS를 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에 따른 허리 부상에 대한 클레임을 진행하는 중에 상대방이 당신이 테니스를 치고 있는 사진을 발견한다면, 당장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공격할 것입니다.

3. “아프지 않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교통사고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인이 쉽게 “괜찮다”고 말합니다. 사고나 상처에 대해 과장해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 누가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고 몸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는데 확실하지 않을 때는 그냥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게 좋습니다.

4. 변호사 동의 없이 의료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케이스가 진행될 때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의료 정보 공개 동의서에 사인하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나 재판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리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 정보 공개 동의서에 싸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 늦지 않게 클레임하십시오!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클레임 ‘마감 시한(Statute of Limitation)’을 갖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이를 엄격하게 지키기 때문에 이를 넘겨 클레임하면 피해를 봤어도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노련한 변호사와 지루한 싸움을 거쳐야 하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알렉스 차
Personal Injury

▲ 213-351-3513
www.alexchalaw.com



Beverly Hills Office
6330 San Vicente Blvd. #510
Los Angeles, CA 90048

Headquarter
14241 Firestone Blvd #210,
La Mirada, CA 90630

앤드류 최를 만나면 융자가 편해집니다

Andrew Choi
Mortgage Loan Originator
NMLS #1558633

주택구매융자 | 재융자 | FHA | 리버스모기지

323.686.1004 andrew.choi@mtgog.com



Licensed in AZ/CA/GA/IL/NV/TX/VA/WA
Licensed by the Department of Business Oversight under the California Residential Mortgage Lending Act, [NMLS#882728]

APPLY NOW!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사진 한 장 첫 돌 사진 2024년



<아이가 귀한 세상>

둘만 낳아 잘 기르자던
그 옛날은 전설이 되고
이제 아이를 많이 낳으면
나라에서 돈을 주는 세상이 되었단다.

그런 세상에서 태어난 보석 같은 아이
아가야 빛나거라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과 함께 설명 또는 하고 싶은 말을 작성하여 보내 주시면 격주 화요일마다 한 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H매거진 이 사진 한장에 응모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선정되신 분께서는 3731 Wilshire Blvd. #1000 LOS ANGELES로 4월 19일까지 ID지참 방문하셔서 소정의 상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주제와 소재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인물사진과 같이 초상권, 저작권에 저촉되는 사진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보내주실 곳 e-mail | h@koreatimes.com
H매거진 이 사진 한장 담당자 앞



지윤철학원

띠별로 보는 주간 운세 4월 9일 - 4월 22일

지윤철학원 상담전화	(213)739-2877	지윤철학원 웹사이트	askjiyun.com
---------------	---------------	---------------	--------------

쥐띠 - 조금씩 이루어지는
 운수: 조금씩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면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금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금전적으로 안정되는 시기이니 투자에서도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애정: 일시적인 측면만 보지 말고 긴 안목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정을 나누게 되니 더 가까워집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0, 14, 19, 22일 길일 9, 12, 15, 21일 주의.

소띠 - 한 걸음 물러서서
 운수: 외면보다는 내면에 충실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나 앞서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야겠습니다.
 금전: 주위 사람으로 인해서 지출할 일이 생깁니다. 특히 순간적인 결정으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애정: 성격 차이 때문에 힘들고 고만하게 됩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함께 가야 할 수많은 날을 생각해야 합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1, 15, 17, 18일 길일 10, 13, 16, 22일 주의.

범띠 - 현실에 만족하고
 운수: 현실에 만족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새로운 투자나 사업체 확장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의 동요만 없다면 무난하게 지나갈 것입니다.
 금전: 모든 일을 순서에 따라 절차를 밟도록 합니다. 자기 뜻을 분명히 밝히면 이득이 따릅니다.
 애정: 처한 현실이 힘들수록 부부나 이성 간에 이해심으로 상대를 받아주어야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습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9, 12, 16, 22일 길일 11, 14, 15, 17일 주의.

토끼띠 - 차분한 마음으로
 운수: 주의가 산만하고 초조해지기 쉽군요. 이 일을 하면서 저 생각 저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전: 차분한 마음으로 적당히 긴장한 상태에서 일해야 하겠습니다. 계산상의 착오로 손해가 따를 수 있습니다.
 애정: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3, 16, 17, 20일 길일 12, 14, 18, 21일 주의.

용띠 - 미리 대처하는
 운수: 계획했던 일이 다소 늦어질 것이니 미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금전: 매매하는 일로 고심하게 됩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애정: 유혹에 빠져들면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00, 88, 76, 64, 52, 40년생은 14, 15, 18, 20일 길일 12, 16, 17, 19일 주의.

뱀띠 - 해결의 실마리를
 운수: 자신의 판단에 확신하고 행동해도 되겠습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쪽으로 생각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금전: 소유의 만족보다 베푸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인색하게 하지 말고 인간관계의 화합에 신경 쓰도록 하세요.
 애정: 약혼이나 결혼하기에 최적기입니다. 우연히 방문한 곳에서 멋진 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11, 13, 15, 19일 길일 14, 16, 17, 20일 주의.

말띠 - 애정이 더 깊어지는
 운수: 오랫동안 뜻대로 되지 않던 일이 해결되고 여러 면에서 나아집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의기투합하게 됩니다.
 금전: 금전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쉽게 풀려 나아갈 것입니다. 뜻밖의 소득으로 웃음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 희소식이 들려오고 애정이 더 깊어지겠습니다. 권태기의 부부나 연인에게도 희망이 보입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11, 13, 16, 20일 길일 9, 12, 18, 21일 주의.

양띠 - 가슴을 활짝 열고
 운수: 뭔가 변화를 주고 싶다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과 현실이 따라주지 못해서 갈등을 겪게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금전: 가슴을 활짝 열고 먼저 베푸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좁은 소견으로 결정하면 그만큼의 경제적 손실이 따르게 됩니다.
 애정: 사랑의 감정에 빠져있어도 결혼을 결심하기에는 자기 자신만이 느끼는 고민이 많겠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9, 11, 17, 21일 길일 10, 16, 18, 19일 주의.

원숭이띠 - 이 기회를 잘 활용하도록
 운수: 그동안 해오던 일을 바꾸거나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전업을 계획이 있었다면 실행에 옮기는 시기로 적합합니다.
 금전: 돌아가는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니 지금 오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하도록 합니다. 외부로 활동해야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애정: 연인이나 가족과의 갈등이 해소됩니다. 독신자는 분홍빛 사랑을 맛보게 되는 주가 될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0, 15, 18, 22일 길일 11, 17, 20, 21일 주의.

닭띠 - 행복하고 편안한
 운수: 주위의 변화에 잘 대응해야 대길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의 지지를 얻을 기회가 오니 신용회복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금전: 성실하게 일하면 뜻밖의 행운을 잡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의 도움으로 재기할 기회도 얻게 될 것입니다.
 애정: 행복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지내게 됩니다. 외로웠던 사람은 의지할만한 사람을 만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0, 11, 14, 19일 길일 12, 18, 20, 21일 주의.

개띠 - 외로움도 전염이 된다고
 운수: 해외로 나가거나 장거리 여행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사나 변동, 확장하기에도 적합한 때가 아닙니다.
 금전: 힘들다고 해서 지금 현실과 타협하는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훗날 찾아오는 복을 차버린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애정: 외로움도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상대의 외로움이 자신에게 전달되어 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2, 14, 20, 21일 길일 10, 13, 19, 22일 주의.

돼지띠 - 적당한 선에서
 운수: 아무리 내가 옳다 하더라도 옳은 것이 통하지 않고 막히는 일이 있을 때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는 것이 상책입니다.
 금전: 수입이 떨어지는 주입니다. 너무 매상을 올리려고 무리하다가는 오히려 문제가 발생합니다.
 애정: 주위의 눈을 피해서 만나야 하는 사랑이 점점 깊은 관계에 빠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잘 피해 가야 할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9, 13, 18, 21일 길일 10, 11, 14, 20일 주의.

오~레오레 100년을 위한 삶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시대! 준비하세요!



나에게 딱 맞는 호르몬 치료

- 나만을 위해 맞춤제조 •호르몬 치료에 골든타임을 놓치지마세요
- 백세시대 준비는 몸 안에서 부터
- 생체 동일한 호르몬은 몸을 보호해줍니다(Bio-Identical Hormone)



IV 테라피

본인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IV테라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IV테라피



건강한 몸, 또렷한 정신

치매치료신약

FDA에서 치료허락을 받은
새로나온 약 치매증세가
좋아지는 것을 경험해보세요!



바로 지금이
선택할 시간입니다

213.739.1025
266 S. Harvard Blvd. #320
Los Angeles, CA 90004

♠ ♦ ♣ ♥

놀라운 행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USA Today가 선정한 라스베가스 외 지역 #1 베스트 카지노,
Yaamava' Resort & Casino at San Manuel은 짜릿한 경품행사 및 엔터테인먼트 등
멈추지 않는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히말라야 버킨의 행운을 잡으세요!

이번 4월, 대기명단을 건너뛰고, 게임도 즐기면서
일생일대의 명품백에 당첨될 수 있는 독점 기회를
잡으세요! 5월 1일, 행운의 당첨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4월 중 총 8대의 JAGUAR를 드립니다!

4월 매주 목요일, 클럽 세라노 멤버 두 분에게
새 럭셔리 Jaguar XF를 드립니다. 행운을 빕니다!



YAAMAVA'
RESORT & CASINO
AT SAN MANUEL

LA에서 단 70마일 거리